



12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12호

(루게 590)

◇◇◇◇◇◇◇◇◇◇

차 례

◇◇◇◇◇◇◇◇◇◇



영원한 태양의 집	4
무한한 세계	5
들길우에 눈이 내리니... ..	17
장군님은 최전연에 계신다.....	18
고향의 봄언덕에 어머니 서계시네	20
그이 바라시는 명예	21
위대한 령장을 받드는 한길에	22
명언해설	23
령장과 다섯해	24
전선길에서 해가 솟는다	26
백두산	29
잠간 만났던 사람들	30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31
빠고다공원에 핀 꽃	32
나는 천지우에 서있다.....	35
도천마을의 물방아	36
김정일 , 그이는 령장	37
산촌의 새 력사가 펼쳐진 이야기.....	38

노래하는 탁상시계	40
불빛	41
서사시의 음악성과 운률을 훌륭히 살린 시대의 명작.....	42
칠보산	45
군인성격	46
운전사	52
하루길에 대한 생각(외 1 편).....	53
어머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53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54
땀의 호수.....	58
금강산으로 가자	59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는 땅	61
나는 어째서 명작으로 될만한 소설을 창작하지 못하고 있는가.....	64
눈물젖은 숲	66
한해의 편집을 끝내고.....	77
충신 병사의 시를 쓰며	79
불타는 해여	80

영원한 태양의 집

리명근

은은한 붉은 노을속에

숭엄히 서계시는

아 어버이수령님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

찾아온 인민들이 반가우시여

먼저 나오시여 기다리시는듯

그리움에 사무쳐

뜨거움에 목메여

여기선 정녕 그 누구도

가볍게 땄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발걸음...

이렇게 들어선다

수령님생각으로 꼭 차있는

그 끝없는 모습들

가슴속 심장의 맥박도

조용하나 하나처럼 뜨겁게 울리며

들릴듯말듯 발자국소리마저

숭엄함과 뜨거움을 더해주누나

수령님 뵈온 그 심장들이

머리속여 인사 드린 천만 자식들이

태양의 영원한 모습을 안고

여기를 말없이 나설 땐

아 어찌면 하나처럼 넘쳐나는

우리 장군님생각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충효와 의리의 최절정에 계시는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수령님과 꼭 같으신

장군님 계시여

더 든든해지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심장의 맹세여

수령님의 주체위업

장군님 받들어 빛내여갈

그 불타는 맹세의 발걸음이

거룩한 이 광장에

가득차 흘러넘친다

그 발자국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이어져가거니

이 땅위에 위대한 전변의 나날로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라

이렇게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들어서고 나서는

만민의 마음의 궁전

영원한 태양의 집

아 주체의 최고성지여!

무한한 세계

박해란

1

립춘절기의 뱀짬 추위에 삼라만상도 움추러든 듯한 고요한 새벽이다. 여러대의 승용차가 쌀쌀한 대기를 헤가르며 대도로를 따라 소리없이 미끄러져가고 있었다. 은백색이 연연히 내비치는 선두승용차안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인민무력부 장령인 현옥과 자리를 같이하고 앉아계시었다. 그이를 모신 차는 방금 대도로를 벗어나 키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힌, 고개마루를 가까이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깍지를 끼신 두손을 무릎에 올려놓으신채 창밖으로 연줄연줄 흘러가는 산발들을 바라보고계시었다. 차가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별안간 앞이 탁 트이면서 유리창 너머로 일망무제한 바다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장쾌한 바다풍경에 시선을 보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결을 떠나신후 처음으로 나와보시는 바다다.

《바다란 역시 겨울에도 자기의 고유한 생명력을 잃지 않거든.》

무척 귀익은 음성이 그이의 귀전을 울렸다. 분명 수령님의 음성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시었던 수령님의 명쾌하신 음성이 심중의 문을 열자 반사적으로 옆좌석을 살펴보시었다. 그러나 그자리에는 총참모부일군인 현옥이가 다소 굳어진 자세로 앉아있을따름이다.

그이께서는 그만 고개를 돌리시었다. 기대감이 상실되자 가슴속으로 공허가 서려들었다.

장군님께서는 밀물처럼 실려오는 피로움을 잊으시려고 가까스로 시선을 차창밖에 던지시었다.

그러자 그이의 눈앞에는 또다시 쉬임없이 설레이는 망망대해가 안겨들었다. 바다를 수평선우로는 금방 잠에서 깨어난 아침해가 장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푸른 물결을 이글이글 태우며 해돋이를 펼치던 붉은 열덩어리는 행성 끌고루에 빛을 뿌려줄 양인지 꼭 그러쥐었던 바다를 덜컥 품에서 놓아내리더니 드디어 하늘중천으로 치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은 가벼운 흥분으로 서서히 부풀어오르시었다. 해돋이의 진한 반사광속에 자나깨나 못잇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화폭처럼 떠오르시어 수면우의 공간을 짝 채우는 것이었다.

차내록음기에서는 나지막하게 음악이 울리고있었다. 차안을 감도는 부드러운 선율은 장군님의 심중에 가지가지의 감회를 실어왔다.

바다기슭을 따라 예이제 변함없이 뻗어있는 포장길, 금방 깔아놓은 자갈들이 아직 자리잡히지 않아 몹시도 들추었던 폭죽은 도로, 그러나 지금의 이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시였던 그 자갈길이 아니다. 그 자리에는 탄탄한 포장도로가 넓게 뻗어있다.

장군님께서는 이 길로 초행의 걸음을 하시였던 만 매일처럼 오가시던 길마냥 애뜻한 정을 느끼시었다.

감회는 또 한장의 갈피를 번져놓았다. 불쑥 그이의 눈앞에는 어제밤 수령님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서재를 찾으시였을 때 탁상일력갈피에 끼여있던 한장의 사진이 떠오르시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환갑이 지나신 어느해에 한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시어 병사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었다.

그이께서는 어제밤 집무실에 돌아오신후에도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었다.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잘 알고계시는 그이이시였던것이다. 갖조직된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대무기를 척척 다루는 나 어린 처녀들의 모습이 너무도 장하시어 그들을 량팔에 끼안으시고 찍으신 기념사진을 보시는 장군님의 뇌리에는 언젠가 보신적 있는 영화문헌의 화면이 인상깊이 떠오르시었다.

무거운 탄약상자를 어깨우에 건듯 올려놓고 산제비마냥 재빠르게 진지로 올라가는 단발머리병사들을 가리키시며 그때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외국수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었다.

《저들이 바로 내 딸들이요.》

장한 일을 한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는 어버이마냥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는 만족하신 미소가 함뿍 어리시였었다. 병사들도 행복에 넘쳐 포신을 돌리었다. 그 모습을 경이에 차서 바라보던 대통령은 곁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병사들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은 병사들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수령과 보통병사간에 어떻게 그런 황홀한 가정적紐대가 맺어지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실수 없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러움에 넘쳐 말씀올리는 대통령에게 환한 웃음을 보내시며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보이시었다.

《나와 병사들간에는 이것이 통한다고 할가. 말하자면 서로 믿고 따르며 심장을 주고받는 의리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혈연적紐대의 기초입니다.》

력사에 영원한 기록을 남기며 펼쳐지는 화면우에는 대통령의 감동된 얼굴이 나타났었다. 그는 수령님을 향하여 연신 박수를 울리며 이렇게 되뇌이었다.

《수령님은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조선인민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뜻깊은 화면을 회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로소 추억의 상념에서 깨어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집무탁우에 놓으시고 찬찬히 들여다보시었다. 햇빛같이 환하시고 다감하신 태양의 미소(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러한 표현에 스스로 공감되시었다.), 행복에 겨워 울며 웃는 예쁘장한 얼굴들...

수령님께서 남기신 귀중한 유물은 장군님의 마음속에 병사들에 대한 그리움을 엮어주었다.

참,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수령님께서서는 녀성해안포병들이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자라났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그때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시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군사복무를 해왔을 그곳 중대군인들의 가슴에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으랴.

장군님께서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시었다. 아물지 많은 상처가 그이의 심중을 건드리자 마음이 격해지시며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었다. 그러자 매일처럼 뵈군하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삼삼히 안겨오시었다. 바로 얼마전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제기된 사업을 문의하시려고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로 통한 전화기를 드시었다가 그만에야 맥없이 도로 놓으신적도 있었다.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는 책상우에 놓인 하얀 전화기가 분망하신 자신의 사업에 항상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곤하였다. 그 하얀 전화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전류를 타고 울려나올 때면 한순간에 새힘이 솟고 의도하시거나 구상하신 일들이 한시에 풀려나가는 기쁨을 매번 느끼곤하시었다. 그런데 인제는 자신께 도움을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던 그 정다우신 음성을 들으실수 없다.

장군님께서서는 감고계시던 눈을 뜨시고 앞에 놓인 하얀 전화기를 바라보시었다. 그 밤따라 하얀 전화기는 장군님의 눈썹리틀 오래도록 아프게 찢렸다.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기대었던 몸을 바로 세우시고 탁상일력을 가까이 끄당기시었다.

그러시고는 일력의 새 장을 번지고 그우에 사진을 정히 올려놓으시었다. 사진속에서는 수령님의 품에 안긴 병사들이 웃음꽃을 활짝 터치고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의 영원한 상징이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신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러시고 창문쪽으로 다가가시어 집무실창가를 가리웠던 차광막을 활짝 열어젖히시었다. 별들이 동동 떠있는 하늘에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깃을 퍼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창가에서 물러서시자 곧 빠르신 걸음으로 커다란

랑수책상이 놓여있는곳으로 가시었다. 그리고 수자가 주련이 달린 밤빛 전화기를 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무력부교환대가 나오자 총참모부를 찾으시어 현욱에게 곧 녀성해안포중대로 동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아침해가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은 창밖에서는 자연의 엄연한 리치인양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을 맞이할 차비런듯 동쪽하늘이 차츰 열리기 시작하였다.

승용차는 여전히 탄탄한 포장도로를 따라 조용히 달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감개에 싸인 현욱의 표정을 일별하시자 평양을 떠나면서 그가 하던 말이 언뜻 상기되시었다. 녀성해안포중대는 지난해 여름 무력부적으로 진행된 격술관경기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2중 3대혁명붉은기중대의 영예를 지녔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스무해전에 주신 현치교시과업을 백프로 집행한셈이다. 영예의 우승기를 수여받고 초소로 떠나던 날 중대장이 현욱에게 눈물이 글썽하여 했다는 말은 장군님의 심중을 파고들었다.

《상장동지, 우리 중대성과를 위대한 수령님께 꼭 보고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수령님께서 무척 기뻐하실겁니다. 참, 우리 병설뒤산에 심은 산딸기가 올해에는 어찌나 줄기를 많이 뻗었는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중대동무들은 빨갈게 익은 산딸기를 수령님께서 오시면 드리겠다고 애지중지 키우고있습니다.》

장군님의 열좌석에 앉아 해안포중대로 동행하고있는 현욱도 이 시각 최명옥중대장의 말을 기억속에 더듬고있었다. 그때 눈가에 물기가 함초름이 내뻐 치너중대장의 가름한 얼굴에는 기대가 한껏 어려있었다. 그러나 현욱은 그들의 소원을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릴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온 나라를 슬픔의 바다에 잠기게 한 뜻밖의 비보가 전해진것이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나날에 이어 그 이후의 날들은 현욱에게 녀성해안포중대군인들에 대한 생각을 미처 가질새없이 드바쁜 나날이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현욱에게 녀성해안포중대로 동행하자고 전화를 걸어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던 현욱의 그 심정을 리해하여주고싶으셨다. 그럴수록 그이의 눈앞에는 온

중대가 격술동작을 익히느라 밤잠을 잊고 땀 흘렸을 모습이며 그들이 가꿔왔다는 빨간 산딸기밭이 보이는데 삼삼히 어려오는것이였다.

승용차는 장군님의 가슴속에 켜처럼 고여오르는 따뜻한 정을 실고 바다기슭을 따라 내쳐 달리고있었다.

술잎마다 기쁨기가 철철 넘쳐흐르는 해송이며 운치좋은 흑송들이 빼곡이 들어찬 숲밭속을 꿰질

러 달리던 차는 드디어 절묘한 바위들이 키쫓음을 하고있는 산등성으로 돌아올랐다. 등성이아래로는 아담한 군인병실이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병실뒤쪽으로 바다한끝이 바라보였다. 바로 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녀성해안포중대가 있을것이다.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육중한 포를 나어린 녀성의 몸으로 척척 다루고있는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기특한 병사들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인제는 담당한 일당백의 만능포병으로 자라났다는 군인들을 그려보시는 장군님의 얼굴에는 봄빛같이 따스한 표정이 한껏 어리었다.

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모신 차는 녀성보초병이 받들어총을 올리고있는 정문을 지나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다급한 종소리, 만세의 환호소리...

초소는 말그대로 용암이 분출한 바다처럼 들끓었다. 감격의 도가니에 놀란 한무리의 새떼가 꽃보라마냥 병실뒤산쪽에서 날아올랐다. 때를 같이하여 병실뒤산에 위치한 포진지에서 철갑모들이 오뚝오뚝 솟구치더니 전투복장차림의 녀성군인들이 밤알쏟아지듯 한꺼번에 교통호를 빠져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 중대를 찾아주신것을 안 그들은 두손을 높이 쳐들고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을 향하여 줄달음쳐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곧장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맨앞에서 달려오던 처녀군관이 장군님가까이에 이르자 《중대 차렷!》하고 힘차게 구령을 내렸다. 와-하고 앞을 다루어 뛰어오던 병사들은 지휘관의 구령소리에 우뚝 우뚝 멈춰섰다. 감격에 들끓던 주위는 폭풍위의 정적과도 같이 일시에 고요속에 잠겨들었다. 장군님께서도 서두르시던 걸음을 멈추시였다. 차렷구령을 내린 처녀군관이 정보로 걸어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군인의 동작이 몸에 폭 배인 중위의 정보사열모습을 지켜보시였다. 장군님의 곁에 서있던 현옥은 그이께 최명옥을 소개해드렸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중대장을 바라보시였다. 키쫓이 잡히고 무게가 있어보이는 처녀가 세찬 격정의 파도를 한순간에 거머쥐고 씩씩하게 걸어오고있었다. 일체 소음이 잦아든 공간 위에 자박자박 언땅을 내짚는 그의 발걸음소리만이 지축을 울리는 열병대오의 행진소리마냥 크게 확대되어 들려오는듯했다. 문득 그이의 뇌리에는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열병대오의 거창한 흐름을 사열하시던 때가 회상되시였다. 인민군대의 씩씩한 발걸음소리를 들으실 때가 제일 흐뭇하다고 하시던 수령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장군님께서서는 중대장이 딱소리가 나게 발을 모아붙이고 보고를 시작하는바람에 생각에서 깨어

나시어 몇걸음 마주 걸어나가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 제3중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보고드리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그의 오른손이 바르르 떨리는것을 보시였다. 그의 눈가에서는 맑은 이슬이 솟구쳐올라 해빛에 방울방울 부서져내리고 있었다.

《중대장동무 건강하오?》

장군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을 보내시며 명옥의 오른손을 잡아내리워주시였다.

오매불망 그리던 그이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에게 와닿자 명옥은 걱정이 북받쳐올라 《장군님!》 하고는 그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가슴속에 덩이져있었던 그리움이 이 순간 눈물의 샘줄기로 터쳐올라 얼굴을 적시고있었다.

《중대장이 올면 되나. 자, 병사들이 보는데 어서 쉬엣구령을 주라구.》

장군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오자 명옥은 얼굴을 들었다. 그이의 봄빛같은 미소가 명옥의 마음을 포근히 안정시켜주었다.

《쉬엣!》

자기들의 앞에서 줄곧 미소를 지으시고 자애로 넘치신 모습으로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이에 차서 우러르던 병사들은 쉬엣구령이 내리자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그이를 향하여 달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얼음이 깔려 매끈거리는 길로 뛰어오는 군인들을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두팔을 벌리시였다. 저리다가 넘어지기도 하면 어찌랴싶은 심정에 다급히 마주걸어가시였다.

병사들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들을 맞아주시는 장군님께 떼지어 달려가 그이의 량팔에 오롱조롱 매달렸다.

《장군님!》

《장군님!》

그이께서는 자신을 겹겹이 에워싼 군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래, 모두 잘 있었나? 앓는 동무들은 없소?》

《없습니다!》

《없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짜랑짜랑한 목소리에 만족하신틀 밝게 웃으시며 다시금 그들을 차례로 둘러보시였다. 추위속에서 포수훈련을 하느라고 사파알처럼 빨강계 익은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한결같이 건강미가 넘쳐흘렀다. 체격들도 모두 골골하였다.

장군님의 곁에서 그들의 빨개진 얼굴을 쳐다보던 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이께 조심히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날씨가 몹시 찬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장군님을 에워싸고 기쁨에 떠있던 병사들도 비

로소 그이께 저저마다 말씀올렸다.

《장군님, 우리 병실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어서 우리 병실에 들어가십시오.》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병사들을 대견한 표정으로 바라보시었다.

《고맙소 동무들,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만.》

그이께서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장령들쪽으로 시선을 바꾸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병사들은 장군님의 치하의 말씀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햇병아리마냥 그이의 곁으로 더욱 바투 모여들었다. 귀여운 자식의 재롱을 흐뭇하게 여기는 아버지처럼 병사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물으시었다.

《어떻소, 이렇게 맵짠 추위를 극복하기가 힘이 들지?》

《힘들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해빛같이 따사로운 존안을 환희에 넘쳐 바라보던 병사들은 마치 그이의 물으심을 기다리고있듯 목소리를 합쳐 대답을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씩씩한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드시여 만족하신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러시다가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눈동자가 유난히 까만 애 어린 전사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물기가 어려 별빛처럼 빛나는 그의 까만 눈을 들여다보시며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래, 고향은 어디지?》

《옛, 전사 황금희!》

장군님의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크게 대답을 드렸다.

《장군님, 랑림류별사업소마을이 제가 나서자란 고향입니다.》

《하- 그러니 산매가 바다로 날아온셈이군그래.》

전사는 가슴이 벅차올라 두툼하게 숨을 넣어 누빈 군복옆자락에 두손을 꼭 붙이고 서있을뿐이다.

《어때, 바다가 좋지?》

장군님께서는 초롱초롱한 그의 눈빛을 다시금 들여다보시며 살뜰하신 어조로 물으시었다.

《옛,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총까지 잡고 바다에 서니 마음도 억세여지고 인젠 갈매기도 부럽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께서는 전사의 대답이 마음에 드시여 빙그레 웃으시다가 아까처럼 그를 향하여 다시 몸을 기울이시었다.

《전사동무, 포를 다루기가 무섭지 않나?》

어리광이 비낀 전사의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이 피어났다.

《장군님, 사실 처음엔 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인젠 수예바늘로 범을 수놓기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오돌찬 대답에 병사들도 웃고 장령들도 소리내어 웃었다.

《하- 대포를 다루는 일이 수예바늘로 범을 수놓기라.》

장군님께서는 짐짓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시며 현욱이며 장령들을 바라보시었다.

《동무들 들었소? 이 전사동무가 수예범만이 아니라 진짜 범도 잡을수 있겠소. 그렇지 않소?》

《예.》

그이께서 장령들에게 눈을 끔벅하시며 말씀하시자 그들은 유쾌한 웃음판을 펼치며 이렇게 대답을 드렸다.

전사는 금시 얼굴이 해당화빛이 되었다. 그러나 용기만은 잃지 않았다.

《어마나, 장군님, 팡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장군님께서 명령만 주시면 백발백중명중탄을 넣다 싸갈길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장군님께서는 별안간 가슴이 쩡 해오는것을 느끼시었다. 그리고 기특한 어린 전사를 한품에 안아 저 푸르고 창창한곳에 높이높이 취올려주고싶으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내색을 안보이시고 그루를 박듯 다시금 물으시었다.

《정말, 자신이 있소?》

《옛, 자신있습니다.》

장군님의 주위에 빙 둘러섰던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그럼 어디한번 동무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볼가?》

《야!》

탄성이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는 아까부터 찬 날씨에 원심을 쓰고있는 현욱이 초조한 기색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는것을 얼핏 띄여보시였으나 못보신체하시고 중대장쪽으로 몸을 돌리시었다. 그러시고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다가 이윽고 그에게 전투정황을 주시었다.

명욱은 장군님으로부터 전투정황을 받자 《알았습니다.》 하며 딱소리가 나게 거수경례를 올린후 전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중대 포에롯!》

장군님의 곁에서 웃고 떠들며 어리광을 치던 병사들은 순식간에 판사람이 된듯하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담력이란 있어보이지 않던 처녀들은 철갈모밀로 머리칼을 날리며 산재비마냥 나는듯이 포진지로 달려가는것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대견한 빛이 어리었다. 여느 처녀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히면 미인으로 보일 한창나이의 처녀들이 땀배인 군복을 말리울새도 없이 파도세찬 바다가초소에서 청춘시절을 보낸다는것은 얼마나 장한 일인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젊음을 바쳐가는 병사들이야말로 나라의 자랑이며 당이 아끼는 보배들인것이다.

그이의 사색을 깨치며 집채같은 파도가 기슭으

로 밀려오더니 석축벽을 힘껏 때린다. 그 서슬에 놀란 갈매기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르며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그러다가 날개를 멈추고 먹이를 찾아 다시금 촌살같이 내려와서는 바다물 속에 부리를 박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나운 파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는 갈매기들을 눈으로 쫓으시다가 천천히 방파제우에 올라서시었다. 살을 에이는 맵쌀 바람이 그이의 얼굴이며 목깃을 세판게 스치며 불어쳤다. 바람과 함께 기슭에 밀려온 파도가 또다시 석축벽을 때리며 물갈기를 일으켰다. 방파제우로는 주먹만한 물보라들이 사방으로 끼얹혀졌다. 그이의 솜옷자락이며 신발우에도 물방울이 점점이 튀어올랐다.

세찬 바람을 맞받아나가기던 장군님께서서는 방파제우로 얼마쯤 걸어가시다가 모자를 벗어드시었다.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었다. 한창 포좌지를 차지하고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시던 그이의 시선은 문득 한 병사의 허리춤에 가 멎으시었다. 그의 옆구리에는 꽃천으로 만든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군복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꽃천 주머니를 차고있는 병사를 의아한 빛으로 바라보시다가 중대장에게 그를 가리키시며 물으시었다.

《중대장동무, 저건 무슨 주머니요?》

《소금주머니입니다.》

《소금주머니?》

그이께서는 납득이 인차 안가시여 혼자말씀으로 반문하시었다. 명옥은 소금주머니에 깃든 사연을 한마디로 대답드릴수 없는듯 머뭇거리고 서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서 말하라구.》

장군님께서서는 우선우선하신 어조로 명옥을 재촉하시었다.

《장군님, 우리 중대동무들은 스무해전 아버지 수령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령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금시라도 아버지 수령님께서 우리 포진지를 찾아오실것만 같아 열음이 지는날이면 방파제에 소금을 뿌려놓곤하였습니다. 엿저녁에도 우리 동무들은 일기예보를 듣자 모두 소금주머니를 차고 방파제에 나왔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중대장의 차분한 목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시며 포진지를 향해 뻗은 방파제에 묵묵히 눈길을 주시었다. 바다기슭에는 얼음버께가 끼였어도 물방울이 튀어올라 축축이 젖어든 방파제에는 해빛이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그 빛에서 병사들의 불덩이같은 마음을 들여다보시었다.

용암은 땅밑에서 흐르는것이다. 그러나 일단 땅위에 분출하면 그 뜨거운 열로써 지구의 한부분을 변화시키고야마는것이다. 거창한 바다도 동토대로 만드는 자연의 횡포앞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마음을 간직한 병사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

는 불쑥 이 자리에 수령님께서서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랴하는 생각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해풍에 내맡기신채 포진지를 향해 걸어가시었다. 포좌지들에서는 화력부관의 수기에 따라 훈련이 시작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들리시였던 2포좌지앞에 이르시자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러시고는 한자리에 머무르신채 그중 어려보이는 몸매 호리호리한 전사의 동작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장탄수의 동작을 수행하고있는 꼬마전사는 장군님께 올린 자기의 대답이 빈말이 아님을 그이께 보여드리려는듯 온힘을 모아 포신에 포탄을 밀어넣고있었다. 아직 군복냄새가 나지 않는 애 어린 처녀가 그야말로 수예사가 범을 수놓아가듯 민첩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있는것을 보신 장군님의 얼굴에는 대견한 빛이 한가득 어리었다. 다음순간 그이의 가슴을 축축히 적시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을 이 만 족스러운 자리에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였다. 그이께서 오늘 이들의 훈련모습을 보셨더라면 과연 내 딸들이 다르다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장령의 말처럼 아마 여름철이라면 이 용감한 병사들은 바다가에서 해염치는 장한 모습도 보여주었을것이다. 화력복무훈련만이 아니라 격술에도 정통하고 수영도 겸비한 백프로짜리 만능포병들을 수령님께서 보시었더라면 생전에 그이께 기쁜날을 또하루 마련해드렸을것이 아닌가.

화력부관의 수기가 내리워지고 포장들의 야무진 구령소리도 멎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방금 훈련을 끝낸 군인들이 대오를 정렬해선 포진지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앞에 이르시자 여직껏 손에 들고계시던 모자를 쓰시었다. 이 시각 그이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기쁘게 한 군인들에게 크나큰 감사를 주고싶으시었다. 이런 병사들에게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흥분에 휩싸여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열정적인 음성으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훈련에서 성과를 거둔 군인동무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줍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만세! 만세!》

뜨거운 환호성이 온 천지에 메아리쳤다. 오래 동안 갈망해온 환희의 시각을 맞이한 병사들의 눈가마다에는 기쁨의 눈물이 샘처럼 고여올라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중대장앞에 이르시자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그의 눈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기쁨에 겨워 웃는 그의 눈에 피곤이 실려있는것을 보시자 가슴이 뭉클 젖어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대 군인들을 만능병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라 잠인들 편히 잤겠으며 휴식인들 변변히 했겠으랴. 병사들의 앞장에서 자기를 헌신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관철해낸 이런 지휘관을 만나게 되신것이 무척 기쁘시었다.

《수고가 컸겠소.》

그이께서는 중대장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었다. 다음순간 장군님께서 손은 놓으실수 없었다. 남자들처럼 굳은살이 배긴데다가 해풍에 터갈라진 처녀군관의 손을 보시는 그이의 심중에는 자신께서 다 주시지 못한 사랑이 중대장의 귀한 손에 빈공간을 남긴것처럼 생각되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한사람한사람 가슴속에 새겨두시려는듯 차례차례 둘러보시었다. 그들은 마치도 백사장에 무수히 피여난 싱싱한 해당화 꽃송이를 방불케 했다. 해당화야말로 모진 광풍에도 꺾이지 않고 붉게 피어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 그것은 쉬임을 모르는 바다가 자기 열정의 생명력으로 꽃에 푸른 자양분을 주고 억센 숨결을 주기때문이라. 바다가초소에 뿌리를 내린 저 녀성해안포병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키워낸 새 세대 청년군인답게 자연의 횡포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혁명의 억센 꽃송이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관이 가져온 쌍안경을 송업한 마음으로 눈여겨보시었다. 그이께서 보시는 쌍안경중심부위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장군님께서 중대장과 몸매 호리호리한 아가의 그 꼬마전사를 가까이 부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과업을 기어이 실천해낸 장한 군인들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깊이 깊이 새겨주고싶으셨다.

그이께서는 손에 드시였던 쌍안경을 중대장의 가슴에 안겨주시고나서 또 하나를 손수 전사의 목에 메워주시었다. 나 어린 전사는 쌍안경을 두 손으로 꼭 그러쥐며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랑림골안을 뛰어다니던 소년시절에는 사랑의 책가방을 작은 어깨우에 메워주시고 철따라 새교복을 비롯한 선물들을 가슴한 가득 안겨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오늘은 군복입은 가슴에 또다시 사랑의 쌍안경을 손수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전사는 이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가슴 뜨거이 깨달으며 복받치는 격정을 그이앞에 쏟고야말았다. 한가정의 어버이와 딸의 관계이런듯 장군님과 병사사이에 한치의 간격도 없는 육친의 사랑이 불멸의 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는것을 지켜보며 현욱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바람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거센 숨을 킁쉬며 격량을 일으키던 검푸른 바다는 사랑으로 가득찬 이 뜻깊은 시각을 영원히 지켜주

려는듯 대동을 멈추고 조용히 처절씩이고있었다.

3

중대건물들을 차례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녀성군인병실에 들어서시었다. 파스한 해빛이 정가롭게 비쳐드는 방안은 참으로 아늑했다. 눈같이 하얀 백포를 깔아놓은 침대우에는 똑같은 색깔과 크기의 모포가 자를 내고 포개여놓은것처럼 규모있게 정돈되어있었다. 병실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녀성들의 알뜰한 솜씨가 엿보였다.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녀성들의 알뜰한 솜씨가 엿보였다. 어찌보면 녀성들이란 남자들이 갖추지 못하고있는 자기 특유의 섬세성으로 녀성의 힘을 과시하군 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로 녀성들의 이러한 힘을 보시고 일찌기 남자들과 똑같이 혁명의 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당당한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장군님께서 이 녀성해안포병들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그 값높은 칭호를 영예롭게 빛내어나가는 장한 군인들임을 믿어마지 았으셨다. 이 처녀군인들이 자기들의 보급자리를 꾸린것만 보아도 확실히 지휘관의 요구성이 높고 병사들의 집행력이 강하다는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사물함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중 하나를 손수 열어보시었다. 담을 댄 함안에는 상학노트며 크림단지, 바느신통과 같은 사품들이 들어있었다. 물을 먹여 뺏뺏이 다림살을 세운 목달개마다에는 코바늘로 가녀를 곱게 장식까지 하였다. 여러가지 색실을 오리오리 모아둔 가시함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녀성들의 작은 세계를 이루고있는 사물함을 들여다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다가 맨 아래단에 무드기 쌓여있는 편지봉투들가운데서 그중 하나를 꺼내드시었다. 이미 개봉이 된 봉투였다.

그이께서는 곁에 서있는 중대장에게 사물함의 임자를 찾으시었다. 그이의 앞으로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몸매가 펍 다부진 상등병처녀가 나섰다. 그의 옆구리에는 아직도 소금주머니가 대롱거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가까스로 흥분을 누르며 차렷자세로 서있는 그에게 다정히 말씀을 건네시었다.

《상등병동무,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그이의 물으심에 상등병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온 나라가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갓 병사에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부탁하실 일이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니 문득 심장이 방망이질하는것이였다. 그는 세차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병실안이 쨍쨍 울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

을 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결전장에 나서는 병사마냥 긴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그의 당돌한 행동에 그만 소리를 내어 웃으시었다. 그리고 즐거운 안색을 지으신채 그에게 봉투를 내미시었다.

《아니아니 명령은 아니야. 이걸 내가 봐도 일 없겠는가 동무의 허락을 받아는거요.》

그이께서 주시는 봉투를 받아든 상등병처녀는 금시에 얼굴빛이 빨갛게 되어버렸다.

《이 편진 아버지한테서 온겁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지만 그렇지만...》

《좋아. <비밀>은 루설하지 않기로 하지. 그러나 허락은 한셈이야 응?》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즐거우신 안색으로 그에게서 편지를 받아드시었다. 그러시고 밤알만큼씩 한 글씨가 빼곡이 들어찬 종이에 시선을 모으시었다.

《...막내야. 네가 벌써 한줄을 박았더니 이 아버지 정말 기쁘다. 네 어머니도 내 딸이 당당한 포수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다. 글썄 네 편지를 받은 날에는 어쨌는줄 아니?

포를 다루는 네가 감기에라도 걸리만 야단이라면서 온밤 내의며 장갑을 뜨느라 밤을 꼬박 새웠단다. 어머니란 역시 어머니인가부다. 쓸데없는 걱정엔 내가 통을 놓았지.

<여보 로친네, 우리 애는 장군님께서 어련히 보살펴주시는 앤데 공연히 수고일랑 말고 집돼지나 잘 기릅시다. 그게 바로 진짜 막내를 위한 일이고 우리 인민군대를 돕는 일이라는걸 당신이 모르오?>

막내야, 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사적포를 다루는 포수라니 아무쪼록 장군님의 군대답게 군사복무를 착실히 하거라. 이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이다. 찬 날씨에 몸성하길 바란다. 아버지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편지를 다 읽으시고 나서 차곡차곡 접으시었다. 가정의 온기가 소박하게 내비치는 한장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후덕혀주었다. 병사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사랑도 어머니의 심정과 다를바 없어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현옥과 그옆의 장령들을 바라보시었다. 저들이 바로 그것을 자각하고 자기 심장의 뜨거운 열로써 전사들에 대한 사랑의 임무를 감당해나가야 할 일군들인것이다.

최명옥중대장이 그이앞에 다가서며 자기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실것을 청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병실중간복도로 걸어나오시었다. 침대맡은켄 벽의 중심에는 커다란 액틀에 끼운 사진이 정히 모셔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재에서 보셨던 그 사진이었다. 그이께서는 사진앞에 잠시 머물러계

시다가 천천히 침대들쪽으로 다가가시었다. 그의 앞에는 해당화를 수놓은 방석이 놓여있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오리오리 색실을 모아두었던 상등병의 사물함이 언뜻 떠오르시었다. 이윽히 방석을 내려다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맨마루우에 앉으시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중대장의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에 눈길을 드시었다. 그의 커다란 눈에는 마음속깊이 묻어두고있던 사연이 눈물로 용해되는지 이슬이 가랑가랑 맺히고있었다.

《중대장동무, 고맙소. 난 여기가 좋구만. 수령님께서 앉으시였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동무들의 공연을 보겠소.》

순간 현옥은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셨던 스무해전 그날의 감회가 북받쳐오름을 느꼈다. 군관복을 입었던 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해드렸을 때도 수령님께서는 침대널마루우에 스스로없이 앉으시여 병사들과 담화도 나누시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였던것이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뜨거운것을 삼켰다.

《무대》에서는 중대예술소조공연이 시작되고있었다. 장군님을 자기들의 병실에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된 군인들은 저들의 행복한 생활을 무대우에 펼쳐놓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무대에 나선 그들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시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해풍이 불어치는 훈련장에서는 일당백초병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던 이들이 지금은 소박한 무대우에서 락천적인 병사생활의 정서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꾸려나갈줄 아는 기특한 처녀들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어버이수령님을 티없이 깨끗한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온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보석같은 마음을 지니고 군무생활을 성실히 해온 이들에게 만점짜리점수를 아낌없이 매겨주고싶으셨다.

중대합창으로 막을 연 무대에서는 중대장의 독창으로도 소개되었다. 그이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중대장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었다. 목소리가 유순하고 구성지여서 청중과 호흡이 잘될거라고 생각하시었다. 그보다는 중대장의 지휘관다운 성품이 더욱 마음에 드시었다. 훈련에서 요구성이 높고 생활에서는 전사들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일줄 아는 지휘관일뿐아니라 인물체격도 림름하고 노래도 배우못지 않게 잘하는 저 중대장이야말로 얼마나 기특한 동무인가. 지휘관은 저 중대장처럼 실력으로 병사들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감격에 넘쳐 노래를 부르고있는

그의 가무스레한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곁에 앉은 현욱에게 물으시었다.

《중대장동무의 나이가 몇이요?》

《스물세살입니다. 아주 재간둥이입니다. 중대장이 격술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니 온 중대가 지휘관을 닮아갑시다.》

현욱은 무력부적으로도 평가가 좋은 지휘관을 소개해드릴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것이 기쁜듯 자랑삼아 말씀드렸다.

《그런데 중대장의 얼굴이 원래 저렇소?》

뜻밖의 물으심이였다.

현욱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그이께 말씀을렸다.

《저... 해풍이 심하다보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동무들은 해풍에 얼굴이 더갈라질 때라야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뽐뽐이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중대장동무의 얼굴을 병사의 기준처럼 여기고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아무 말씀도 않으신채 중대장쪽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다시금 물으셨다.

《그럼 현욱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예?...》

현욱은 그이의 물으심에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지도사업을 내려왔던 군관들에게서 중대장의 얼굴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를 기록하게만 생각해온 현욱이었던것이다.

《현욱동무, 집에 딸이 있지요?》

《예, 체육단에서 자격선수로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더는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리고 중대장의 가무스레한 얼굴을 이익히 바라보기만 하시였다. 문득 그의 손을 잡아주실 때 슬며시 손을 군복뒤로 가져가던 모습이 눈가에 어려오시였다. 땀에 절고 추위에 거칠어진 손이였다. 중대장의 손만이 아닐것이다. 그 손으로 중대의 군인들은 포신을 돌리고 방파제에 소금을 뿌려왔을것이며 딸기발을 가꾸고 꽃밭석에 정성을 모아 수를 놓아왔을것이다. 저 병사들이야말로 자식된 도리를 훌륭히 지켜갈줄 아는 진짜배기군인들이고 수령님의 딸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찢릿해움을 느끼시며 앞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자 그이의 눈앞에는 자신과 꼭같이 침대닐마루우에 병사들과 함께 앉아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해살마냥 환히 비쳐드시였다. 액틀사진속에서 봄빛처럼 따스한 미소를 지으신 수령님께서 스무해전처럼 자애로우신 음성으로 《저들이 바로 내 딸들이요!》 하고 자랑하시듯 자신을 바라보고계시는듯하였다.

(수령님!)

장군님께서는 부지중 입속으로 이렇게 외우시였다. 그것은 그이의 뜨거우신 심장이 박동을 다하여 웨치는 부르심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속에서 세차게 울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래도록 사진에서 숨엄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무대에서는 중대장과 병사들이 화음을 맞춰 다음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얼굴은 비록 해풍에 더갈려도 깨끗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그들의 노래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여 저 군인들의 훌륭한 노래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대견해하시교 기뻐하셨을가.

무대로 소개자가 나오더니 새 종목을 알렸다.

《다음은 노래이야기입니다. <딸기밭에 어려있는 우리의 마음>.》

소개자가 들어가자 대여섯명의 처녀군인들이 손에 빨간 딸기를 형상한 소도구를 들고 무대에 나섰다.

현욱이 장군님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저 동무들이 딸기밭을 가꾸온 자기들의 생활을 이번 종목에 취급한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가볍게 수궁하시면서 여전히 무대쪽에 눈길을 주시였다. 처녀들이 딸기밭을 가꾸온 자기들의 생활을 방불히 펼쳐놓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면 잘 익은 딸기를 드리겠다고 겨울이면 부식토를 팔아주고 여름이면 샘물을 떠다주면서 휴식도 모르고 가꾸온 산딸기였다. 그렇게 가꾼 딸기가 빨강게 익을무렵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처녀들은 무대우에서 오열을 더뜨렸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소도구에 방울방울 떨어져내리고있었다. 중대장의 슬픔에 젖은 목소리가 장군님의 귀가에 들려왔다.

《동무들, 인젠 그만 내려들가자요.》

병사1 중대장동지, 이 빨간 열매가 우리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안겨주자고 이렇게 많이 열린것은 아닐가요?

병사2 이 딸기향기가 어버이수령님 령전에 날아가서 풍겨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수령님께서 다시 눈을 뜨실것만 같애요.

중대장 아 날이 감에 따라 홍보석마냥 온 산을 빨강게 물들이던 딸기는 저절로 무르익어 한알두알 풀썩에 떨어졌습니다. 피빛처럼 빨강게 타던 열매가 끝내 자기 빛을 잃었습니다.

병사1,2 그러나 빨간 딸기는 스러지면서 마지막 힘을 모아 짙은 향기를 숲속에 남겼습니다.

손풍금수가 조용히 비애의 곡을 타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손풍금소리를 들으시면서 평양의 밤거리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었던 7월의 그 여름밤 회상하시였다. 온밤 쓸쓸히 내리던 비, 그칠줄 모르고 울리던 추도곡의 애절한 선율, 비물에 젖고 눈물에 젖어 바르르 떨던 꽃뿔음들과 추모의 화환들...

깊은 밤 만수대언덕에 오르시여 인민이 겪는 슬픔을 함께 나누시던 장군님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발을 뚫고 한줄기의 빛이 비쳐드시였다. 그것은 분명 태양의 빛이었다. 언제나 해빛처럼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이었다. 순간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공허가 사라지고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뿌리내릴 그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온 가슴을 꽉 채우고있었다.

따사로운 그 빛발을 몸가까이에서 느끼시며 그 날을 회상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시여 무대를 바라보시였다. 처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소도구용 빨간 딸기가 병실뒤산에서 가꾸었다는 그 산딸기처럼 여겨지시였다. 그러자 분명 어디선가 진짜 산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병실안을 감도는듯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더는 억제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시여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손풍금소리가 곡조를 바꾸어 다시금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슬픔을 힘으로 바꾼 손풍금수의 기백있는 반주를 들으시며 처녀군인들을 바라보시였다.

중대장 (격정에 싸여) 동무들, 우린 비록 어버이수령님께 우리가 가꾼 딸기맛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이 딸기의 빨간 빛갈처럼 변심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이 열매의 향기처럼 깨끗한 효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자요.

병사1,2 중대장동지! (서로 포옹한다.)

중대장 동무들, 우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의 7련대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가 될것을 이자리에서 굳게 맹세다지자요.

모두 (무대밖의 군인들도 목소리를 합치여) 맹세합니다!

녀성군인들의 맹세의 목소리가 온 방안을 찌렁찌렁 울리자 장군님께서는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그이께서 크게 박수를 쳐주시자 군인들은 뜨거운 눈물로 볼을 적시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그 광경이야말로 사랑과 믿음, 신념과 맹세로 호흡을 이룬 일심(一心)의 장엄한 화폭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관을 부르시였다.

《어서 총을 가져오시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군인들쪽으로 급히 걸어가시였다. 그러시고 부관이 가져온 자동보총을 손에 드시고 글자가 새겨져있는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총에는 《조국통일》이라는 네글자가 자신의 친필로 새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중대장의 손에 자동보총을 넘겨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중대장동무, 나는 동무들이 수령님의 영원한 딸이 될것을 굳게 믿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친딸이 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믿음이 어리신 시선으로 군인들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바로 이 훌륭한 녀성군인들을 보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였을가 하고 느닷없이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 장령들을 이끄시고 병실밖을 나서시였을 때는 멀지 않은곳에서 푸른 바다가 여전히 물결을 출렁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한참동안 수십깊은 바다한가운데를 응시하시다가 장령들에게 그곳을 가리키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저 바다를 보시오. 저 무한한 바다는 자기의 품안에 거대한 보물을 간직하고 쉬임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자기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밑바닥에 간직한 보물을 기쁨지게 하면서말ियो. 병사들을 책임진 우리 지휘관들은 저 웅심깊은 바다처럼 열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의 뜻을 단 배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내달립니다.》

우리는 저 바다와 같이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장군님의 눈가에는 엄숙하면서도 거연한 빛이 흘러넘치시였다. 이 시각 그이의 가슴에는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무한한 바다를 이루고있었다. 행성을 그러안은 해가 하늘중천에서 바다를 향하여 따뜻이 손저음하고있었다. 푸른 바다를 금빛으로 수놓은 해빛은 사랑으로 가득한 장군님의 가슴에도 따뜻이 비쳐들고있었다. 그 해빛은 장군님의 사랑의 철리를 자기의 빛과 열로써 영원히 바다에 새겨두려는듯 아낌없이 금빛해살을 뿌려주고있었다.

4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의 단잠을 지켜주는 수호신마냥 가로등이 거리를 묵묵히 비쳐줄뿐 한낮의 소음이 깨끗이 가셔진 조용한 밤이다.

그러나 이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고있었다. 간단없이 올리던 송수화기도 침묵속에 잠긴지 오래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시던 문건의 마지막장을 덮으시고 고개를 드시였다. 무리등불빛에 반사된 그이의 눈가에는 피로의 기색이 완연하였다. 녀성해안포중대를 방문하고 오시는동안에만도 문건은 집무탁우에 가득 쌓였었다. 그 많은 문건들을 하루밤사이 일일이 료해하고 비준하시느라 안정의 여유시간마저 틈내지 못하신

그이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눈의 피로를 푸실양으로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대시였다. 방금전에 보신 자료가 꼬리를 치듯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어느 중앙기관의 교환수처녀가 농촌으로 진출한 소행에 대한 자료였다. 수도에서 태어나 부모의 슬하에서 고스란히 자라난 열아홉살의 처녀가 한생을 땅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것은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농장벌의 한줌 거름이 되고저 자진하여 정든 보금자리를 떠났다는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되새기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치며 짙 차오르시였다. 이 처녀와 같이 당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행복동인들이 인젠 어른이 된것이 무척 기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탄광으로, 농촌으로, 사회주의건설장 곳곳으로 달려가는 새 세대 청춘남녀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뇌리에는 바다가초소에서 만나보신 녀성해안포병들의 모습도 함께 어려오시였다. 그러자 그곳 중대로 떠나보낸 현옥장령에게 생각이 미치시였다. 비로소 자신께서 이밤을 새우신것이 문견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도착결과를 기다리시느라 꼬박 집무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내심 깨달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제 평양에 도착하시는 길로 녀성일군을 부르시여 녀성해안포중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해가지고 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현옥을 그와 함께 떠나보내시였다. 녀성군인들의 생활에서 풀어야 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무리 자신께서 관심하시여도 역시 녀성들은 녀성에게만 터놓을수 있는 자기의 세계가 있는것이다.

집무탁우에 놓인 전화기가 방안의 고요를 깨쳤다.

장군님께서는 그 소리를 기다리셨던듯 급히 밤빛수화기를 드시고 상대방의 말을 받으시였다.

《군의국장동무입니까? 밤새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아, 나는 눈을 좀 붙였습니다. 동무들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그 동무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그럼 아침에 만납시다.》

수화기를 놓으신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깍지를 끼시고 책상을 가볍게 도닥거리시였다. 짧은 통화가 그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신듯 그이께서는 눈가에 웃음을 지으신채 군의국장의 하관빠른 얼굴을 그려보시였다. 의학적인 담보가 없이는 좀체로 쉽게 결심하지 않는 과학자형의 성미인 그가 자신께서 주신 과업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밤사이엔 기어이 해낸것이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대기를 타고 들려왔다. 자정때로부터 다섯번째로 들으시는 종소리다.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종소리의 여운을 들으시느라니 문득 녀성해안포중대를 떠나오실 때 자신께서 타신 차를 둘러싸고 발을 동동 구르던 녀성군인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

시였다.

《우린 장군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장군님, 부디 건강을 돌보아주시시오.》

과도세찬 바다기슭에 서서 절절히 웨치던 그 목소리들이 아직도 쟁쟁히 들려오는듯하다.

그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중대를 다녀오실 때에도 그렇게 수령님을 배려워드렸을것이다. 그래서 더욱 수령님께서는 스무해동안 석별의 정을 안으시고 녀성군인들을 못잊어하신것이 아니신가. 수령님의 가슴속 갈피갈피에 차오르던 그 그리움, 이 탁상일력갈피에 끼워있던 기념사진에도 깃들어있음을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추억의 심연에서 깨어나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 차광막을 열어젖히자 분홍빛려명이 비낀 하늘저끝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조명등이 꺼진 집무실의 고요속에 몸을 맡기신채 새날을 맞이한 창밖의 정경을 굽어보시였다. 첫 아침의 정가로운 음향에 귀를 기울이시던 그이께서는 창결에 놓인 소파에 가앉으시였다. 잠시 이런 안정의 여유가 차례지실 때면 심중에 묻어두시였던것들이 깃을 펼치군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떠오르는 생각에 몸을 맡기신채 살며시 눈을 감으시였다. 그러자 흰 물갈기를 일으키며 쉬임없이 출렁이던 푸른 바다가 그이의 뇌리에 옹아와 물결치는것이였다.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는 수평선에 흰 갈매기들이 춤을 추듯 날아오고있다.

장군님께서는 해빛넘치는 바다기슭의 모래불에 서시여 가없이 푸른 창공을 날아에는 갈매기들의 유희를 구경하신다.

하나, 둘, 셋...

그이께서 썸을 세어나가는데 어디선가 싱그러운 향기가 풍겨온다.

장군님께서는 향기가 풍겨오는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바다우에 떠있는 한척의 배에서 빨간 딸기를 한아름씩 안은 처녀들이 장군님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자신께서 낮을 익히신 녀성해안포중대군인들이였다. 장군님께서 반갑게 손을 마주 흔들어주시자 그들은 첩첩첩첩 바다에 뛰어들다. 그들이 물에 뛰어들자 바다에는 물보라가 뿔뿔하게 서려오른다. 처녀들의 얼굴이며 어깨우에도 구슬비가 내려앉는다.

그이께서는 그속에서도 맨 앞에서 헤엄쳐오는 중대장의 얼굴을 가려보시였다. 그의 손에서는 빨간 열매가 령롱한 빛을 발산하고있었다. 딸기의 빛같이 물든 그의 얼굴은 신비할정도로 아름다웠다. 뒤에서 헤엄쳐오는 처녀병사들의 얼굴도 예쁜 꽃송이마냥 환하게 빛나고있었다. 해빛이 그들에게 무지개빛광채를 뿌려준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려고 손을 쳐드시었다. 순간 온 누리에 딸기향기를 풍기며 장군님을 향해 해염쳐오던 병사들의 모습은 칠색 찬연한 빛에 가리워지고 바다우에는 갈매기들만이 한가로이 유희를 하고있을뿐이다.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모습을 찾으시려고 해빛이 넘쳐나는 바다를 굽어보시었다. 그러나 넓고넓은 수면우에는 금빛물결만이 굽니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해빛이 눈을 부시는바람에 쪽잠에서 깨어나시었다. 어느새 하늘중천으로 치달아오른 아침해가 집무실창가에 빠르게 얼굴을 들이밀고 그이의 어깨며 옷자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뜨시였던 눈을 약간 쏘프리시고 해빛을 바라보시었다. 방금전 꿈속에서 보시였던 그 해빛이었다. 천조각만조각으로 흩어져 꿈의 바다를 금빛으로 불들였던 찬란한 해살이 집무실을 따사롭게 비쳐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꿈속에서 보시였던 중대장의 얼굴을 그려보시었다. 해빛에 빛나는 그 얼굴은 딸기의 빛갈처럼 무척 아름다웠었다. 수령님께서 흠집 하나 없는 그의 맑은 얼굴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중대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싶으셨다. 이런 생각이 갈마드시자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퍼져오르는 해살처럼 따뜻한 온기가 자오록이 스며여드시었다.

그이께서는 쏘파에서 일어나시여 집무탁앞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마치도 사랑의 자욱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듯.

출입문이 열리더니 현옥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 현옥동무가 왔습니까? 밤새 먼길을 갔다오느라 고생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마치 그가 나타난것이 무척 반가우시여 서둘러 자리를 권하시었다.

《같이 갔던 녀성동무는 따로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웁겠다고 합니다.》

현옥이 그이께서 권하시는 의자에 앉으며 말씀드렸다.

《그 동무에겐 내가 따로 과업을 주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주시고 나서 그의 옆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었다.

《중대동무들이 잘 있습니까?》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기들에게 내려보내주신 사연을 알고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현옥의 대답에 감회가 깊으신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다시금 물으시었다.

《그 동무들에게 뭘 좀 가지고 갔습니까?》

《예, 학용품과 필수일용품을 가지고 갔더니 모두 좋아합니다.》

《크림도 가지고갔지요?》

《크림말입니까?》

그이의 재차되는 물으심에 현옥은 얼굴을 붉혔다. 중대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다 명세에 올리여 준비했는데 크림만은 미처 관심을 지 못했던것이다. 더구나 장군님께서 녀성중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사물함을 일일이 열어보시였을때 단지마다 하얀 크림이 가득가득 차있는것을 보고 만족하기까지 했던 그였었던것이다.

《저, 크림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해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현옥을 의아하게 쳐다보시었다.

《동무가 가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동무는 나와 함께 그곳 군인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군인들입니까.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중대에 다시 모실 날을 고대하며 잔물에 몸을 적시고 해풍에 얼굴이 상하면서까지 초소를 지켜온 동무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들이 터갈라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부를 때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자연의 피해로 하여 그들의 얼굴에 흠집이 생긴것을 수령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셨을가 하고 생각하니 수령님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친히 내 딸들이라고 하신 그들의 귀한 얼굴에 흠이 가는것을 보고도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과연 수령님앞에 도리를 지킬줄 아는 일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싯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리고 뒤짐을 지시고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가 그들을 자기의 친딸처럼 생각했더라면 다시 가는 걸음을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을겁니다.》

장군님의 어조는 조용하였으나 현옥의 가슴은 죄송감으로 하여 뫼뫼 달아올랐다. 더구나 어제 공연을 보시면서 자기 딸에 대하여 물으실 때 왜 그이의 심중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지 돌이킬수록 후회가 커졌다.

그이께서는 이 시각 현옥을 일군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위치에 세워놓고 타이르고싶으셨다. 인간의 자격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출발되는것이 아니겠는가. 혁명가는 무엇보다먼저 사랑을 아는 인간이어야 한다. 현옥이와 같이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일수록 인간애가 풍부하여야 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감정이다. 자식의 얼굴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제격 속마음을 알아맞히고 자식이 추운 바깥에서 들어오면 손이 얼세라 품에 넣어 따뜻이 녹여주는 어머니의 그런 참사랑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다. 지휘관들이 모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군인들을 보살펴줄 때만

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일군이 될수 있다.

불현듯 그이의 눈앞에는 바다가병사들의 모습
이 삼삼히 안겨오시였다. 그들의 군복옆구리에서
대롱거리던 소금주머니며 해당화를 수놓은 꽃방
석이 그이의 가슴을 짝 채우는것이였다. 참으로
그들은 보석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닌 처녀들이였
고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준대도 모자랄것만 같
은 사랑스러운 병사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따르지 못하는 현욱
의 소행이 진정 섭섭하시였다.

《현욱동무, 동무는 수령님의 사랑속에 군사지
휘관으로 성장한 동무가 아닙니까? 그러니 병사
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의 준절한 말씀을 받아안자 현욱은 불시에
목이 메여올랐다. 이제는 퍼그나 흘러간 군관시
절 아버지수령님께서 녀성해안포병들을 껴안아주
시며 내 딸들이라 소리높이 불러주시던 그 친근
하신 음성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자신을 깨달을
수록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비록 크림단지가
금싸래기처럼 귀한 물건도 아니요 큰것은 더더
욱 아니였지만 군인들을 친딸처럼 여기고 위해주
시는 장군님의 사랑이 천만근의 무게로 그의 가
슴을 가득 채우는것이였다.

현욱은 뜨겁게 달아오른 두눈을 습벽이며 고개
를 들었다. 그러자 그의 앞에는 수령님과 꼭 같
으신 장군님께서 따뜻한 안색을 지으시고 그를
바라보고계시였다. 현욱은 복받치는 감격에 휩싸
여 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렸다. 아, 그이의 모습이
야말로 이 나라의 군인들을 친자식마냥 한품에
안아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현욱의 가슴으로는 사랑의 물결이 사품치듯 밀
려와 금빛의 바다를 이루고있었다. 장군님께서
그의 바다에 해빛처럼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을
안겨주신것이다. 그 바다에는 썰물이 없었다. 영
원히 푸른 물결만이 그이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의 가슴에 아니 수천수만자식들의 가슴마다에 굽
이칠것이였다.

얼마후였다.

집무실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부관과 군의국
장이 량손에 크지 않은 지함들을 들고 방에 들어
섰다. 근엄하신 안색을 지으시던 그이의 얼굴에
는 반가운 표정이 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수
지함을 받아주시며 거듭 인사를 보내시였다. 얇
은 해당화가 그려져있는 지함들을 바라보시는 그
이의 얼굴에는 봄빛마냥 따뜻한 빛이 흘러넘치시
였다.

장군님께서 손수 지함을 헤치시고 그안에서
주먹만한 짝 하나를 꺼내드시였다. 우유빛이 감
도는 수지팍의 뚜껑을 여시자 특유한 향기가 온
방안에 풍기였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평양에 도
착하시는 길로 군의국에 주문하여 만들도록 하신

약크림이였다. 크림팍을 지함안에 정성껏 도로
넣으신 그이께서는 집무탁우에서 대궐은 마지크
를 집어드시였다. 그러시고 한동안 그 무엇을 생
각하시는듯 먼곳을 바라보시다가 흰종이를 비스
듬히 놓으시고 활달한 필체로 그우에 글을 써나
가시였다.

《중대장동무.

약처방을 보냅니다. 얼굴을 깨끗이 씻은 후에
이 약을 바르시오.

1995년 2월 X일

김정일

장군님께서 종이우에 써여진 까만색의 윤기
나는 글자들을 한자한자 눈여겨 읽어보시고나서
마음이 놓이신듯 차곡차곡 접어 봉투에 넣으시였
다. 그이께서 주시는 봉투를 정히 받아안은 현욱
은 그것을 품속에 고이 간직하였다. 그 한장의
봉투는 크지 않아도 장군님의 사랑이 담겨있기에
가볍게 받아안을수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감개에 빠져있는 그를 조용히 깨
우시였다.

《현욱동무, 피곤하겠지만 이길로 다시 중대에
갔다오시오. 수령님께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열번스무번이 아니라 백번천번이라도 다시 걸어
야 하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약크림을 갖다주고 돌아와 피곤을 풀
도록 합시다.》

장군님께서 현욱을 내려워주시려고 손수 집
무실문을 여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을 군인들의 가슴속에 그
대로 안겨주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욱은 그이께 이렇게 말씀올리며 경례를 드렸
다. 한손을 들어 그의 작별인사를 받아주시던
장군님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는듯
현욱의 앞으로 다가서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현욱동무, 중대장동무가 이 약을 바르고 상처
가 나으면 중대군인들모두를 평양에 부릅니다.》

《예?》

현욱은 군인이 초소를 떠난다는것은 생각해보
지 못한 일이여서 대답대신 이렇게 반문했다.

《나는 그들이 지난해 여름 수령님께서 서거하
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빨강계 익은 딸기
를 한알도 다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
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노래에 담은것처럼 딸기
향기가 온 가을 병실뒤산을 감돌았다니 수령님께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향기
마저 사라진 지금 그들의 가슴에 서린 공허를 무
엇으로 메꾸어주어야겠는가를 생각하니 잠이 오
지 않았습니다. 병실뒤산에 딸기밭을 만들고 그
것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가슴속에 아버지수령님
에 대한 충효성의 향기를 안고 살아온 그들이 얼
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

의 아버지는 영원히 자애롭고 인자한 어버이로
영생하실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깊이 안겨주자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그들의 가슴속에 바늘구
멍만한 공허도 없이 언제나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행복의 향기, 충효성의 향기를 꼭
채워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평양에 오면 목란관에서 연회를
크게 차리고 그들에게 딸기맛을 보여줍니다. 그
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내 딸들이라고 하신
우리 녀성군인들의 환한 모습도 사진찍어줍니다.
수령님의 딸들은 씩씩하고 훈련도 잘할뿐 아니라
생활을 사랑할줄도 알고 인간미에 있어서도 가
장 완성된 아름다운 미녀들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대고 자랑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소리를 내어 웃으시었다. 그러나
현옥은 웃을수가 없었다. 코허리가 찡하고 눈곱
이 뜨거워올라 눈물이 솟구쳐나올것만 같았다.
병사들이 무대에 올린 노래 하나를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중대장의 얼굴에
생긴 자그마한 흠집을 보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
서 가슴아파하실 심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는 진정 어디서부터 시작되

고 어디에서 끝나는것인가. 빨간 열매 한알을 놓
고도 수령님과 병사들의 친분관계를 두터이해 주
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시작도 끝도 헤아릴수 없
는 무한한것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까만 씨가 점점이 박혀 하나의
덩이를 이룬 빨간 딸기가 커다랗게 확대되어 어
려왔다. 그 빨간 덩이들이 하나의 응결체를 이룬
것처럼 장군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한마음 한뜻으
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된 모습도 함
께 어러오는것이였다. 딸기의 빛갈처럼 붉고도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진두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
의 광장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우리 인민
의 일심단결된 모습, 현옥은 그 휘날리는 붉은기,
불패의 대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보았고 천지를 진감하는 조국통일의 만세소리를
들었다.

(최고사령관동지, 당신의 전사 강현옥,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승용차는 사랑의 약크림을 싣고 바다기슭으로
뻗은 포장길을 달리고있었다. 저 멀리 바다가에
서는 아침태양이 보석처럼 빛나는 해살을 아낌없
이 뿌려주고있었다.

들길우에 눈이 내리니...

김석천

이삭과 이삭들이 어우러져
발목이 묻히도록 비좁던 들길우에
가을도 지나... 눈이 내리니
가슴에 젖어드는 수령님생각

오실것만 같아
흰눈을 맞으시며
내 고향을 찾으셨던 그날처럼
수령님이 들길로 다시 오실것만 같아
눈내리는 포전길에 내 섰나니

그날따라 그날따라
무정한 눈은 왜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해종일 농장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어깨우에 옷자락에
녹을줄 모르고 덧쌓이던 함박눈...

들려오는듯싶구나
오늘의 함박눈은 풍년눈이라고
나에겐 눈송이가 쌀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눈을 맞을 때가 즐겁다고
웃으며 하시던 수령님 그 말씀

아 겨울날 차디찬 눈이
수령님께만은 그리도 따스하게 여겨졌던가
사랑을 남기고 떠나가신 들길우에
남기신 그 자욱을 쓸어보며
목매여 그러안던 그날의 함박눈이어

가슴치며 우리 알았어라
인민들에게 더 많은 쌀을 주시려
인민들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시려
우리 수령님
백두산의 흰눈을 한생토록 즐겨 맞으시였음을

그래서 눈내리는 날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어버이모습
그래서 들길우에 눈이 내리면
못잊어 새겨보는 뜨거운 그 자욱

아 우리가 어떤 사랑속에 살았는가를
이 나라 인민들이 어떤 행복속에 사는가를
잊지 말라고 심장에 간직하고 살라고
들길우에 눈이 내리네
이 땅의 들길우에 함박눈이 내리네

장군님은 최전연에 계신다

변홍영

뵈고싶었습니다

뵈고싶었습니다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먼 최전연 전호가에
밤이 와도 그리워
날 밝아도 그리워
언제나 우려했던 평양하늘

우리 소원의 가닿는
그 하늘밑엔 최고사령부
장군님 마주하신 작전도우에
불이 되어 굽이칠 각오를 안고
자나깨나 장군님을 그리던 마음입니다

이해의 설명절도 초소에서 맞으시고
2월의 봄명절도 병사들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없이 자애로운 그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온 그날은

더더욱 모시고싶었습니다
몸가까이 우러러 모시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최전연
하루도 조용한 날 없는
적진지를 눈앞에 둔 교지에서
장군님을 뵈울줄 어찌 알았으리까
전쟁의 불줄기가
그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전호가에서
장군님품에 안길줄 생각이나 했으리까
아, 꿈속처럼 우려했던 꿈이 아닙니다

꿈아닌 생시여도 그 또한 꿈만같습니다

뵈고싶었다고 정말 뵈고싶었다고
울먹이며 울리는 우리 인사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웃으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하시면
준엄한 최전연에까지 몸소 오셨습니까
얼마나 병사들을 못잊으시면
찬눈비속에 천리길을 헤쳐오셨습니까

아, 눈앞이 흐려와서 눈앞이 흐려와서
심장으로 우려했던 새겨안은
장군님의 그 손길은
병사의 가슴에 퍼덕이는 불사의 넋입니다
위훈의 나래입니다

장군님을 몸가까이 뵈온 전사는
천만의 대적이 달려들어
무비의 용맹안고 일떠서리라
폭풍속에 쓰러져도 천백번 다시 일어나
《김정일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죽음도 맞받아 나아가리라!

태양의 그 미소를 안은 전사는
원수벌이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영원한 승리자로 조국에 살것입니다
승리의 열병식장을 환호로 뒤덮으며
위대한 령장을 다시 뵈울것입니다!

대덕산의 오솔길

장군님께선 낮익으시다
대덕산마루
전방감시소로 오르는 오솔길
서른세해전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오르셨던 작은 오솔길

걸음걸음
감회도 뜨거우시다
우리 수령님
그날처럼 앞에서 걸으시는것만 같고
조국통일과 군건설의 중대사들을
곁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울리는것만 같은
추억깊은 이 오솔길

추운 겨울날
생눈길을 헤치시던 그때처럼
오늘도 바람찬 최전연
뿌려치는 눈비엔
오랜 세월 가실줄 모른
분렬된 민족의 아픔이 무겁게 서렸는데

아, 통일의 속망을 안으신채
장장수천리-
우리 수령님
그토록 한평생 로고를 다 바치신 그 자욱
여기에 남기시고
이제는 거룩한 그 걸음 멈추셨단말인가

아직도 강토의 남쪽에선

가장 파렴치한 무리들이 침략의 칼을 갈고
끓어진 송전탑은 하늘가에 외로이 섰는데
민족의 모든 생사가 놓인 위업을
장군님 혼자 몸으로 맡아안으시고
찬눈비 쏟아지는 최전연의 오솔길을 걸으시나니

장군님께선 근엄하시다
한 어깨에
삼천리강토를 떠메신듯
조선을 책임지신 강철의 령장
무겁게 옮기시는 그 걸음에선
폭풍이 숨쉬는듯하다

그이를 따라선
장령들과 병사들의 눈빛에도

뜨거운것이 번쩍인다
한몸이 성새가 되어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그 맹세
불속에도 웃으며 뛰어들 각오가
온몸에 팽팽하다

오,
조국의 신성한 존엄을 안으시고
장군님께서 전연시찰의 큰 걸음을 새겨가시는
대덕산의 이 작은 오솔길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숭고한 뜻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이 길우에 이렇게 이어지고있어라
이 길우에 눈비 뿌리는 날은 개이고
통일조국의 푸른 하늘이 창창히 열려오고있어라

총검이여, 무자비하라!

앞에는 분계선
한낮에도 푸른 섬광이
금시
전쟁의 우뢰를 터칠것만 같은
서리찬 고요가 서린 땅

발밑을 굽어보면
원수들이 도사린 적진이 눈앞이다
민족의 피에 지금도 녹졸고있는
분계선철조망이 가슴을 허비는 최전연에
장군님을 모셔야 했던 병사들
그 가슴에선 오늘도 멸적의 총검이 운다

오, 틀어진 주먹이여
창끝처럼 가슴에 일어서는 분노여
우리 장군님께선 여기서
반백년이 넘도록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비극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안아보셨을것인가

불이 이는 안팎으로
적진을 쪽 가르시는 령장
민족이 용서치 않고
력사가 용서치 않을
영구분렬의 야망이 비낀 콘크리트장벽을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추상같으신 모습을 우러르던 그날처럼
병사들은 오늘도 여기 섰다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로고에 찬 한생을 바치신
아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다시 새겨안으시며

적진너머
먼 삼천리강토의 한끝을 마음속에 훑아보셨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이께서 그토록 아프게 바라보신
강토의 한 허리에 박힌 저 가시철조망을
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세대 병사에게
이 최전연초소를 그대로 넘겨줄수 없거니

오호-
조선에서 이미 깨어져나간
침략의 망상을 상기도 불안고
미체가 감히 전쟁의 불을 터친다면
무자비하라
긴긴세월 민족의 원한으로 날을 세운
서슬푸른 병사의 총검이여!

무자비하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여기 서서
민족의 진한 피로 가슴에 새긴
병사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놈들이 알게 하라
반세기 민족이 흘린 그 피값은
결코 죽음으로도 보상할수 없음을
전쟁열에 미친놈들이 똑똑히 알면서 지옥으로
가게 하라

무자비하라, 무자비하라
이 땅의 존엄을 건드리는 원쑤에겐
언제나 용서를 모르는
장군님 안겨주신 혁명의 이 총검에
이 나라의 운명이 무겁게 실려있다!

장군님은 오늘도 최전연에 계신다

초소엔 신록이 짙어
한여름이 푸르렀건만
저문 겨울의 마지막 찬눈비가
장군님 옷설에 젖어들던 그날은
상기도 병사들의 가슴속에 머물러있다

걱정에 넘쳐있는
일당백 무적의 진지들에선
총잡은 병사들
그날처럼 가까이 걸어오시는
장군님의 발자욱소리
오늘도 마음속에 새겨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결에 오시여
정어린 손길로
수고한다고 등을 두드려주시는듯
병사들의 눈가엔
때없이 후더운 눈물이 맺힌다

보아라
장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정중히 벽에 모신 중대교양실에선
그날처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듯
저녁마다 행복넘친 병사들의 노래
창너머 울려 퍼진다

펄펄 나는 싸움군의 훈련모습을
장군님께 보여드리던 운동장에선
날마다 아버지의 대견한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병사들이 벌리는 격술훈련
그 얼마나 장하고 통쾌하냐

오, 내려치는 무죄주먹밑에서

단매에 부서져나가는것이
그저 벽돌장이라고만 생각말라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원썬놈들
그 어리석은 침략의 야망도
천만조각 파편으로
저 골짜기에 흩날려버리라!

그렇다
최전연병사들은 오늘도
장군님 가장 가까이에서 서있나니
어찌 위대한 위대한령장을 모신 병사들이
천만대적도 일격에 격멸할
무적의 용맹에 넘치지 않으랴

전쟁의 불이 날아오면
그 불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
최전연의 병사들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결전으로 나아갈 그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손길이
따뜻한 해빛으로 머물러있어라

우리 장군님
천리 산발을 넘으시여
찬눈비도 헤치시며 안고오신
사랑으로 영원한 승리의 봄이
여기 최전연에 설레이며 굽이치고있어라

아아, 장군님께선 오늘도
병사들과 최전연에 함께 계신다
병사들의 가슴속엔
영원히 지지 않는 위대한 태양이
찬연히 빛나고있는것이다!

가사

고향의 봄언덕에 어머니 서계시네

그립던 고향땅에 어머니 서계시네
진달래 진달래 품에 안고 서계시네
백두의 사령부귀틀집 창가에
곱게곱게 피우신 그 진달래 안고서

타향의 언덕에서 진달래를 꺾으며
얼마나 그 얼마나 고향집 그렸으랴

진달래향기로 눈보라 이겨내고
영원한 봄 안고서 어머니 오셨네

혈전의 수만리길 헤치던 그 나날에
진달래 진달래는 어머니 마음이었네
조국의 귀중함 오늘도 깨우치며
고향땅의 언덕에 어머니 계시네

박정애

그이 바라시는 명예

한 호

나리꽃 살구꽃 활짝 피어웃는
날씨도 청쾌한 봄날
구분대의 한 장령을 부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와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며
봄꽃 핀 정원을 걸으시여라

전사들은 모두 잘 있는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받았는가
친절하게 물어도 보시며
구분대 전투준비상태도
일일이 알아보시던 그이

이른아침 인민군신문에서
전연구분대의 한 전사가
날아드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전우들을 구원하고 전사한 그 기사를 읽으시고
그에게 영웅칭호를 주자고
전화를 거시던 일 생각나시여
장령에게 웃으시며 물으시여라
동무는 어떤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가

명예라면
그이의 전사된 영예보다
더 빛나는 명예 어디 있으련만
그이앞에서 그렇게 말씀올림은 외람된것 같아
장령은 생각을 더듬어 말씀올려라
영웅이라고, 군인에게 있어서
영웅칭호보다 더 빛나는 명예는 없다고

- 영웅이라!...

대답올릴 말씀을
조용히 받아외우시며
이윽도록 정원의 한곳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낮으나 송엄하게 말씀하셔라

- 난 영웅칭호보다도
신념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신념을 지키는것보다
더 귀중한 명예는 없습니다!

순간, 이 세상 만물도 화답하는듯
꽃들이 설레이는 정원에 풍기는 향기
벗나무가지에서 날아에는 새무리...
뜻깊은 그이의 그 말씀에
가슴에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장령은 누를길 없여라

그런 명예를 바라시는 그이이시기에
혁명선렬들의 피로 물든 붉은기를
오직 붉게만 휘날려가시고
조국앞에 겹쌓인 난국을
인민을 이끌어 한몸으로 타개해나가시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시는것 아니신가

아, 그이 바라시는 명예는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신념만 있으면
금별의 영웅으로도 될수 있고
신념만 있으면
하늘 땅 바다가 뒤집힌대도
이 세상을 다 얻을수 있나니

그이 바라시는 명예는
그 어떤 칭호나
그 어떤 메달과 훈장은 아니여도
가슴에 품은 그것만 있으면
그 어떤 명예도 다 지닐수 있는
명예중에서도 가장 큰 명예이여라
그이 소중히 지키시는 신념이
이 세상 가장 빛나는 명예여라

위대한령장을 받드는 한길에

리수덕

시대와 력사우에 불멸의 자욱으로 아로새겨진 거대한 사변과 련관된것은 그 무엇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그것은 또한 생활속에서 무시로 깊은 상념을 자아내기마련이다.

비록 그것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한장의 사진이거나 범상히 스쳐버릴수 있는 한통의 편지라 해도 거기에 뜻깊은 사연과 못잇을 추억이 비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느 하나라도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는 해빛밝은 우리 집 창가의 탁상사진액틀속에 군복입은 모습으로 웃고있는 내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해전 4월에 있었던 일을 뜨거운 감회속에 돌이켜보군한다.

세해전 4월 9일!

은 나라 강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끝없는 영광과 감격속에 환희로 들끓던 날이었다.

바로 이날에 내 아들은 행복스럽게도 학생복대신 보위색 군복을 갈아입고 장군님의 영예로운 전사로 조국보위초소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

어제까지 한학급 한 교실에서 이마를 맞대고 즐거운 배움의 나날을 보내던 학창의 벗들과 아파트마을의 한 인민반 이웃들까지 내 아들을 바래주려 역두에 떨쳐나섰다.

《너는 행복우에 영광을 받아안은 셈이구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러러모신 력사적인 이날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니말이야. 이 영광을 영웅의 금별메달로 빛내주기 바란다.》

내 아들의 친구들이 꽃목걸이와 꽃묶음을 안겨주며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동무들의 부탁대로 위대한신 **김정일**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한길에서 꼭 영웅이 되겠어.》

신심과 확신에 찬 아들의 말에는 제법 어른스러운데가 있었다.

군복입은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대견스럽게 지켜보는 나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세번째 자식마저 떠나보내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이 뿌듯이 피여올랐다.

이때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배웅나왔던 결집아주머니가 한걸음 다가서며 한마디 덧창을 놓았다.

《아주머니, 이제는 댁에 룡해공군이 다 있는셈이군요. 맏아들과 맏딸은 이미 공군과 해군에서

군사복무를 하구있는데다가 오늘은 또 막내가 보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으니말이웨다.》

《그러니 우리 현관 4층 10호집은 <룡해공군후방가족>이구만.》

앞집 할머니가 한마디 더 보태는 통에 역두앞 공원어구는 한동안 웃음꽃으로 흥그러워졌다.

《얼마나 좋은 가정ियो. 정말 군풍이 선 집안이지.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이 경사스러운 날에 세번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는 남다른 행운과 기쁨도 받아안게 되게 아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입대하는 아들과 함께 우리 기념사진이나 한장 찍지요. 남는건 사진이라니까.》

한 인민반의 로병아바이가 로장답게 한마디 제기하는통에 모두 응수했다.

마을이웃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났을 때 내 아들이 사진사한테로 다가가더니 꼭 한가지 부탁할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진에다 글을 새겨주세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뜻깊은 날에>

이렇게 말ियो.》

과연 그날 찍은 기념사진에는 내 아들이 당부한 그대로 글발이 새겨져 나왔다.

그리하여 그 사진은 곧 초소의 아들에게도 발송되었고 우리 집 창가의 탁상사진액틀에도 끼워지게 되었으며 마을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여지게 되었다.

나는 아침저녁 때없이 이 사진을 볼적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감격과 환희로 가슴들먹이던 그날을 생각하게 되며 그 어떤 역풍이 몰아친다 해도 위대한령장을 받드는 한길에 우리 온 가족이 몸과 마음 짱그리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군한다. 그리고 사진을 보느라면 입대하여 1년도 채 못된 어느날 보내왔던 편지의 한구절을 방불히 되새기게 된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번 첫 강행군훈련에서 대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군공메달을 받았어요. 나는 어려운 고비마다 입대하던 그 영광의 날에 찍은 사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룡해공군가정>에서 내가 차지한 보병의 위치를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도 최고사령관동지를 무장으로 보

위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공군인 형님이나 해군인 누나 못지 않게 나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 가겠어요. 그리고 이 길에서 꼭 영웅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조국땅에는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사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며 자기의 아들딸들을 인민군대에 보내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고있는 가정과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운데는 아들딸 8남매모두를 인민군대에 자진하여 내보낸 평양의 한 어머니도 있고 일곱 아들이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은률의 《7형제군인가정》도 있으며 군사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만아들이 서있던 초소에 둘째와 셋째 아들도 세우고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벽동의 어머니》도 있다.

그 못가정들속에 동네이웃들이 사랑과 정을 담아 불러주는 우리 《록해공군가족》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군사를 중시할데 대한 당의 뜻을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주체의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혁명적군풍의 아름다운 화폭이다.

나는 오늘도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러면 막내아들도 꼭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다지던 그날의 근엄한 그 모습으로 나를 정겹게 바라본다.

마치 최고사령관동지를 무장으로 받들어가는

군사복무의 보람찬 나날에 꽃피워온 사랑을 나에게 이야기하는듯.

뒤이어 내 눈앞에 안겨오는것은 역시 군복입은 만아들, 만딸의 미더운 모습이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지켜선 세 남매의 얼굴을 그려보는 나의 가슴은 행복감과 자랑에 앞서 공민적의무감으로 뜨겁게 젖어든다.

그렇다, 조국에 바친 자식은 내 자식이기전에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전사이다.

자식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낸것으로 어찌 공민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으며 자식이 군사복무를 잘하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발하는것으로 어떻게 부모된 도리를 다한다고 할수 있으랴.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수위에 모신 우리 나라에서 군대와 인민은 서로 초소는 달라도 다같은 혁명전사들이다.

나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록해공군후방가족》의 가장답게 원군사업에 지성을 다 바쳐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그리고 탁상우의 사진액틀속에서 웃고있는 막내아들과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 막내야 네가 영웅이 된 자랑을 안고 우리 집 현관문에 들어설 때 너의 아버지, 어머니도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이웃들앞에, 조국앞에 뽐뽐이 말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다.

명언해설

《충효가 혁명의 보약이라면 야심은 혁명의 사약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혁명가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만을 지녀야 하며 절대로 야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관계는 수령은 전사들에게 믿음과 사령을 주고 전사들은 그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다.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충효는 수령을 어버이로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드는데서 표현된다.

혁명의 수령을 어버이로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 때 혁명위업

은 그 어떤 풍파와 파란곡절에도 끄떡없이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다. 따라서 충효는 혁명의 보약이라고 말할수 있다.

야심은 충효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충효가 충신의 품격이라면 야심은 간신의 기질이다. 간신은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길에서 앞과 뒤가 다르고 결과 속이 다르다. 야심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이색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야심은 배신과 변절으로 굴러떨어지고 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는 독약, 죽음의 약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령장과 다섯해

-이 시를 최고사령관 추대 5 뉘에 삼가 드린다-

차영도, 장혜명

이 땅에

축복의 눈송이

그리도 많이 내리던

못잊을 12월의 그날로부터

달이 가고 해가 흘러

어느덧 다섯해-

생각을 더듬으면

우리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살아온

그 모든 날과 날,

그 모든 추억의 갈피갈피를

마음속에

쉽게 번지지 못하겠구나

우리 장군님

포성없는 전쟁의 엄혹한 그 나날들에

인민을 안으시고

사회주의를 안으시고

민족과 력사 앞에

거연히 나서신 다섯해!

이 세월은

력사가 처음으로 원수벌을 수놓아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띄운

최고사령관기아래서

엄숙히 흘러왔거니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이 세월속엔

어버이수령님을 피눈물속에 잃고

하늘이 무너져내리던 날도 있었건만

이 기발 날리는 하늘은 더 맑게 열렸고

이 기발 높이 나아가는 나의 조국은

그 어떤 원썬도 다치지 못했더라

물노니, 다섯해 세월이어

수령님 아니 계신 이 땅에서

단신으로 혁명의 시련을 헤쳐가셔야 했던

우리 장군님

어깨우에 떠메신 짐은 얼마나 무거우셨고

마음고생인들 또 얼마나 크셨던가

나라정세가

오늘처럼 어렵고 복잡한 때에

수령님께서 제서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집무실창가에서

꼬박 한밤을 지새실 때

인민이 가슴을 치고

산천이 몸부림치던

그 모진 아픔이어

허나 수령님께서

결에 비우고가신 그 커다란 공간을

비상한 의지로 메꾸시고

열정과 실력으로 가득채우시며

산악처럼 일어서신 장군님!

그이는 진정 이 땅의 산악이시였다

원썬들의 무모한 도발에도

만만시련의 역풍에도

꼬떡을 모르시는

그이는 억척같은 백두의 산악이시였다

어찌 달리야 우리를수 있으랴

타고나신 기상도

백만대군의 벌벌 떨던

빨찌산 김대장의 기상이시고

지니신 천품도 정신도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빨찌산식 공격정신이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몸소

눈발속에 옷자락 펄펄 날리시며

최전연고지들에 근엄히 오르실제

나의 심장은 보았더라

분명히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빨찌산의 아들

빨찌산의 장군

그이께서 사나운 풍랑이 울부짖는

한밤중의 최전연 초도와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판문점을
큰걸음 옮기시여 찾으실제
인민은 보았더라
조국은 보았더라
분명히 백두산의 빨찌산 김대장을

그 이름으로 그이는
병사들이 뚫고가는 백리물길도
무릎을 적시며 다 걸어주시고
월비산의 백마혼아홉굽이
그 멀고 험한 길도 오르시여
이 땅의 마지막초소, 마지막병사까지
다 찾아주시나니

가슴 젖어오노라
인민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파서
인민에게 더 못주는 사랑이 가슴걸려서
눈비에 젖은 옷
차안에서 입으신채 말리워가시며
쪽잠으로 날을 새시고
야전식사로 끼니를 에우시며
달과 해를 보내신 장군님!

인민이여, 장군님의 인민이여
이런 령장께 바치는
우리의 심장은
백번을 주저없이 바치여 영광이여라
천번을 서슴없이 바치여 행복이여라

그때문에
두주먹 폭탄처럼 거머쥐고나선
이 나라의 아들딸들
장군님 두리에 철의 성벽을 쌓았고
붉은넥타이밑에 숨쉬는 나 어린 심장들마저
총폭탄의 철갑을 돌렸으니

자부하노라 확신하노라
다섯해 이 세월속에서
장군님의 신념으로 인민이 성장했고
장군님의 담력으로 군대가 성장했고
장군님의 사상으로 나라가 강대하여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주체의 한길로 억척같이 나아가는 내 조국!

이런 나라를 당할자 어데 있으랴
이런 인민을 굴복시킬자 어데 있으랴
보라, 내 나라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백두의 총대가
최고사령관을 옹위하여
대하를 이룬 나라!

오만한 적들이 분별을 잃고
끝끝내 덤벼든다면
이 무서운 총검의 대하는
적진을 향해
불이 되어 나아가리니

장군님께서 만나주신 그 모든 병사들과
장군님께서 시찰하신 무적의 땅크들은
아버이수령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노도처럼 돌진해나아가리라
수령님의 사열을 받고 나아가는 병사들은
죽음을 모르고 승리하리라

오, 이 땅에
엄숙히도 흘러온 다섯해!
장군님의 의지로
이 행성의 모든 시간이 흐르고
분이 흐르고 초가 흘러온
이 다섯해 세월우에
그이 쌓으신 업적 하늘에 닿았으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기울던
전대미문의 대동란속에서
지구의 축을 바로 잡으신 그이
이 세상 한끝까지
사회주의 붉은 노을을 덮어가실
세기의 영웅-사회주의의 최고사령관!

그이를 령장으로 모셔온
력사의 다섯해는 말한다
폭풍은 사납고 가는 길 험난해도
최고사령관기 높이 날리는
인류의 하늘밑에서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련시

전선길에서 해가 쏜다

서시

저물어가는 이해의 한끝에서
흘러간 날과 날들을 더듬어보려니
눈앞에 다가서는 다박솔초소
대덕산, 백리물길, 초도, 판문점...
이 땅의 고지와 전호들이
못잊을 사연을 이야기한다
오, 전선길 전선길

이 나라 동서는 천리라지만
알지 못해라
장군님 걸으신 굽이굽이 전선길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험한 길이었던지

장군님 걸으신 전선길 끝없어
우리의 노래도 끝없는가
불멸의 위업으로 빛나는 그 자욱
위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그 자욱
그 자욱자욱우에
삼가 이 련시의 노래를 실노라

전선에서 전선으로

전선으로!
전선으로!

어디서 시작하시여 여기까지 오시였는가
련련히 뻗어간 천리산발
험한 령 험한 길을 굽이돌아
전연에서도 최전조선
351고지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전방 1,200미터
원췌의 화점들이 도사린 준엄한 계선
어제는 피어린 격전장이였고
오늘은 판가리 대결장인
최전선의 여기까지
우리 장군님 나오셔야만 하셨던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 드리고
수수한 한겹 야전복을 입으신채
다박솔초소에 찍으신 새해의 첫 자욱을

천리길 여기로 이어오신
오, 최고사령관의 전선길 전선길

밭밑에 파편이 밟히는 전호가에서
령장의 지락을 펼치시며
수령님 안아세운 전승의 고지를
사회주의 최전조선에 승리봉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거룩한 자욱자욱이여

이 나라 지도우에
351고지는 하나여도
천리전선 금성철벽의 성새우에
수천수만의 351고지를 세워주신
아,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전선길이여

철령

산이 높아 굽이굽이
령이 높은줄만 알았더니
오릴수록 굽이굽이
사랑의 길이 높고높아 철령

우리 장군님
전선천리를 이어가신 그날
못잊을 자욱을 남긴 령길이여
애어린 병사를 한품에 안고
기념사진 남기신 그 사랑
이 땅에 새 전설을 꽃피운곳이여

여기서 저 멀리 그 어디더냐
전사들과 야전식사 함께 나누신 전호가
병사들의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던 중대의 병실
그 사랑으로 뻗어내리어 동으로 천리
그 사랑으로 흘러내리어 서로 천리

세월의 눈비에 씻겨
낮아지는것이 산이라 하지만
아니여라 아니여라
뜨거운 그 사랑 영원히 안고숫아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아만지는 철령
너 하늘가에 거창한 사랑의 기념비여

오를 때도 굽이굽이 사랑의 전설

내릴 때도 굵이굵이 사랑의 전설
그 사랑 구름넘어 철령을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전선천리길
아 우리 장군님의 전선천리길이어!

위대한 작전도

그날
최고사령부는
평양이 아닌
오성산마루에 있었다

전연에도 최전연
전방에도 최전방
세계의 면전에서
최고사령부 작전도를 펼친
위대한령장을 우러러
우리 마음 얼마나 든든했는가

발아래 검은 구름처럼 깔린
적진을 굽어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선 불이 일었다
멸적의 섬광이 번뜩이었다

순간, 전선에는 엄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세상은 다 알지 못하리
작전도에 짙으시는 화살표따라
그 어떤 거센 불이 쏟아져나올지
그 어떤 퇴성이 터져나올지

허나 세상은 알고있었다
장군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 타격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가를

령장의 서슬푸른 기상앞에
원쑤의 총구와 포신들은 얼어붙었다
산악같은 그 담력 그 배짱 앞에
봉쇄와 압력을 부르짖던
원쑤들의 입에는 자갈이 물리웠다

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야전지휘소위장망아래 펼친
크지 않은 한장의 작전도로
적진을 덮어버리시었다!
원쑤의 아성을 짓눌러버리시었다!

오, 바다여 바다여

그날밤 초도에서
전쟁이 일어난것은 아니었다
전투명령을 하달하시려
최고사령관이
초도방어대로 가신것은 더욱 아니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듭 울리는 해상경보신호
항행하던 큰 배들도 파도를 피해
기슭으로 기슭으로
다급히 들어서던 그 밤

못가신다고
풍랑세찬 이 밤엔 못가신다고
그리도 간절히 말씀올렸건만
결연히 패속정우에 오르시여
짙- 바다를 울리시던 그 음성

-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녔는가
땀을 올리라!
초도에는 나의 병사들이 있소!-

날바다를 향해 오직 한척
천길파도우에 패속정이 뗏다
심연이 뒤번지는 전설의 림당수를
섬광처럼 가르며 내닫는 배우에
거세차게 날리었다- 최고사령관기가

배우에 산악같은 파도가 올라서고
파도끝에 가랑잎처럼 배가 뜨던 그 밤
아직은 초도에 기상나팔도 울리기전...
바다여 바다여
병사들은 몰랐으나 너만이 아는
준엄한 싸움을 치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그것은 전쟁이었다
사랑의 전쟁이었다
우리 장군님 아니시고는
한걸음도 가지 못할 싸움길이었다

- 초도에는 나의 병사들이 있소!

고요속의 환호여

고요속에
사나이들이 울었다
총잡은 사나이들이 울었다

한 여름날의 공기마저
총구앞에 얼어붙는 여기
소문도 없이 기별도 없이
장군님 문득 찾아오신 판문점

동서천리 초소들을 찾으시는
장군님 모습 우리를 때면
뵈고싶은 소원 간절했어도
병사들은 생각이나 했던가
한치앞에는 적진인데
여기에 오실줄은...

아 그이는 빨찌산의 아들 전설의 장군
하늘이 낸분이니 하늘도 알아
순간에 흰 안개를 펼쳐내리던
신기한 그 조화에 더더욱 목메여
소리없이 터치던 뜨거운 환호성이여

소리없는 그 환호성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
허나 적진을 들었다놓은 그 환호성을
인민이 들었고
온 세상이 들었거니

그날은
이 땅에 처음 생긴 력사의 사변이
정적속에 뚫어버진
11월 24일!
세월을 이어 끝없이 메아리칠
오오 고요속의 환호여!

야전군용차

몇천리를 달려왔는가
몇만리를 달려왔는가
온 한해 험한 전선길을 달려온
우리 장군님의 야전군용차...

눈에 젖고
비에 젖고
사나운 광풍에 씻긴 그 차창을
내 마음속으로 뜨거이 쓰다듬나니

그 차창으로
이해의 봄과 여름이 비껴흘렀구나
이 강산의 가을과 겨울이 비껴지났구나
물어보자 철령이여

굽이굽이 월비산의 백마흔아홉굽이에
높고 험한 령들은 어떻게 넘었느냐
물결세찬 강물은 어떻게 건넜느냐

내 사는 수도의 거리 넓은 대통로로는
미끄러지듯 승용차들이 달렸건만
우리 장군님 손수
운전대도 잡으시고
전선천리길을 눈비속에 달리고달려온
야전군용차여

아 정녕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온 한해
최전방을 주름잡은
최고사령관의 야전군용차

산도 강도 길을 비끼고
뜨는 해 지는 달이 흐르던 거기엔
나의 운명이 실려있었다
민족의 운명
조국의 운명이 실려있었다

소원을 얹으며

날이 가고
이해의 12월도 다 저물어
추억의 전선길엔 흰눈이 쌓이는데
뜨거운 이 가슴에
사무치게 젖어드는 생각

이 나라 전선길에서 솟아올라
전선길에서 저무는 해여
가는 날 가는 달 다 붙잡아보아도
어느 길 어느 령 다 더듬어보아도
온 한해 전선길에 계신 장군님

가슴에 조용히 안아보노라
흰눈덮인 전연의 련련한 산발과
깎아지른 계곡의 굽이굽이
장군님 어깨에 맞으셨던 흰눈이
아직도 이 가슴에서 녹지를 앓아...

가슴이 저려와라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한밤도 일요일도 다 잊으시고
장군님 최전연길을 걷고걸으실 때
우리는 평화로운 후방에 있지 않았던가

장군님 사회주의 최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여
우리 망국노가 되었을지 누가 알랴

그래서 온 한해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마음속으로 따르며
아뢰고싶던 그 소원
이해도 저물어가니
가슴에 더더욱 사무치는 그 소원

장군님!
새해가 밝아오는 오늘도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
이제는 부디 평양에 돌아오시여
마음편히 쉬여주십시오
인민은 새해의 축원을 드리웁니다
아, 장군님 장군님!

×

이 나라의 산과 들
하늘과 바다
높고낮은 고지들을 넘고넘어
끝없이 걸으신 장군님의 전선길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은 없나니

설날의 그 아침에 시작되어
이해의 마감날까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장군님의 전선길
우리 운명을 지켜주고
천만번 앞날을 열어준 전선천리길

그 불멸의 자욱따라
사회주의 최전선이여 앞으로
새해의 행군길은 더욱 밝아졌다
우리의 붉은기여 더 세차게 휘날리라
우리의 행진곡이여 더 높이 우리라

아, 천리전선길에서 해가 솟는다!

조선작가동맹 시분과위원회 집체작

백두산

심해진 (남조선)

매운 계절의 채찍이 우는
비탄의 강너머
솟아있는
산

긴긴 세월
얼마나 뜨겁고도 간절한것이
그리로 달려갔던가
거기에 불타올랐던가

피줄처럼
강토에 얹히고 서린
못지맥들을 거느리고

모진 설한풍에도
진달래와 만병초를 키우며
김일성 장군님의 가지가지 전설을
수놓는
너는

그 어떤 분단의 가시줄로도
끊을수 없고 지울수 없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의
승엄한 자태
하늘높이 솟아오른
우리의 비원

아
백두산이 설렌다
맑고 푸른 천지에
반목과 불신을 깨끗이 씻고
장군봉 푸른 정기
가슴가득 채우고

이제는 민족의 총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남북의 단란을 가져와야 한다고
우리의 가슴마다에 솟아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이
백설을 휘뿌리며 설레고있다

잠간 만났던 사람들

김송남

오래인 지기를 못잊어 그리는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의 정회일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이려저려한 계기들에서 잠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못잊어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나는 얼마전에 신흥화학연합기업소를 찾은적이 있었다. 계획했던 대상들에 대한 취재를 끝내고 돌아오는길에 나의 마음속엔 불쑥 암모니아작업장 류안작업반에 들러보고싶은 충동이 생기었다.

류안작업반은 폐설물인 폐류산에 암모니아를 작용시켜 류안비료를 생산하는 크지 않은 작업반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몇달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작업반장 림관식, 세포비서 신일범... 그러나 이들은 아직 면목도 깊이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왜냐면 나는 그때 갑자기 다른 사업이 제기되어 금시 풀었던 작가의 현실체험배낭을 총총히 다시 둘러메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만나고싶어지는것일까?

반장동무의 그 인상적인 반고수머리와 어글어글한 눈빛때문인가, 세포비서동무의 그 인정미가 습배인 조용조용한 말씨때문인가?

인상은 그 마음대로 열려있는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이끌리는데는 그럴만한 매력에 있는듯했다. 나는 그때 분명 그들의 체취에서 그들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의 일단을 엿본것 같았다.

사람이 사람을 끝자면 그 마음이 아름다와야 한다. 그 아름다움이 곧 인간의 향기, 삶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어쩐지 나는 그들이 그러한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믿고싶었다. 그사이 그들은 틀림없이 많은 일을 하였을것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으로 그들이 쌓는 비료산은 한층 더 높아졌을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굴리며 작업장을 가까이 하였다. 그런데 나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작업반 비료하조장입구에 높직이 걸려있는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다는 표식판이 첫눈에 착 안겨오는것이 아닌가. 전에는 없었던것이였다. 비약의 로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듯 춤을 추며 흐르는 콘베아가 눈처럼 하얀 류안을 실어내고있었고 포화지며 원심분리기가 세차게 돌며 한창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내가 먼저 만났것은 세포비서 신일범동무였다.

나는 그동안 큰일을 해놓았다고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표식판을 의미있게 눈짓하며 말을 건넸다. 그는 표식판을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정말 우리 반장동무 수고가 컵습니다. 뛰고... 달리고... 불덩이같은 사람이지요.》

지난해 말까지 년간 비료생산결의목표를 1.6배로 넘쳐 끝내고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까지 림관식동무가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그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펴나갔다.

그 가운데서도 초과생산량분의 원료문제를 풀기 위하여 바친 그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것들이었다.

사회주의농촌들에서 더 많은 비료를 요구하는 이때에 우에서 대주는 원료로 부과된 계획량만 수행하며 한가한 걸음을 걸으랴. 이 비료로 하여 위대한 생애의 그 마지막 나날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고계신 심려는 얼마나 큰것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더 많은 비료를 쏟아내야 한다.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 못다한 충성과 효성까지 다 바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드는 길이다.

이리하여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작업반, 개인별 결의목표가 갱신되고 비료생산계획도 국가과제보다 더 높이 세웠다.

뛰고 달리는 불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다.

작업반원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것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계획외분의 자재를 보충하려 저 멀리 련합기업소들로 향해진 그의 발걸음은 실재 없었다. 그는 지난해 늦가을 어느날 련합기업소에 갔다가 정상적인 보수주기에 맞물린 대보수중에 있는 형편을 료해하고 그냥 돌아선것이 아니라 그들속에 들어가 일손을 거들어주면서 중요한 부속 몇개때문에 애를 먹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림관식동무는 다시 만나자는 간단한 인사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나왔다가 며칠후 중요부속들을 배낭에 메고 그들앞에 나타났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덥석덥석 손을 잡아주는가 하면 툭툭 어깨를 치는 보수공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감사한 웃음을 지은채 조용히 서있었다.

보수공들은 어서 빨리 보수일정을 앞당겨 《신흥화학반장》 동무를 도와주자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이 월별 분기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된데는 이처럼 말없는 수고를 바쳐가는 작업반장 림관식의 숨은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호랑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옛말 그런데 없구만...》

《아니, 왜 또 나를 육한단말이요?!》

세포비서의 말에 반죽좋은 대답으로 응수하는 그와 나는 오래만에 수인사를 하였다. 그간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는 나의 치하에 그는 어쭙은 웃음을 띄웠다.

《공연히 비서동무를 먼저 만났습니다. 날 먼저 만났어야 3대혁명붉은기를 타고 비료생산을 넘쳐하는데서 진짜 수고한게 누군지를 알텐데...내 가슴에 불을 달아준건 우리 비서동무니까요!》

그는 그 불이 다름아닌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생전에 그토록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의도를 따른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것이였다.

《나와 <단독회담>을 합시다. 비서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감동적인 글이 나올겁니다.》

역시 아름다운 마음이였다. 자신보다 동지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향취는 이렇게 풍기는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첫대면하던 그때에 벌써 무엇인가 가슴뿌듯한것을 느끼었던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보면 이것은 이들뿐이 아닌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성격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이요 그 향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보니 취재길에 잠깐 만났지만 다시 또 만나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이 이들만이 아니었던 듯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속에 나는 살고있는가.

우리 당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길러냈는가.

이것은 잠깐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간단한 이야기이다. 아직 우리의 신문과 방송에서 떠돌아 자랑한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 어느 대회의 연단도 아직 이들을 높이 세운적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격변하는 시대와 자신을 굳게 련결시키고 창조하는 삶, 투쟁하는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을 찾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주력군들이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온 세상에 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김일성**민족의 룡성번영하는 힘찬 숨결은 바로 이러한 심장들의 뜨거움이 천으로 만으로 이어진것이 아닌가!

림관식반장의 말대로 《단독회담》에 들어가 신일범 세포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또 그대로 수많은 감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있을것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음기회에 듣기로 하였다.

이미 들은것으로도 그 무엇인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어데 가나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을것 같기때문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들의 소박한 모습 하나하나에도 위대한 조국의 의미가 속깊이 배여있는것이 내가 사는 이 땅이라는 느낌이었다.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김 오(남조선)

내 어려울 때 슬플 때
절망의 구렁에서 허우적일 때
나의 온몸을 밝히며
가슴속에 비치드는 빛발이
있다
힘이 진한 내 몸을 부축해주고
두려워말고 어서 가라-
살며시 등을 밀어주는
어머니처럼 살뜰한 손길이
있다

다시금 굳세게 발을 디디고
서면
아, 나의 마음속인가
먼 저 하늘길인가
우렛이 떠오르는 고귀한 영상

태양의 광휘 다 받아안으신듯
태양처럼 밝으시고 굽으신 그
분
또 한번 화면에서 뵈왔건만은
나의 넋을 다 차지하신 **김정일**
동지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희망에 넘쳐 나는 간다
어두운 밤도 어둡지 않다
동터오지 않는 려명도 내겐
보인다

그분이 평양에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
사상은 휴전선도 국경도 막지
못한다
우려려 따르는 이 마음도 막지
못한다
투쟁의 발걸음은 그것들을
밟고 넘는다

주체의 위대한 기치를 드시고
자주와 진보에도 보다 밝은
앞날에도
그분께선 힘있게 인류를
이끄신다

허나 어디보다도 먼저 여길
걱정하신다
갈라진 조국의 남녘 이 불행한

땅
이 땅의 슬픔과 고통 다
안으시고
우리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신다

락심말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싸우라고
삶의 의지와 힘을 키워주신다
위대한 굴발속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손길따라 미래를 본다

우리는 인간존엄의 그 위대한
진리를
수난의 이 땅을 안아일으키고
싸워 얻은 신성한 기치위에
통일의 려명을 안아오리라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희망에 넘쳐 나는 간다
어두운 밤길도 어둡지 않다
동터오지 않는 려명도 내겐
보인다

빠고다공원에 핀 꽃

종로 2 가에 자리잡고있는 빠고다공원은 별로 크지 않은 공원이다. 서울에 있는 남산, 효창, 장충 공원들에 비해보면 규모에 있어서나 시설과 수목에 있어서나 그 어느것 하나 자랑할것이 없는 보통 수수한 공원이다.

그러나 빠고다공원이라고 하면 조선사람치고 모르는 이가 없을만큼 유명한 공원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1919 년 3 월 1 일 반일인민봉기때 바로 이 빠고다공원의 6 각당단우에서 독립선언서를 랑독한 다음부터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래 사람들은 흔히 빠고다공원이라고 하면 큰 공원으로 알고있는데 실상은 매우 보잘것 없는 작은 공원이다.

근래에 와서 이 공원을 일부러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도 변화가에 자리잡고있는탓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리섬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의 로인들이 찾아와 장기나 바둑을 두고 시국이 야기나 옛말같은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공원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빠고다공원에 신기한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였다.

소문에는 빠고다공원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한번 보거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온몸에 새힘이 솟구치고 예지가 생긴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앓은 사람은 병이 가신듯이 낫고 겁이 많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더 신기한것은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 그 꽃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빠고다공원에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였다.

그 가운데는 미술대학 학생들인 송진건과 지은희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송진건과 지은희가 빠고다공원을 찾은것은 그처럼 신기한 꽃을 한번 보려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그 아름다운 꽃을 그림에 담고싶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자그마한 공원은 꽃을 보러 온 사람들로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꽃향기에 취할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꽃향기는 공원에 가득찼다. 아니 온 거리에 진동하는듯싶었다. 송진건도 꽃을 보자 너무 황홀

하여 《야!-》하고 소리지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탐스럽게 핀 진홍색 꽃은 보석처럼 눈부신 빛깔을 뿌리고있었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지은희에겐 그 신기한 꽃이 보이지 않았다.

《은희씨, 꽃이 정말 아름답지요?》

진건은 서로 맞잡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놓으며 말했다.

《에...》

은희는 알릴듯말듯 가까스로 대답했다.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할수도 없었고 애인앞에서 거짓말을 하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꽃을 보자 흥분에 뜬 진건은 은희의 이런 기미를 조금도 눈치챌수 없었다.

진건은 사람들이 봄비는 속에서도 량해를 구하여 화판을 설치하고 그림그릴 준비를 하였다. 물론 은희의 자리도 옆에 가지런히 함께 마련해놓았다.

《은희씨, 빨리 꽃을 그림시다.》

진건은 연필을 꺼내들었다.

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오도카니 서있었다.

은희는 화로를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은 꽃을 보고 모두 좋아하는데 자기만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랴.

꽃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중엔 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명 있는것 같았다.

그들은 애써 내색을 하지 않았으나 은희의 눈엔 확연히 알리였다.

《은희씨, 왜 그러고있소? 몸이 불편하오?》

송진건은 연필을 쥔채 은희의 얼굴을 뺨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운 빛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진건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요.》

은희는 들릴듯말듯 입안의 소리로 말했다.

진건은 은희의 빨개진 얼굴을 보고 오한이 나거나 어디 몸이 몹시 피로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화판을 거두었다.

은희를 집에까지 바래워주고난 진건은 돌아오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빠고다공원에 핀 그 신기한 꽃을 보면 앓던 사람도 건강해지는데 왜 은희는 갑자기 앓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도 그 꽃을 보자 온몸에서 힘이 솟구쳐오름을 장렬히 느꼈었다.

(그렇다면?…)

순간 로앞에 선것처럼 진건의 얼굴은 화끈했다.

《내가 은희를 의심하다니? 은희는 절대로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진건은 머리를 흔들며 애써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건의 머리엔 지못게도 그 생각이 갈마들었다.

한편 진건이와 헤어진 은희는 참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모태기고있었다.

(만일 내가 꽃을 보지 못한다는것을 진건씨가 안다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 어디에도 하소할길 없고 지어 애인에게까지도 속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 피로움을 어떻게 참고 견딘단말인가.

그는 죽고싶었다. 이 세상에 더는 살고싶지 않았다. 이렇게 맑고 푸른 저 하늘을 머리위에 이고 다니라.

그러나 생명 또한 모진것이어서 제가 먹은 마음 그대로 할수도 없었다.

머리우에선 여전히 다함없는 해님이 밝은 빛을 뿌리고 쪽빛하늘은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다.

그날밤 거리에 행인들이 뜰해질무렵 은희는 저 혼자 빠고다공원으로 찾아갔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밤은 깊었으나 달빛어린 공원엔 여전히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은희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신기한 꽃이 있다는곳으로 찾아갔다. 여전히 은희에겐 꽃이 보이지 않았다. 향기도 맡을수 없었다.;

온밤 정신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운 그는 번열이 나 헛소리를 치며 몸을 뒤틀었다.

며칠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은희때문에 진건은 노상 와 살다싶이하였고 친우들과 친척들도 뻔당게 병문안을 왔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 사장은 아버지는 외딸인 은희를 위해 서울에서 이름있는 의사를 다 청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은희가 왜 앓으며 어떤 병인지 도저히 알아맞히지 못했다. 온실의 꽃처럼 고이 자란 은희가 이렇게 심하게 앓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은희의 병은 며칠이 지났으나 나으려는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틀째나 진건이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은희는 속으로 그 생각하며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애인의 얼굴을 보고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건이가 어쩐지 자기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발길이 떠진것만 같아 은근히 속이 썩

기었던것이다.

왜 오지 않을까? 사흘이 지나도 진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희는 병문안 온 가까운 학우에게 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모든 사실을 진건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으리라 마음먹었다. 혼자속으로 삭이기에선 너무도 피로왔던것이다.

이렇듯 뇌심초사해본적이 언제 또 있었던가.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도 기다리는 진건은 오지 않고 그가 보낸 편지를 한 동무가 가지고왔다.

은희는 성급히 편지를 뜯었다. 편지를 쥔 은희의 손은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다.

《은희씨. 나를 용서하오. 앓는 은희씨에게로 달려가고싶은 마음은 불같으나 나는 지금 류치장에 갇힌 몸이 되었소.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타매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량심의 길- 통일성전에 앞장서 가고있는 나를 그대는 이해해 주리라 믿소...》

《뭘 류치장에?》

은희는 깜짝 놀랐다. 그의 손에서 맥없이 편지가 떨어졌다.

은희는 수감자옷을 입은 진건의 모습이 눈물속에 흐릿하게 떠올랐다. 은희는 진건을 몹시 사랑했다. 진건의 깨끗한 량심과 불같은 정열을 사랑했다.

그러나 조롱속의 새처럼 부모들의 사랑속에 울안에서만 자란 은희는 진건이 그 위험한 시위에 참가하는것만은 이해하지 못했다. 괜히 공부할 시간만 배앗긴다고,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와 같이 산보나 하고 즐기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은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앓는 사람같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송진건을 찾아가려는것이다.

집을 나선 그가 건물 몇채를 지나 네거리에 나섰을 때 저쪽에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의 대렬이 나타났다.

한 학생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관문전에서.》하고 구호를 부르자 수만의 학생들이 호응하였다. 그 소리는 우뢰소리와 같이 하늘 땅을 울렸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은희는 진건의 열띤 모습이 떠올랐다.

(진건씨가 가고있는 저 길. 저 통일의 길로 온 나라 젊은이들이 다 가고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은희는 어쩐지 저 혼자만이 세차게 굽이치는 시대의 격류에서 밀려난것 같은 외로운 감을 느꼈다.

시위대렬은 은희앞을 지나가고있었다. 마침 그 대오속에서 한 녀동무가 《은희, 어서 들어서.》

하며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더 이상 그대로 서있을수 없어 은희는 물결쳐 오는 그 대오속에 끼워들었다. 대오를 한참 따라가던 그는 그들과 함께 목이 터지게 구호를 불렀다. 미제와 파쑈도당을 절규하는 그 웨침소리는 은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이때 시위대렬앞에 연기를 내뿜는 피물이 나타났다. 온몸에 철갑을 두른 피물은 시뻘건 입을 벌리고 미친듯이 독한 연기를 내뿜었다. 그뒤로 쇠뿔바가지를 쓴 악마들이 달려들고있었다.

갑시에 독한 연기는 뜨거운 피가 끓고있는 시위자들의 폐부속으로 흘러들었다.

은희는 객객 기침을 연거퍼 하더니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한채 쓰러지고말았다.

온실의 꽃은 세찬 비바람에 못견디는것이다.

그러나 그 비바람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때 생기는 기쁨과 희열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은희는 육체적으로는 견디어내지 못했으나 그의 의지는 첫 비바람을 이겨냈던것이다. 얼마나 장한가!

학우들에게 업혀 병원에 가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친근감과 행복감에 휩싸였다. 드디어 그들의 심장과 자기의 심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밤이 이슬해서야 은희는 건을수 있을만큼 몸이 회복되었다. 학우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병원문을 나섰다.

《은희, 우리 빠고다공원에 들려보고 가자. 너도 그 신기한 꽃을 보았지?》

어려서부터 늘 한학교에 다닌 친한 녀동무가 물었다.

은희는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일순 피로운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지나갔다.

학우들은 아마 아직 몸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어린 안색을 지었다.

은희는 정말로 피로왔다.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듯싶었다.

그렇다고 이들과 떨어지고싶지는 않았다.

은희는 그들과 함께 빠고다공원으로 갔다.

그들은 곧바로 신기한 꽃이 피어나는곳으로 향했다.

《아, 꽃!》

은희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그는 하늘을 날것만 같았다.

그의 눈에는 만첩으로 핀 붉고 아름다운 그 꽃이 보였던것이다. 꽃이 내뿜는 눈부신 빛발로 하여 은희는 눈이 시그려왔다. 눈을 부비고 다시 보니 세상이 더 환하게 보였다. 향기는 그의 온몸을 감쌌다.

놀라운 일은 련이어 생겼다.

꽃을 보고나니 은희는 언제 앓았던가보게 새

힘이 솟아올랐다. 독한 연기로 하여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하게 열려있다. 함께 온 남녀대학생들도 모두 기운이 넘쳐 웃고 떠들며 팔을 끼고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그들과 함께 즐겁게 웃는 은희를 보고 대학생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은희는 세상에 처음 태어난듯 새삼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다시한번 둘러보았다. 지난날 세상과 담을 쌓고 상아탑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가련하게 생각되었다.

민족도, 조국도, 집단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저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화판을 둘러메고 빠고다공원으로 찾아갔다.

신기한 꽃, 보기만 해도 정열이 솟구치게 하는 그 꽃을 그림에 담고싶었던것이다.

그는 온종일 까딱않고 앉아 그 꽃을 화판에 담았다. 그런 다음 은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송진건을 찾아 경찰서류치장으로 갔다.

《은희씨! 앓는 몸으로 어떻게 여길...》

진건은 은희를 보자 깜짝 놀라며 그의 건강부터 걱정하였다.

은희는 그의 진정이 고마왔다.

진건은 경찰놈들의 고문으로 하여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진건씨, 절 용서해주세요. 전 사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용서를 하다니?》

진건은 의아해서 빨개진 은희의 얼굴을 보았다.

은희는 진건이 고지식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진건은 은희가 그 신기한 꽃을 보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진건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도 모른체하는 능청스러운 사람도 아니였고 남의 속을 함부로 떠보려는 그런 무례한 사람도 아니였다.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였다. 은희는 그것이 좋았다. 이런 사람에겐 숨길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은희는 진건에게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말했다.

지난날 은희는 모두가 통일을 부르짖으며 거리에 떨쳐나섰을 때 자기만을 위해 그것을 외면하고 담장높은 집안에서 피아노에 마주앉아 《슈벨트》와 《모짜르트》를 타던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었던가를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였다.

《그러니 저에겐 그 꽃이 보일수 없었어요. 그 건 너무도 응당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꽃이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인단말예요.》

《장하오. 은희씨!》

송진건은 지은희의 두손을 힘껏 마주잡았다.

《진건씨, 그 꽃을 그린 그림을 보시겠어요?》

《그 꽃을 그렸소? 어서 봅시다!》

은희는 꽃을 그린 그림을 내놓았다. 꽃이 살아 있는것 같은 그 그림을 보자 진건의 눈은 번쩍 빛났다.

《아, 그 꽃이요. 그 신기한 꽃이 옳소. 참 잘 그렸소.》

진건은 환성을 질렀다.

이때 신기한 일이 또 생겼다.

그림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 어둡고 침침한 류치장안을 가득채웠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였던 진건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었고 힘이 부

쩍부쩍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류치장안에 갇힌 다른 사람들도 꽃향기를 맡고 힘이 솟는듯 여기저기서 열기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러나 경찰들은 꽃을 그린 그 그림을 보지 못했고 향기도 맡을수 없었다.

그후 송진건과 지은희는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대렬에 언제나 함께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한다.

지금도 빠고다공원에 핀 신기한 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빠고다공원에 핀 붉고 아름다운 신기한 꽃! 그 꽃은 바로 다름아닌 영생불멸의 꽃 **김정일** 화였다.

※ 이 전설은 한 남조선혁명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한것이다.

나는 천지우에 서있다

서봉제

나는 천지우에 서있다

한여름 배를 타고서만

설수 있는 백두호수에

나는 천지의 한복판에 서있다

한여름 산상에서 웨쳐부르며

아득히 굽어보던 푸른 물이

발밑에 빙설로 잠들은 그 얼음우에

발끝에서 일어

순간에 천리를 미끄러 날으는가

병풍처럼 둘러친 충암계곡을

거세인 눈갈기로 다듬으며

호반에 광란하는 바람

그리도 고향 높이

연바위들을 물어뜯으며

그렇게도 사납게 울부짖더니

천상에 으둑 머리를 올린

아아한 향도봉의 산허리에선

조용히 깃을 잡는것이나

있는것이면 다 쥐어뜯고

보이는것이면 다 휘몰아

얼음절벽에 부딪쳐다가는

하늘을 메우는 너 천지의 눈보라

순간이나마

너의 기승 이겨낸 가슴

단 한번이나마

너의 호령 휘어잡은 심장이면

세상 두려울것 무엇이란 말이나

눈보라는 모든것을 다 쓸어가도

백두만이 소중히 아끼는 사나운 이 계절

백두만이 간직하는 백옥의 이 세계

모진 설한풍속에서 새겨온

백두광명성의 그 빛나는 위업으로

한치도 드림없이 나를 손잡아주는

아 향도봉, 향도봉!

설악에 우는 저 눈보라는!

혁명의 붉은 기발아래 나를 말없이 불러주는

영원한 당부의 노래선률

엄한을 녹이며 이내 심장에 불붙는 맹세!

오 가슴 벅찬 나의 숨결이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변함없이 받들어 따르는 나의 걸음걸음에

넋과 절개와 기상으로 안고살

백두를 통채로 호흡하며

나는 지금 천지우에 서있다!

도천마을의 물방아

신병윤

이갈향기 산촌에 차흐르는
휘영청 달밝은 봄밤
핑핑핑 돌고도네

유격대에 보내줄 원호미
어서어서 째자고
온 마을 녀성들 지성이
꽃피나는 밤

북받치는 기쁨을 안으시고
물방아 돌리시던
김정숙어머님
청고운 목소리로 조용히 부르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어머님 선창따라
온 마을 녀성들 따라부르네
물소리 유정한 물방아간
산골짜к 별많은 밤하늘에 울려퍼지네

봄이 와도 봄을 모르고
꽃을 보아도 꽃을 모르던
이 나라 녀성들 부르는 노래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혁명의 노래

방아를 째으셔도 혁명을 위해
야학방의 글을 배워주어도 혁명을 위해
큰뜻 품고 무산에서 온
《구장》의 사촌누이
구슬같이 고운 그 마음

마을의 딸이 되시여 언니가 되시여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미소속에

멀리하던 이웃과도 주고받는 눈빛 뜨거워

한집안처럼 화목한 마을에
밤마다 원호미 째고째는
물방아소리 높아라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아라

방아아, 방아아
어서 어서 돌아라
이 쌀을 받아안은 유격대원들
원췌 왜놈 이 땅에서 몰아낼
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고
방아방아 물방아
너인들의 불타는 녀원안고 돌고도네

위대한 어머님은
김일성장군님의 해말이 되시여
부녀회, 청년회...하나로 묶어
억눌리고 짓밟힌 마을사람들
혁명가로 키워주시네

아, 즐거워라
광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고
달빛아래 별빛아래 돌고도는
도천마을의 물방아소리
산촌에 울려퍼지는 기쁨의 노래여
희망의 노래여

김정숙어머님을 모신 도천마을 부녀회원들
광복의 봄 눈앞에 그러보며
장군님 계신 백두산을 우러러
달마다 새 힘을 키웠네
원췌칠 용맹을 키웠네

김정일, 그이는 령장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슨

조종의 산 백두산
천고의 밀림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었네
전설적영웅

김일성 대원수님의 대를 이은
조선의 령장으로 탄생하시었네

진정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끝까지 완성할 의지 안으시고
금수강산 조선에
령장으로 탄생하시었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그이께서
백두의 뿌리 금수강산 조선에
튼튼히 내리시었네

아 오늘
굳세게 내린 기상의 그 뿌리
그 어떤 원수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네

보라

동방의 원수들도
서방의 원수들도
국내외의 온갖 원수들도
그이의 굳은 맹세
감히 꺾지 못하였네

원수놈들 달려들었네
굳세게 내린 뿌리 돕자고
양심품고 달려들었네
금수강산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조선의 고귀한 주체위업 없애버리려고

허나 보라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실패를 면치 못하였어라
그렇다
머리를 숙이고
그이앞에 무릎을 꿇었어라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장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기에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들고
조선은 영광스러운 위업 실현해가네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네

(필자는 가나시인임)

산촌의 새 력사가 펼쳐진 이야기

이해가 저물어간다.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이 세차게 타
번져 강산이 끓고 날마다 격동적인 사변들이 아
로새겨진 한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인민의 수령으로 주체
의 최고성지에 더욱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내 조국의 부
강을 위하여 투쟁해온 승리의 해가 인류사를 장
식하고 석양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해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색의 낮과
밤을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로고를 되새기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
하늘의 노을빛이 저리도 붉고붉은것이 아닌지.

년초부터 결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

격동속에 그 길을 따라 취재길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만 간다.

이해에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행복과 랑만으
로 충만되어왔다.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꽃피는 나라.

어디를 가나 이 땅은 행복의 동산으로 불리우
고 보다 휘황할 래일을 안고 사는 인민들의 투쟁
으로 눈부신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룡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
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은 모
두 수령님께서 한평생 바쳐오신 로고의 결과입니
다.》**

오로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오늘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밤
에 낮을 이으시며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
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속
에 마련되는 우리 생활.

그 어디를 가보아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발자취가 어려있고 그
자욱이 깃든곳마다에선 강산이 변하고 인민들의
행복넘친 생활이 펼쳐졌다.

두메의 깊은 골짜기에도 이름없는 동해의 포구
에도 서해의 간석지벌과 수천길 막장끝에도 사랑
의 그 길이 이어지지 않은곳이 이 나라엔 없으나
인민의 웃음꽃 피여놓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이던가.

곱게 핀 저녁노을을 이고 추억의 무아경에 잠
겨 하늘아래 첫동네라 부르는 김형권군으로 들어
서던 우리의 심중은 못잊을 그날에도 이끌려갔

다.

지금은 고층건물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이 들어찬
김형권군읍거리, 문화주택 줄지어선 사회주의문
화농촌마을들, 달리는 트랙토르와 자동차들이며
양떼 흐르는 산밭들, 굴소리 랑랑한 학교며 노래
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일터.

지난날 귀틀집을 쓰고 부대기를 일구며 풀뿌리
와 나무껍질로 마치 못해 살아가던 이 고장에 천
양지차의 현실을 안아오게 한 력사의 날.

그날은 1963년 8월 5일이였다.

힘한 부전령기슭을 따라 산간지대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기 김형권군에도 들리
시였다.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시기 위하
여 심혈을 기울여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질무렵 김형권군의 신
원천기슭에 이르시였다.

마침 하루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녀학생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몸가
짜이 불러주시였다.

꿈속에서도 그러보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
다.

그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서는 농사형편이며 가정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
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한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면에 웃음을 띄우신 어버이수령님께
서는 지난 세월에 이불도 모르고 베개조차 없어
목침을 베고 자던 산골사람들의 생활이 높아졌지
만 흰쌀밥을 먹고있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들
에게 아침밥을 무엇을 해먹였는가고 다정히 물으
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물음심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것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서
경리에 들렸을 때 유치원에 갔다가 몇몇 아이들
의 밥곽을 열어보았는데 흰쌀밥을 가지고온 아이
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올리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은 금시 흐려지시였다.

이윽하여 수원들에게 눈길을 돌리신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날씨타발, 병타발을 하면서 이 내
가에 동쪽하나 제대로 쌓지 않아 귀한 땅을 잃어
버리고있으니 어떻게 흰쌀밥을 먹을수 있겠는가
고 하시면서 여기 사람들은 감자농사만 잘 지어
도 얼마든지 벌방의 쌀과 바꾸어먹을수 있고 벌

방 못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이교장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며 산골사람들이 잘 살수 있는 방도를 하나 하나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은 두 녀학생과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잠시 아래웃견을 바라보시다가 어디 동쪽 쌍을 자리를 하나 잡아보자고 하시며 수원들과 함께 내가로 나가시는것이였다.

내가의 자갈들을 밟으시며 거친 길로 걸음을 옮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철부지 아이들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졌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교장 사람들은 땅이 나쁘고 날씨가 차기때문에 농사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땅을 잘 가꾸려 하지 않고 벌방으로 떠나갈 생각만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큰 물이 날 때는 이미 농사를 다 지어놓은 땅마저 물에 떠내려보내는 형편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교장의 실패와 농사형편을 두시고 마음쓰시며 두 녀학생과 오래도록 뜻깊은 말씀을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등농업학교에 다니고있는 그들에게 교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면서 교향땅을 살기좋은 마을로 꾸려나가도록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여기 내가엔 문화적인 농촌마을을 일떠세우고 파발강을 막아서는 양어장을 만들고, 산에는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여기도 얼마나 살기 좋은 교장이 되겠는가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예지의 빛발을 받아안은 두 녀학생의 눈앞에는 아름답게 변모된 산골마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터져나오는 환성을 그칠줄 몰랐다.

이곳 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 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그대로 안고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제 너희들이 커서 아버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 산골도 벌방 부럽지 않게 살기 좋은곳으로 만들어야 한대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또 배워 이 산간지대의 농업박사들이 되라고 힘과 용기를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휘황한 설계도를 안겨주시고 김형권군을 다녀가신후 여기에선 그야말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이 펼쳐진 김형권군의 모습.

벌방 부럽지 않는 살기 좋은 교장으로 꾸려져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이 산촌의 천지

개벽은 이렇게 일어난것이다.

어찌 김형권군뿐이라.

산과 산으로 둘러막힌 삭주, 창성으로부터 북단의 한글 온성이며 벌방의 연안, 배천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위한 사랑의 궤도는 끊임없이 이어져갔고 그 궤도우에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그 소리가 울리는곳에선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만복이 꽃피게 하는 전설같은 사변들이 일어나고 대대로 력사의 오명으로 불리우며 버림받던 땅들엔 락원의 창문들이 열려져 시대의 자랑 높은 지명이 되였다.

그 소리에 화답하듯 강산이 움직이고 세기를 주름잡는 력사가 창조되어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어갔으니...

이 나라의 천지개벽을 안아온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올해에도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며 사랑의 궤도를 이어가시였다.

인민군전사들을 찾아 찬바람 불어치는 산정의 초소길로 오르시고 몸소 운전대도 잡으시며 인민이 안겨사는 요람을 지켜 최전연고지의 산발을 누벼가신 우리 장군님.

안변청년발전소의 아스라한 언제우에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을 치하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 훌륭히 꽃피었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가 비껴 이해의 우리 생활은 얼마나 환희로왔던가.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워주시는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민이라고 그토록 아끼고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앞날은 그리도 밝고 창창한것 아닌가.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이 땅의 날과 달이 흘러 해가 가는것 이여라.

우리 인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변함없이 《인민행렬차》에 계시기에 인민은 영원히 수령님 한품속에 안겨살고 우리 조국은 후손만대 변영할 인민의 나라로 찬연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노래하는 탁상시계

세상에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시계들이 많다.

시계는 인간생활에서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물건의 하나이므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 시계를 뜻있게 장식하기도 하고 생활의 길동무로 중히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 수령님의 집무실에 놓을 시계를 두고 그것을 단순한 필수품이나 장식품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것이 순간이라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피로를 풀어드리는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마음쓰시었다.

1977년 8월 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으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자리를 뜨신후 여서 방에 계시지 않았다.

집무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주위를 둘러보기도 하시고 책상과 책장과의 거리도 가늠해보시었다.

안내하던 일군들은 자신들이 혹시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서 그 어떤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여 은근히 긴장해있었다.

일군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뭐 달리 생각할건 없습니다. 수령님 방에 새로운 시계를 하나 놓으려고 그러니다.》

그제서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신 까닭을 알게 된 일군들은 죄송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있는 자신들이 수령님께서 일을 보시는 집무실의 비품 하나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그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수고로이 오셨다는 죄의식감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이런 자책감으로 일군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어떤 시계인가 하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음악이 나오는 시계입니다.》

순간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피곤을 잠시라도 덜어드리고싶은 욕심에서 시계를 주문하여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시계를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었다.

스위스에 아버지와 아들이 30여년동안 수공업적으로 시계를 만들고있는 한 가정이 있었다. 이 가정에서 만든 시계는 세계적으로 질이 매우 좋은것으로 잘 알려져있었다.

이들은 틀동적인 시계도 만들고 음향을 담은 시계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음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지 그 어떤 기술자도 이들의 솜씨를 따르지 못했다.

이들의 명성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계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기로 작정하시고 시계를 주문하게 하시었다.

시계를 만들어온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거기에 넣을 음악을 자신께서 직접 맡아 선정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들으시면 기뻐도 하시고 감동에 젖기도 하시고 크나큰 고무와 격려를 받으실수 있는 그런 노래를 고르시기 위하여 수많은 명곡들을 하나하나 친히 들어보시었다.

그렇게 수백곡이나 골라 들어보시고는 지우시고 하시면서 고심하던 끝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로소 시계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넣기로 결심하시었다. 그 어떤 명곡의 경우에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뒤흔가지 못하기때문이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명곡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송가인만큼 들을수록 깊은 뜻을 자아냅니다.》**

일군들은 감동을 이기지 못하며 장군님께 음악을 즐겨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음악세계에 잠겨계시는 모습을 벌써 뵈옵는것만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잠깐만이라도 일손을 놓으시고 음악세계에 잠기시여 피로를 푸신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계를 어느 위치에 놓는것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노래가 나오는 시계이기때문에 책상에서 좀 멀리 떨어진곳에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으로 집무실의 구석진곳에 놓으면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리가 있는 생

각이기는 하지만 자그마한 탁상시계를 방구석에 놓겠는가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는 책상뒤 책장가운데에 놓는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방규모에도 맞고 음악소리가 뒤에서 은은히 들려 오게 되어 감상하기에도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시계를 놓을 위치까지 친히 정해주신 다음에야 가벼운 걸음으로 떠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차 시계를 보내주시였다.

시계는 자그마한 탁상용인데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한지 첫눈에도 보기도문 훌륭한 시계라는것이 알렸다. 그런데 시계에서 울려나오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음악소리 또한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처럼 현대적미감을 자아내는 고상한 형태에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소리까지 내는 훌륭한 시계를 일군들은 처음 보았다.

시계를 놓은 다음날이였다.

시계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자등받이에 가벼이 등을 맡기시고 명상에 잠기시였다.

《이 노래를 늘 들긴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 지나간 일이 떠오르는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일**동지는 어렸을 때 자신께서 좀 피곤해하는 기미가 보이면 피곤을 풀라고 늘 자청하여 노래를 부르곤하였다고, 어느날 자신께서 밤늦게 피곤하여 집에 들어가니 그가 자지 않고있다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하고 외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다.

《그 노래를 들으니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일제를 족치던 력사의 그 나날들이 회상되면서 어느새 피곤은 다 사라지고 분발하여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그때를 더듬으시는듯 방안을 거니시다가 **김정일**동지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썼다고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탁상시계에까지 음악을 넣어 나에게 힘을 주고 혁명의 길로 힘차게 밀어주니 정말 일을 하여도 힘든것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정일**조직비서와 같은 혁명동지를 가지고 있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고는 **김정일**동지에게 고맙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 제4권 앞장에는 집무실에서 집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이 모셔져있다.

바로 그 사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신 노래하는 탁상시계가 있다.

그 시계는 때맞추어 아름다운 선물로 위대한 수령님의 피로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서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수령님의 말없는 벗으로, 길동무로 자기 사명을 다하였던것이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과 사상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아버이수령님을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오신 수령님의 돌도 없는 벗이시였고 위대한 동지이시였다.

불 빛

김상조

막장에 흐르는 불빛
소대장의 안전등불빛은 유난히 밝아

지하천책 막장에도 한끝
앞선에만 비쳐주기때문인가

제 얼굴 비쳐보며 닦고 또 닦은
운나는 반사경때문인가

아니면 고르고 골라담은
번쩍이는 석탄덩어리때문인가

검은금 사태처럼 쏟아져 내릴 때면
소대장의 안전등불빛 더더욱 밝아

아, 항시 석탄산을 위해서만 불타는
당원의 심장이 함께 타고있기때문이어라

서사시의 음악성과 운률을 훌륭히 살린 시대의 명작

-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를 읽고 -

박성국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의 현실은 시인들로 하여금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정서적지향에 맞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기백있고 발랄한 우리 식의 새로운 운률을 끊임 없이 창조하며 시문학의 혁명적기능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창작완성된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사상적내용에서 심오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서사시의 사상예술적성과에서 시의 고유한 속성인 음악성을 잘 살린 개성적인 운률창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어지며 음악성이 없는 정서는 시의 서정으로 될수 없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끝없는 칭송의 감정정서를 안겨주며 널리 애송되고있는것은 서사시의 음악성을 잘 살린 개성적인 운률형식에 그 비결의 하나가 있다.

서사시는 시의 고유한 특성인 아름답고 풍부한 서정으로 음악성을 담보하고 개성적인 운률로 음악성을 잘 살렸다.

서사시에서 운률은 우선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남달리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있는데서 살아나고있다.

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답고 풍부한 서정이 음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면 운률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새로운 운률이 창조되자면 그에 맞는 아름답고 풍부한 서정이 탐구되어야 한다.

시를 쓸때 글자수나 맞추고 시조를 적당히 끊어놓는것으로써는 운률을 살릴수 없다. 물론 시의 운률을 살리는데서 시어의 소리마디와 시조의 길이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야 시의 음악성이 담보되고 운률이 살아날수 있다.

서사시의 시인은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두해를 살아오면서 체험한 구체적인 생활감

정을 남달리 뜨거운 심장으로 접수하고 체험하였으며 그 느낌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정서적지향에 맞게 훌륭히 재현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숭배의 감정정서로 일관된 서사시의 뜨겁고도 풍만한 서정은 시의 음악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새로운 운률이 생겨날수 있는 바탕으로,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서사시에 흐르는 음악적인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톨조는 사람들을 시인의 뜨겁고도 양양된 정서적체험세계속에 깊이 끌어들이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시인이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음악적인 톨동과 리듬으로 파악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가열시켜 양양된 정서의 흐름으로 서정을 퍼나간데 있다.

서사시의 서정이 정제된 아름다운 운률을 타고 흘러가며 시어와 시구가 음악적톨동과 박자에 맞게 치밀하게 맞물려지고있는것도 그만큼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있기때문이다.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양양되어있을 때 시인의 감정은 비상이 예리해지면서 생활을 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생활의 톨동과 시인의 정서적호흡률이 결합되어 시의 서정으로 굽이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운률이 생겨나게 된다.

이때 생겨나는 운률은 자연히 우아하고 정가롭고 류창한 음악적인 톨동미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서사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서정의 흐름을 따라 깊은 서정세계에 잠겨들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는것도 결국은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과 고도로 양양된 시의 정서적내용에 맞게 흐르는 정서적호흡률이 그대로 독자의 정서적호흡률로 옮겨지면서 운률이 생겨나기때문이다.

서사시의 임의의 시련을 읊어보아도 거기에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고도로 양양된 서정의 흐름으로 굽이치면서 운률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평양, 그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이

하늘가득 떠올라라

평양, 이 거리를 걸으면
지금도 수령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이 가슴에 이 강산에 울리여라

×

력사가 처음보는 그 위업이어서
인류가 처음 보는 그 업적이어서
친애하는 그이
세상에 다시 없는 개선문을 세워
이 처마아래로
위대한 력사가 흐르게 하셨나니

이 시련들에서는 첫 서정에서부터 운율이 조성되면서 시어들이 성음상 대응하는데 따라 아름답고 류창한 운율이 살아나고있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뜨겁고도 양양된 정서적체함과 느낌을 그대로 시적정서로 재현되어 생활그대로의 음악적인 율조를 타고 흐르며 그에 맞는 운율이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체험된 소박하고 진실한 느낌이 시인의 심장에서 가열되어 뜨겁고 양양된 서정으로 시의 정서적내용을 이룰 때 선택된 시어들도 아름답고 정제된 시어들로 치밀하게 맞물려지고 뚜렷하게 살아나면서 운율이 생겨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시련에서 운율이 운율조성의 수법들을 능숙하게 리용한데서도 살아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됨으로써 살아나고있다.

서사시에서의 운율은 또한 시의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된데서 살아나고있다.

시에서 운율은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시의 정서적색깔을 생동하게 살려 정서의 구체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정서의 열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감정조직에 이바지할수 있다.

서사시의 운율은 시의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되어 서사시에 고유한 생리에 맞게 밝고 숭엄하며 감정정서는 그 열도에서 뜨겁고 절절하며 고도로 양양되어있다.

이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기본감정선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룩한 한평생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효의 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할것을 사상주체적파제로 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서사시의 정서적색깔은 밝고 숭엄하며 감정정서는 그 열도에서 비상히 뜨겁고 절절하며 고도로 양양되어있다.

이에 맞게 서사시의 서정이 뜨겁고 고도로 양양된 흐름으로 일관되어나가도록 운율은 순탄하

고 평이하면서도 속도감을 가진 류창한 정서적기복을 이루며 흐르고있다. 이것은 서사시의 운율이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된데서 이루어지는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서사시에서 운율은 정서적내용과 밀착되면서 그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언어형식의 측면에서 독창적인 시세계를 튼튼히 담보하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서사시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영원한 평양시간으로 흐르리라는 사상을 가장 정확히 표현할수 있는 언어형식의 개성적인 탐구로 하여 서사시는 운율창조에서도 자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시에서 운율은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그 본성에서 구체적이며 비반복적인 언어형상을 전체로 하며 운율을 살린다는것은 곧 언어형상의 개성적인 탐구를 의미한다. 시의 언어작업에서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된 운율을 창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도 이와 관련된다.

시에서 뜻이 명백하고 정서적색깔이 뚜렷한 시어들을 선택하여 시의 문장을 엮어야 시의 정서적내용의 핵을 뚜렷하게 살리면서 내용을 알기 쉽고 뜻이 깊게 표현할수 있으며 정서의 색깔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살리는데 맞는 운율이 조성될수 있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평양시간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언어형상은 작품의 정서적내용에 가장 알맞는 언어형식으로, 개성적인 운율창조의 구체적인 실례로 된다.

그렇다, 평양시간은

시대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거룩한 그 자욱으로 이어가시는

영원한 **김정일**동지의 력사

영원한 영원한 태양의 력사

보는바와 같이 이 시련에 씌어진 평양시간은 서사시가 추구하는 사상정서적핵을 뚜렷하고 깊이있게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는 시적언어로 된다.

시인은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그에 맞게 탐구한 뜻이 깊고 알기 쉬운 시어들을 서정의 내용에 따라 선택배렬함으로써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된 운율이 생겨나게 하였다. 이처럼 서사시에서 운율은 시의 정서적내용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정서적내용에 맞는 시어들이 탐구되어 비반복적인 형상수단으로 실현됨으로써 훌륭히 살아나고있다.

서사시에서 운율은 또한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

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살아나고있다.

시의 운율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을 능숙하게 활용할줄 아는 세련된 기교를 가져야 한다.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에 정통하고 세련되고 능란한 예술적기교를 발휘하여 아름답고 류창한 운율을 창조해내는것은 우리 시문학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시인은 우리 말의 우수한 특성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서사시를 하나의 아름답고 풍부한 시적어휘와 시어의 결정체로,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언어구사를 통한 새로운 운율창조의 본보기로 되게 하였다.

서사시에서 나타나고있는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의 능숙한 활용은 시의 정서적내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깊이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시적어휘와 시어들을 선택하여 자유분방하게 엮어나가면서 음악성과 운율을 살린 세련된 기교에서 나타나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인민적인 언어들을 선택하여 거기에 깊은 뜻을 담았으며 운율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활발히 리용하여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아름답고 류창한 운율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언어는 첫째가는 표현수단으로 된다. 언어의 예술인 문학작품창작에서 언어형상의 수단과 수법을 개성적으로 독특하게 리용하는것은 형상의 독창성을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작가가 언어형상의 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기의 형상의도에 맞게 개성적으로 잘 리용하여야 작품의 예술적품위를 높일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의 독특한 문제를 확립할수 있는 세련된 예술적기교를 가지게 된다.

서사시에서는 시인이 세련된 예술적기교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탐구리용한 운율창조의 다양한 수단과 수법들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서사시의 시인은 우리 말의 풍부한 언어수단에 정통하고 문학작품창작에 널리 쓰이고있는 형태론적, 문장론적 표현수단들과 문체론적표현수법들을 비롯하여 운율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높이고 우리 인민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류창한 운율을 창조하였다.

우리들이 알면
잠에서 깨여날가봐
인민들이 알면
깊은 든 잠에서 깨여날가봐
밤도 깊은 밤
우리 아버이 그리도 고요히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는가

수령님의 심장에서
높이 고동치며 시작되고
력사를 이끌며 굽이쳐온 그 시간은
해빛을 뿌려
별빛을 뿌려
이 땅에 광명을 준 시간
인민에게 얼을 준 시간
조국에 활력을 준 시간

두 시련에서 느끼게 되는 뜨겁고 절절하며 강렬한 서정은 음악적인 운율을 살리는데서 많이 쓰이는 표현수법들인 반복법, 대구법, 점층법, 물음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데서 나타나고있다.

첫 시련에서 《우리들이 알면》, 《잠에서 깨여날가봐》와 《밤》을 반복하면서 두 시구를 대구법으로 대응시키고 거기에 물음법을 첨가하여 운율을 조성하였다. 또한 자유율을 가진 시련이지만 성음상, 의미상 같은 시어들을 동일한 음절군으로 반복대응시켜 운율이 뚜렷이 살아나게 하고 있다.

두번째 시련에서는 반복법과 점층법을 리용하면서도 교차반복, 길이반복, 반복법과 점층법의 겹치는 방법으로 운율을 살리고있다.

이 두 시련에서 리용된 반복법은 정서의 뜻을 강조하고 격동된 감정을 풀이하는 수법으로 되면서 운율조성에 이바지하고있으며 대구법은 시적운율을 이루면서 정서를 풍겨주고 표현을 순탄하고 정연하게 하는 수법으로 되고있다. 또한 물음법은 시인의 주장과 느낌을 힘있게 강조하고 감정정서를 강렬하게 개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점층법은 형상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강조하고 형상을 구체화하는 수법으로 리용되었다.

서사시에서 시인은 사건적인 이야기, 생활적인 사실을 표현하는데서도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체험세계속에서 융해시켜 서정화하는 방법으로 서술적문장을 피하면서 표현수단과 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였다.

잊을수 없어라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신 그 밤
김정일동지가 나 없는 그사이
평양에 멧쟁이건물을 또 일떠세웠다고
김정일동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마음에 든다고
좀더 가까이 가보자하시며
차머리를 돌려 광복거리로 향하시던
우리 수령님

이 시련들에서 보는것처럼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중세계를 제3

자의 객관적인 립장에서 사실적인 자료로 묘사하여 보여주는데 머무르지 않고 두분의 위대한 수령의 내면세계에 직접 들어가 서정적인 주정토를 기본으로 하여 개방하는 방법을 택하고있다. 또한 여기에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서정화된 시문장을 조직하여 운률을 살리고있다.

우의 시련들에서는 자리바꿈법, 반복법, 대구법, 토와 운을 리용하여 운률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반복법에서도 두이반복, 겹어반복, 교차반복으로 사실자료를 전달하는데서 서술식문장을 피하고 있으며 토와 운을 리용하여 어음적효과를 살리면서 서정의 흐름이 처지거나 따분해지지 않고 류창한 운률을 타고 속도감이 나게 흘러가도록 하였다.

서사시의 임의의 시련들을 분석하여보아도 시인이 우리 말의 우수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리용

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비상히 높이고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운률을 조성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서사시의 음악성과 운률을 살리는데 이바지한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의 능숙한 활용은 시인이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기의 형상의도에 맞게 개성적으로 훌륭히 리용할줄 아는 세련되고 능숙한 예술적기량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가 도달한 시형상의 높은 수준이 작가의 예술적재능과 뛰어난 실력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서사시의 운률창조에서 보여준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해나감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운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칠보산

허창길

오랜 세월
쌓이고 겹쌓인
그리움과 간절한 소원
일시에 다 풀리는듯

봉우리는 봉우리마다
절벽은 절벽마다
기묘함 다해 아름다움 다해
머리 쳐드는듯...

덩굴마다 아지마다 열린 머루 다래도
바로 이날을 위해
한껏 자라 무르익었다고
싱그러운 향기 진하게 풍기는데

부감하시는 일만정치마다에
만족어린 눈길 보내시며
걸음걸음 옮기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여라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고
우리 나라의 자랑이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참관도로 참관시설 더 잘 꾸리자고...

순간 놀뛰는 숨결마냥
동해바다 푸른 물은
세차게 밀려와 기슭을 두드리고

있새마다 아롱졌던 이슬방울들도
감격의 눈물로 부서져내리는가

뜻밖에 소문도 없이
명승지를 찾아주신 이 기회에
그이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웁기를 바라건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그 어느 하나의 경치를 두고도
《고난의 행군》길 힘차게 내닫는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뜨거운 은정 베풀어주시거니

오!
이날을 기다리며 그리는 마음담아
제모습 곱게곱게 다듬어온
조선의 명산 칠보산아!

정녕 이날을 맞아
네 봉우리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건
산천경개 기묘함때문만이 아니로구나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뜻
봉이마다 골마다 비껴
네 모습
온 세상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의 이름높은 명산이구나!

군인성격

정래현

《중위동무!》

직일관실에서 찾는 소리에 림순경은 출근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었다.

《자 또 편지가 왔소.》

나이지숙한 신문사직일관이 열려진 창박으로 봉투를 내흔들며 벌췌 웃는다.

《그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순경의 호수처럼 그윽한 눈동자가 반짝 빛을 뿌렸다.

《어디긴 어디겠소. 그 이름도 자랑스런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이라도.》

직일관은 민요가락을 뽑듯 발신인 주소성명을 건드려지게 엮어댄다.

순경은 왼쪽볼에 보조개를 살짝 파며 편지를 넘겨받았다.

《차금석?》

발신인의 이름을 다시 뇌이는 그의 눈앞에 먹물을 듬뿍 묻히여 미간 양쪽에 툭툭 가로찍어놓은듯한 술진 눈섭의 한 군관이 떠올랐다. 그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에서 100 리물길굴을 뚫고 있는 순경의 동생 림순철이네 중대장이다.

얼마전 신문 《조선인민군》 지상에는 차금석중대장의 위훈과 투쟁소식이 크게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림순경이 건설장을 다녀온후 집필한 긍정교양 기사였다.

아침마다 편집부에 맨 먼저 들어서고 버릇처럼 밀대부터 들던 그가 오늘은 레외로 편지를 앞에 놓고 결상을 당겨앉았다.

이 구실 저 구실 붙이면서 좀처럼 취재에 응해주지 않던 차금석의 밋살스러운 표정이 새삼스레 우선우선한 인상으로 안겨온다.

《똑박쇠!》

처녀의 발그레한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알릴듯 말듯 어리었다. 아무렴 이 세상에 목석이 아니고서야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라구.

하지만 편지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순경의 밝은 눈빛이 서서히 흐려가더니 실망과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아니?... 이 동무가...)

닭알형의 고운 얼굴은 점점 수치심과 분격으로 이지러졌고 가쁜 숨소리가 깨물린 입술을 뚫고 터져나왔다.

순경은 저도 모르게 편지지를 구겨쥐며 눈을 꼭 감았다. 촌촌한 속눈섭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들거렸다. 기대와는 너무나 상상밖으로 환멸을

가져다준 편지의 글자들이 뇌리를 부저가락처럼 쑤시었다.

《...기자동무가 그렇게도 책임성없이 기사를 써낼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우리 군인들에 대한 몰리해에서 초래된 실수인가요? 나로서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자기의 명예나 이름을 날리자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나는 기사내용에 있는것처럼 그때 착암기를 직접 잡은 주인공도 아니며 동무가 야단스레 표현한 그런 특출한 위훈의 창조자는 더더욱 아니란말입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은 나보다 기자동무가 더 잘 알고있겠기에 긴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일에서 성과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혁신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동무는 차금석이라는 인간을 구분대앞에 면목없는 지휘관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기자동무가 무슨 권리로 군인의 랑심에 먹칠을 하였는가 말입니다.》

어찌도 분이 치밀었는지 순경의 실그러진 눈귀로 눈물까지 배여나왔다. 실컷 업어주고 뺨을 맞는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기자생활 3년동안에 수백수천통을 헤아리는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이처럼 피백한 편지는 보아보다 처음이었다.

그는 쥐가 오른듯 팔딱거리는 판자노리의 대동맥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건설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였다.

...차금석중대를 찾아가는 림순경의 마음은 한껏 격동되어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교시를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작전구상에 따라 공사를 다그쳐온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은 벌써 1계단 완공의 거창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상과 지하에서 치렬한 대격전을 치르는듯한 여기는 발이 닿는곳마다 기적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영웅감이었다.

이제 만나게 될 차금석이라는 중대장은 어떤 위훈의 창조자인가?

순경은 시내가의 돌다리를 기우뚱거리며 건너자 길을 물어가려고 두리번거렸다. 마침 가까운 산비탈의 남새밭에 하얀 취사복을 입은 병사가 울호박을 따서 늪통에 담는것이 눈에 띄었다.

《...오...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

명령! 그것을 관촬하기전엔
 죽을 권리도 없거니...》
 호박이 가득 담겨진 늪통을 안고 비탈밭을 뚝
 기적동기적 내려오며 시를 읊던 상등병이 급기야
 밭을 걸쳐여 몸의 균형을 잃었다.
 (저런! ...)
 호박 하나가 면바로 순경을 향해 굴러왔다.
 《아, 거...호박을 줌 잡아주십시오.》
 순경은 빠른 동작으로 닝큼 잡아들었다. 늪통
 을 안은채로 경충경충 다가오던 상등병과 눈길을
 마주치자 그 녀자는 얼굴이 확 밝아졌다.
 《순철아!》
 상등병도 입을 하 벌렸다가 환성을 터치였다.
 《누이!》
 그들 오누이는 이렇게 우연하게 상봉하였다.
 《입대한지 한해가 조금 지났는데 넌 벌써 병사
 시인이 다 됐구나!》
 순경은 몰라보게 숙성한 동생의 아래우를 사랑
 스레 눈더듬었다.
 《그건...우리 중대장동지의 자작시예요.》
 순철은 자랑삼아 말했다.
 《우리 중대장동지는 시뿐아니라 작곡도 잘하구
 악기들도 막히는것이 없어요. 우리 보구 병사는
 일당백전투원이면서 다재다능이어야 한다면 솔
 선 앞장에 서군하지요.》
 《참 , 대단하구나. 그 <팔방미인>의 이름이 뭐
 지?》
 《차금석》
 《뭐-차금석이라구?》
 순경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반복하였
 다.
 《누인, 우리 중대장을 알아요?》
 동생은 금시 귀밑까지 입이 돌아갔다.
 《아니,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란다. 그러니 네
 가 너희 중대장동무를 취재하게 되었구나.》
 오누이는 서로 묻고 대답하며 늪통을 맞들고
 중대로 향하였다.
 중대병실은 신록이 짙어가는 산등성이의 온갖
 꽃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수시로 뒤편저지고 파헤
 쳐지는 건설장에 이런 아담한 병실이 있다는것이
 순경의 마음을 또한번 흔들었다.
 《아참! 별장같구나》
 《저 집자리두 우리 중대장동지가 잡은거야요.
 군인은 하루를 살아도 군인면모가 나게 살아야
 한다면 건설장이라고 해서 임시적관념을 가지면
 안된다는거지요 뭐.》
 동생은 건덕지가 생기면 중대장소리다. 그러는
 거동이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웠고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시샘을 불러일으켰다.
 《넌...오래간만에 만난 누나는 제쳐놓고 중대장
 자랑뿐이구나. 집소식두 한번 건승 물어보다말

구...》
 순철은 박속같은 덧이를 내보이며 히죽 웃는것
 으로 모든것을 대신하였다.
 하여튼 마음이 홀가분했다. 중대를 제집처럼
 여기고 중대장을 만형처럼 따르는것이 얼마나 좋
 은 일인가! 그새 동생의 키가 무척 자란듯싶었다.
 《차! 이거 오늘따라 식당근무에 걸려서...》
 순철은 중대의 작업장으로 가는 사갱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으기 긴장한 낫색을 지었다.
 《왜 그러니?》
 《어제밤 우리 중대가 말은 물길구간에 커다란
 물주머니가 터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순경은 중대가 처한 정황을 대
 체 짐작하였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물주
 머니는 삽시에 공사를 정상상태로 만들거나 무시로
 인명피해를 노린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가슴이 후둑후둑 떨렸다.
 《지금... 중대장동지랑 결사전을 벌릴거야요.》
 순경은 동생과 헤어져 급히 사갱을 따라 중대
 가 말은 기본 굴진경도로 총총히 달려갔다. 불
 굴의 투지로 물주머니를 제압하는 전투원들이 보
 고싶었고 무엇인가 자기도 기여해야 한다는 마음
 의 충동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첫눈에 안겨든것은 갱입구에 설치된 여러대의
 대형양수기들이 맹렬히 물을 뽑아내는것과 직일
 사관의 경계심어린 눈초리였다.
 놀라운것은 물속에 잠긴 갱막장으로 세찬 공기
 를 불어넣으며 압축기가 새된 동음을 울리고있는
 기이한 환경이었다. 그러니 이런 엄혹한 속에서
 도 굴진은 계속 진행되고있다는것이 아닌가!
 갱대기실에서 중대장을 기다리라고 권하던 직
 일사관도 현장취재증명서를 내대며 강경하게 나
 서는 순경을 막지 못하였다.
 직경이 수메타가 훨씬 넘는것 같은 물길굴에는
 드문드문 고축등을 켜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
 았다. 순경은 갈수록 깊어지는 물을 무릎으로 차
 면서 몇번이나 넘어질뻔하였다. 직일사관이 친절
 히 안전모까지 씌워주었는데도 무시로 떨어지는
 돌부스레기와 석수로 하여 가슴이 섬섬씩씩하였
 다. 막장에서 쉬임없이 울리는 착암기소리만 아
 니라면 열번도 되돌아섰을것이었다.
 순경은 문득 자기앞의 갱공크리트벽에 흰색으
 로 썩여져있는 글발을 알아보았다.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 1996. 2. 16
 순, 호, 최, 락》
 순경의 눈굽이 뜨겁하게 달아올랐다. 이제 머
 지않아 물길굴이 쪽 관통되면 물속에 저 글발들
 이 잠기겠지, 그때는 누구도 저 글발이 여기에
 있다는것을 모를것이다. 묵묵히 격류를 지나보내
 며...

혹시 저 글자들속의 《순》자는 동생의 이름 첫자가 아닐까?!

갑자기 앞에 물우로 솟구치는듯한 인기척이 나타나 순경은 화뜰 놀라 뒤집음쳤다.

《어마나!》

《놀라지 마시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뒤로 자빠지려는 순경의 손을 우악스레 잡아일으켰다.

《난 이곳 물길구간을 담당한 중대장입니다.》

그제서야 순경은 놀란 가슴에 었었던 두손을 내리웠다.

《전 인민군신문사 기자...》

《알고있습니다.》 하고 중대장은 그의 말머리를 끊고 굴뚝으로 향하였다.

《저...》

《나갑시다.》

이번에서 물풍스레 말머리부터 잘라버렸다.

《?...》

취재기자를 현장까지 안내할대신 밖으로 나가자니 무슨 소리야? 나를 이미 알고있다는것은 무얼 의미하고... 좁전에 전화기로 바빠 다가서던 직일사관이 보고를 한 모양인가?

중대장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채 저쪽에서 물을 처벅처벅 차고있었다.

《저... 어디로 가는건가요?》

《나를 만나러 왔으면 따라오시오.》

순경은 할수 없이 발길을 돌리었다. 막장쪽에서는 여전히 착암기소리가 울려왔다.

갱대기실의 야전식 책상을 서로 마주하고 앉은 그들사이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순경은 차금석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런 때는 제스스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말미를 주어야 하는것이다.

무슨 사연인들 없으랴! 순경이 알고있기엔 차금석이 서해갑문건설때부터 일해온, 말하자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지휘관이라는것이다.

차금석중대장은 벌써 담배를 두대씩 갈아태우며 무엇인지 갑자르는 표정이였다.

쭉 꺼진 눈썹,조갈이 든 두툼한 입술,물이 푹푹 흐르는 작업복, 복두갈구리같은 손가락에 아무렇게나 동여맨 봉대...물길굴을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운 흔적이 한눈으로도 력연했다.

순경은 슬그머니 대기실 문밖으로 눈길을 피하였다.

(몹시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구나!)

이런 때 취재에 응해달라는것은 레의에 어긋나는 무리한 행동이 아닐까?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을 말아나선 중대에 또 큰 물주머니까지 터졌으니 간고하기란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다.

차라리 내가 갱막장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터인데 이 동문 어째서 이곳까지 나왔을가?

《이거 안됐소만.》

중대장은 담배불을 끄고 몸을 움쭉 일으킨다.

《모처럼 찾아왔는데 지금 정황에선 이야기를 나눌새가 없구만요. 이틀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는 안전모를 집어들었다.

《?...》

《갱에 물이 찌려면 아직 이들은 걸릴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그곳은 녀성이 들어갈곳이 못되지요. 몹시 위험합니다.》

차금석은 직일사관한테로 다가가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더니 미처 붙잡을새 없이 막장쪽으로 침범침범 사라졌다.

뭐 녀성이 들어갈곳이 못된다고? 몹시 위험한 거기에서 군인들이 힘겨운 전투를 하고있는데 취재기자인 내가 못들어갈 조건이 뭐야?

생각해보니 결이 올라 다급히 뒤쫓으려는데 이번에는 직일사관이 담벽처럼 막아나섰다. 막장에 들어가려거든 물이 질때까지 기다리라는것이다. 어느 하가에 이틀동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순경을 차금석중대장에게로 보냈던 려단 현장 지휘부의 정치일군은 취재가 실패하였다는것을 알고 정황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사죄를 먼저 하였다.

《현장은 물이 목까지 올라왔댔소.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줄어든것이 그렇소.》

오죽했으면 그 속에서도 기자동무가 넘려스러워 허겁지겁 마주나왔겠나!

중대장의 속깊은 마음에 오히려 감심하는 태도였다.

그는 순경의 의혹어린 표정을 마주보며 너부죽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었다.

《내 이야기를 하나 할테니 취재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보우.》

정치일군은 순경의 손에 차고뿌를 쥐여주고 나서 자기도 한모금 따라 마시었다. 그리고는 어느 구분대엔가 전화를 하더니 수첩에다 몇자 적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어느날 한 중대의 지하막장에서 봉락구간을 힘들게 극복하였는데 이번엔 또다시 물주머니가 터졌다요.》

삼시에 갱의 마구리들이 물에 잠기게 댔소. 이 사실이 즉시 려단에 보고되고 지체없이 철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 려단이 맡은 구간에서 처음으로 크게 발생한 정황이어서 지휘부에서도 약간 당황했댔소.

그런데 현장으로 달려가보니 압축기가 그냥 돌아가는것이 아니겠소.》

순경은 고맙게도 이 정치일군이 다른 취재대상을 선정해주려 예비안을 내놓는것이 아닌가고 넘

겨졌었다.

《...알고보니 그 중대장의 담력이 보통아니었소. 정황이 발생하자마자 어느새 양수기들을 보강해서 물을 뽑게 했던 말이요.

그래도 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겨우 수면상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했소.

이때 중대장은 동발목으로 폐를 못게 하고는 착암기를 그우에 설치하였소.

생각을 해보시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군인성격이 아니고서야 어림이 있겠소.》

순경의 눈앞에는 결쾌있고 락천적이며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배심과 결단성,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이신작척이 그대로 체질화된 그 지휘관의 거인같은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졌다.

《어느 중대입니까?》

그가 부쩍 호기심이 동해하자 정치일군을 꺾꺾소리내어 웃었다.

《말만 들어도 흥분하는걸 보니 취재는 성공한셈이구만...그가 바로 차금석중대장이라고.》

《?...》

순경은 허거픈 웃음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술래잡기놀이에서 술래의 처지와 같은 느낌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이틀후에 차금석중대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중대장은 현장에 없었다. 정머리를 해결하려 원산에 갔다는것이였다.

물이 찼 막장에는 가렬치절한 전투의 흔적인양 폐목들과 도끼밥들, 바줄통구리들이 눈에 띄웠다.

바닥에 떨어져있는 하나하나에 영웅서사사가슴배여진듯싶었다.

순경을 특히 감동시킨것은 물길굴안에서의 중대분렬행진이였다. 소대별로 렬을 맞추어 굴박까지 찌렁찌렁 울리게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는 그 대오속에서 동생의 구김살없는 모습까지 보고나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쟁쟁한 군인체모를 갖추게 하고 중대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구분대로 만들었을까? ...

순경은 중대정치지도원과 만나고 병사들과 오랜 시간 일을 같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제의 중심에는 중대장이 서있는것이였다.

《날따라 앞으랴!》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비록 차금석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 인정하는 사실자료여서 그대로 신문지상에 공개되였다.

그런데... 아닌 밤중의 홍두깨라고 순경으로서선 전혀 예측도 못하다가 비난의 불화로를 뒤집어쓴격이다. 무참하기 그지없었다.

느닷없이 동생의 일이 근심스러워진다. 과연

그 피엑스러운 지휘관밑에서 순철이가 군사복무를 잘 해낼가? 그 애가 나를 만났을 때 귀가려울 정도로 중대장을 취율리던것은 일종의 아침기가 아닐가?...

순경은 가따모를 한숨을 호- 내쉬며 편지를 책상서랍에 아무렇게나 구겨박았다.

한달후 림순경은 안변청년발전소를 다시 찾았다.

그사이 건설장은 깜짝 놀랄정도로 달라졌다. 두개의 산사이를 편결하여 높이 솟는 언제는 그 몸통이 더 장엄하고 우람차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저절로 든든하게 하였고 엄청나게 큰 입을 벌리고있는듯한 취수구들로는 당장이라도 세찬 물줄기들이 쏟아져나올것 같은데 깊은 땅속으로 뻗어간 대형물길굴도 거의 100 리계선에 다달아 관통은 시간문제였다.

림순경중위를 다시 맞이한 려단정치일군은 반가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거... 한 십년은 헤여졌던것 같구만. 림접부대에서 걸었다? ...온참, 승용차를 보내달라구 할게지... 글감걱정은 말구 다리쉽부터 먼저 하오.》

그는 차를 따라준다 결상을 권한다 부산을 피웠다.

《순경동무가 쓴 기사말이요! 정말 실감있게 썼더구만... 우리 동무들모두가 좋아하오. 역시 좋은 글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거든...》

순경은 저도 모르게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아니 왜 그러오?》

그제서야 처녀는 결상에 앉으면서 차금석의 편지사연을 꺼내었다.

《흠...그 사람이? ... 이거 정말 미안하오. 칭찬하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한셈이구만. 그 동무 성미로선 이해되는것이지만. 아니 저...내가 대신 기자동무에게 사죄를 하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함께 차금석중대장을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야 제가 어디를 피해... 혼뜨검을 내줄테요.》

또 차금석중대로 간단말인가? 순경은 어느결에 코살을 찡그렸다가 급히 표정을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슬며시 건설장전경이 바라보이는 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아찔하게 높은 벼랑중턱에 새겨진 힘있는 선동구호들이 마치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심장에 안겨온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전투원들이여! 승리는 눈앞에 있다.》

《오늘의 물길굴진파제를 초과수행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볼수록 가슴속의 피가 끓게 하는 글발들이다.

《차광수돌격대》라고 쓴 붉은 기발아래서 혁명가요를 부르는 어느 지휘관의 기백넘친 목청이

현장방송으로 광광 울리고 《쿵쿵쿵...》 압축기소리, 《꾸르릉 꾸르릉...》 쉬임없이 땅을 흔드는 발파소리가 전대미문의 대교향곡을 연주하는가싶다.

완공의 그날에도 힘껏 줄달음치는 이 거창한 전투현장에서 취재대상을 따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저... 이번엔 다른 중대로 가볼까 하는데요. 거기서도 세상에 자랑할만한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물론, 우리려단안의 중대들치고 내노라 하지 않는 구분대가 없소. 하지만 그중에서도 차금석동무네가 기발중대요.》

《기발중대라는건 저...》

《이를테면 대오의 맨앞에서 붉은기를 들고 나가는 기수들이라 그 말이요.》

정치일군이 잔뜩 귀맛을 돋구었으나 림순경은 마다하고 다른 대상을 택하였다.

그곳에서의 취재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예상대로 조건과 환경이 좋았던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적여유가 생기니 불현듯 동생생각이 났다. 그애는 지금쯤 무얼하고있을까? 어디 상한데는 없는가?...

그가 식료품들과 건재들을 싣고 연방 들이닥치는 자동차행렬을 지나보내느라 길설에 물러나있는데 《누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범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동생이 땀발이 흥건해서 달려왔다.

《내가 이곳에 있는걸 어떻게 알았니?》

순경은 동생의 출현이 놀라왔다.

《우리 중대장동지가 보냈어요.》

《?...》

《우리 중대장동지가 여기 3중대에서 있는 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가다가 누이를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 중대장동지는 누이한테 기타교측본과 중대예술소조공연자료들을 구해달라구 부탁했어요.》

순경은 그만 발끈하였다.

《애, 넌 말머리에 우리 중대장이란 소리를 붙이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누나, 왜 그래?》

동생의 휘둥그레진 눈을 마주보던 순경은 먼저 길가에서 물러났다.

《우리 저기 좀 가자.》

나무그늘이 시원스럽게 드리워진 안침진곳의 너럭바위에 오누이는 나란히 앉았다.

《순철아.너 군사복무를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게 아니냐?》

누이를 닮아 녀성적으로 곱게 쌍까풀진 동생의 큰눈이 더욱 휘둥그레졌다.

《밀두 끝두 없이 그건...》

어느새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귀가에 마주친다.

《지휘관을 존경하구 따르는건 좋은데 그렇다구 환상을 가지면 안돼, 자기 중대장을 완성된 인간처럼 취올리는것두 일종의 환상이야. 그것 근무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급기야 순경은 단김을 내뿜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사람을 어떻게 보구하는 소리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자한테 그런 말하는게 부끄럽지 않아요?》하고 후닥닥 일어섰다.

《됐다. 아니면 좋구, 어쨌든 너의 중대장은 이 누나한테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더구나. 그럴만한 내용이 있다. 똑박죄같은 그 사람이 나한테 기타교측본이요 예술공연자료요 하기전에 인사방법부터 배우라구 해라.》

순경은 무겁게 몸을 일으키고 동생과 헤어졌다.

그가 압축기실을 돌아가기전에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그자리에 파고세운듯 서있는 순철의 눈에서 물기같은것이 햇빛에 번뜩이였다.

그 모습이 본사로 돌아온 순경의 눈앞에 때없이 어려와 가슴을 아릿하게 휘젓군하였다. 참 한심두 하지. 오랍동생에게 어쩌서 살뜰한 말을 한 마디도 못해주었을까?

한주일후 순경은 동생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다.

《...누이는 아마 나한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못해주고 떠난것이 아직도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다심한 누님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그때 속이 없는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더 괴로웠을거예요.

그날은 <그럴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누이의 말에 대꾸를 못하였습시다만 오늘은 그 사연을 알았기에 말하렵니다.

우리 중대장동지가 가장 험오스러워하는것은 어떤 일이든지 대가만 바라며 새알만큼 일을 하고도 소문은 요란스레 내는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잡지 않은 착암기를 돌리며 전투지휘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니 그 깨끗한 마음속이 편안했겠습니까.

필요없는 말같지만 그때 착암기는 현장에 내려왔던 려단정치위원동지가 잡았고 중대장자신은 양수기를 보강하느라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총적으로는 기사내용에서 그만한 허구적인 일화가 큰 문제로 되지 않겠지요. 말그대로 긍정교양기사니까...

하지만 우리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량심에 티끌만한 가식이라도 비껴들면 참을수 없는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 누이는 기사를 쓰기전에 우리 중대장동지

의 그 결국한 마음속을 얼마큼 헤아려보았습니까?...》

무엇인가 둔중한것이 뒤덜미를 후려치는듯한 느낌에 순경은 흠칫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었다. 이어 모순되고 착잡한 생각들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면서 심중에 꾸역꾸역 엉켜들기 시작했다.

내가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하는 군인들의 마음을 과연 다 알고 글을 썼는가?

가늘게 떨리는 손이 편지의 다음장을 힘들게 번지였다.

《...며칠전, 누이와 헤어진지 이틀째 되는 날에 우리 작업조는 뜻밖에 무너져내린 돌사태로 막장에 갇히운적이 있었습니다. 린접구분대와 관통을 앞둔 때여서 현장을 떠나지 않던 중대장동지와 나를 포함한 스무명의 돌격대원들이였어요.

밖에서 결사적인 구조전투를 벌렸지만 워낙 큰 봉락구간이여서 사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열시간, 스무시간... 먹을것은 물론 공기마저 희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락심하거나 주저않지 않았습니 다. 안에는 착암기를 더 역세게 틀어잡고서 배 포유하게 굴진을 계속 내미는 중대장동지가 혁명 가요들을 선창하였고 밖에서는 미더운 동지들이 초인간적으로 봉락을 헤치면서 우리를 고무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황속에서 만약 중대장동지가 일순간이나 마 주저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대원들에게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안 일이지만 중대장동지는 그때 심한 위 경련을 앓고있었습니다.》

(!!...)

순경은 흐느끼듯 모두숨을 들이쉬며 몸을 일으켰다. 속눈썹은 어느사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엇걸은 팔로 누르면서 창가에 다가섰다. 생각깊은 눈길은 벌써 구름너머 멀리 동남쪽 하늘가를 더듬는다.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 차금석...)

확실히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지금껏 감수할수 없었던 고상한 정신세계가 우리 군인들을 키워주고있다. 한해전에 입대한 동생이 나도 놀랄정도로 식견이 높아지고 어른스러워진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롭고 서글픈 일이지만 순경은 차금석이라는 인간을 너무 몰랐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무엇으로 그의 깨끗한 량심에 생기를 더해주고 또 군모의 별을 더욱 빛나게 부각시켜줄가...

그는 뒤늦게나마 차금석중대장에 대한 취재의 길에 다시 올랐다. 그런데 이 취재길에서 엄청난

행운이 기다릴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림순경은 영광스럽게도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수행하게 되었던것이다.

...며칠전에 완공된 100 리물길굴은 아직도 불비한 구석들이 너무 많았다. 쉬임없이 배여나와 처뚱처뚱 떨어지는 석수, 우둘투둘한 바닥길, 뿌연 전등빛... 그속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끝없이 걷고계시였다. 더 가시면 위험하다고, 이젠 돌아가자고 안타까이 아뢰이던 수원들도 묵묵히 그이를 옹위하며 뒤따른다.

10 년전 그날 안변청년발전소를 몸소 발기하시고 군인건설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교시를 다시금 되새기시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숭엄한 빛이 어리였다. 그이의 몇보 뒤에서 걷고있던 림순경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느라 한손으로 입을 꼭 가리웠다. 발전소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그렇게도 고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완공된 발전소에 모시지 못했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랴!

문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눈길은 굴벽에 흰색으로 크게 써놓은 글발들에 가닿았다.

《조국이어! 우리를 믿고 마음껏 설계하라!》

주위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도간도간 울리는 석수소리만이 글발의 의미를 부각해주는듯 치뚱...치뚱...울리어온다.

《차금석동무.》

김정일 장군님께서 친근한 음성으로 부르시였다. 한옆에 비켜섰던 중대장이 그이께로 달려간다.

《동무네가 이 구간을 맡았됐구만.》

《옛,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쩐지 글씨체가 눈에 익더라 말이요.》

《?...》

순경은 물론이고 수원들모두가 놀란 눈빛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차금석중대장의 마디진 손을 이윽도록 쓰다듬으시다가 수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동무가 서해갑문건설때에도 중대선동원으로 일하면서 힘있는 구조를 많이 쓴 동무요. 그동안 손은 솔뚜정처럼 커지고 쇠판대기 한가지로 만만해졌지만 수령님께 기쁨드린 그 필체만은 여전히구만...》

하많은 사연이 함축된 말씀이었다.

차금석은 끝내 거울진 어깨를 떨며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애어린 병사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몸소 불러주시는 그 사려깊은 사랑에 목이 멘듯 꺾 꺾 소리를 냈다. 그는 날바다로 뻗어간 제방우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의 마

감느낌표를 찍다가 뒤에서 만족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보셨었다.

《어린 동무가 명필이구만!...》

아아! 호탕하게 웃으시며 치하해주시던 어버이 수령님! 그 우렁우렁하신 그리운 음성!...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전히 차금석의 손을 어루쓸며 굴벽의 글자들을 음미하신다.

《차동무, 힘들었지?》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이 담긴 말씀에 차금석은 물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을 번쩍 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힘든줄 몰랐습니다. 믿음을 하늘처럼 안고사는 전사에겐 세상에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음...힘든줄 몰랐다.》

저르기 격동되신 장군님께서 뒤집을 쥐시며 몇 걸음 옮기시다 다시 멈춰서신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단말이지!...고맙소. 동무가 나한테 큰힘을 안겨주는구만.》

그러시고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고맙소.정말 고맙소...조국은 동무들의 수고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यो.》

순간 요란한 박수소리가 물길굴을 들었다놓았다. 림순경은 취재수첩이 눈물로 화락 젖는줄도 모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끝없는 감격속에 우려했다.

서해갑문건설을 끝내고 잔물에 절은 배낭을 멘 채로 달려와 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10 년세월, 군인들이 천길땅속에 피와 땀으로 100 리물길굴을 어떻게 뚫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땅에 더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그 수고와 영웅적위훈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고 이렇듯 영광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시는것이다.

그이께서 혁명적군인정신의 선구자라고 높이 치하해주신 차금석은 행복의 최고절정에 오른 인간이었다.

운전사

(총련)서정인

수수한 로동자
나에게는 형님벌되는
조국에서 만난 운전사동지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사람

말도 행동에서도 틀차리지 않고
살뜰하게 대하여주는 너그러운 성품에
어느새 나까지도 한 직장의 사람처럼
어려움도 다 잊고 무릅없이 대하는데

말이 대학생이지
여기서는 철부지 우리 학생들
운전에 지장되는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수 적던 남학생들까지 그에게 바짝 붙으며
이상도 해라 입다물줄 모르고

이국에서 생긴 병을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완치한 학생
문병갔던 내 등너머로 누가 찾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저...오늘은 못오시나요? 우리 큰아버지는...》

아 얼마나 살뜰했으면 진정이 어렸으면

해외에서 나서 자란 우리 학생들
이다지도 따를가 흥금을 털어놓을가
이 땅이 그립던 조국이어서 그럴가
떨어져있는 친아버지 보고파서 이렇가

아니 글썄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아버이장군님 높이신 뜻 넘치는 사랑
하나라도 놓칠세라 고스란히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내 조국의 모든 동포들이
하나같이 장군님의 제자였구나

과연 그래 정말 그래
운전사동지의 언행에서 내 나라의 의지를 새기며
너희들은 친근한 어버이품을 느끼리
아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품을 그려보는것이여라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아저씨가 된
오늘은 모두가 혈육처럼 따르는 큰아버지는
장군님 손저으시며 부르는 한길을
이역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태워주고
웃음가득 새 세기로 줄곧 몰아가는
아버이장군님 몸소 보내주신 운전사동지사구나!

하루길에 대한 생각 외 1 편

오재신

회령땅-
어머님의 고향
처음 찾는 고장이 아니건만
울적마다 가슴은 뜨거움에 젖거니

내 떠나온 평양
거기서 예까진 렬차로 하루길
고향을 찾으시려던 어머님께서
뒤로 미루신 하루길

우리 수령님 안녕을 지켜
순간도 비울수 없는
친위전사의 위치
오늘도 어머님 그자리에 계시거니

후날로 미루신 그 하루가
천날만날로 이어져
우리의 세월은
그 하루로 흐르는것 아닌가

나서 자라신 고향이
그립고 그리울수록

수령님 가까이
언제나 그 고향을 두고 사시던
어머님 마음

수령님 안녕하셔야
조국도 있고
고향도 있다는것을
그 하루로 깨우쳐주시며
이 땅에 무궁한 세월을 안아오신
김정숙어머님

내 지금 회령땅에 서있어도
마음은 떠나온 수도의 역두에 선듯
영원히 줄지 않는 그 하루길은
그냥 내 앞에 남아있구나

충효의 한길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한길우에
이몸과 마음을 세워주며
그 하루길은 내앞에
억만리로 열려있구나

어머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어머님의 생신날 아침
회령, 고향도시는 명절입니다
꽃물결입니다
그 꽃바다속에 나는 지금
오산덕기슭에 서있습니다

군복차림이신 어머님 동상두리엔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꽃송이들
그 꽃송이들에 묻히우는 어머님의 군화
순간 가슴가득 차오르는 뜨거운 생각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처럼
피어린 결전의 길 넘으시며

그렇듯 멀고 험한 길 걸어왔으랴

설음 비낀 두만강물결우에 실린
자옥자옥이 눈앞에 어려웠습니다
백두광야 설한풍에 묻으신
그 자옥자옥이 다 떠올랐습니다

힘차게 내디디신 그 걸음에서
나는 다시한번 혁명의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준엄한 싸움길은 끝나지 않았다고
신들메를 더욱 조이라고
어머님의 높은 뜻 새겼습니다

-회령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최연경

오늘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힘차게 맥박치게 하는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현시기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다.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일심단결의 신념과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 정신의 최고발현이며 그 가장 빛나는 정화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자기 희생정신, 영웅적투쟁정신입니다.》

혁명적군인정신, 그것은 자기 수령, 자기 당을 결사옹위하고 자기 제도, 자기 인민을 목숨바쳐 지켜가는 절대적인 충실성, 무한한 헌신성의 가장 순결한 결정체이며 90년대 《고난의 행군》 정신의 최고발현이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100 리물길굴공사를 기어이 완성하고 거창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수행하는 위훈을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 개조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선 안변청년발전소는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건설한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위대한 창조물,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대기념비인 동시에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도와나선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90년대 조선의 자랑스러운 기적이다.

참으로 안변청년발전소는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조선인민군의 혁명적군인정신의 고귀한 산물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마땅히 인민군군인들이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영웅적인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이미 시대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창작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와 《너당원》, 《철의 신념》, 《뜨거운 심장》 등이 그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준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나라의 정세가 그처럼 복잡하고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 시기에 오로지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믿음을 드놓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 땅위에 천리마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영웅적인 강선로동계급에 대한 잊을수 없는 서사적화폭으로 주체문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와 《너당원》은 그러한 절대적인 충성의 신념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빈터우에서 위대한 생활을 건설하는 조선의 정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는 혁명정신의 교과서로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명작들과 함께 특히는 서정시 《백리물길이 끝난곳에서》(장혜명)를 비롯하여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노래한 시와 가사들은 혁명

적인 군인정신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은 나래치는 시대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의 숭고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명작을 당의 요구에 맞게 많이 내놓지 못하고있다.

그러면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혁명적군인정신이 힘차게 나래치는 현실생활속으로 문학의 형상명역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며 주제의 적극성을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90 년대의 《고난의 행군》 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가장 빛나게 발현된곳-안변 청년발전소건설장에 꽃피었던 영웅적인 생활을 훌륭히 반영하고 형상하기 위한다 창작적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과정에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으며 일찌기 인간의 자연개조력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었다.

높고 험한 산발과 골짜기 밑으로 형성한 《지하강》으로 오랜 세월 서해로만 흐르던 물줄기들을 한데 모아 동해로 뿜구는 거창한 공사, 불과 몇해 사이에 100 리 대형물길굴의 완공, 총작업량에 있어서 서해갑문건설때의 2배...이것은 실로 기적이라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는 설명할수 없는 위대한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력사와 더불어 자기 의지대로 자연을 길들여왔으나 이런 기적은 문명과 과학의 최전성기인 20 세기 말엽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의 상상조차 훨씬 초월한것이다.

이 과정에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혁명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었고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세인을 경탄시킨 이런 력사적사변들과 위훈의 창조자들을 빛나게 형상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며 소설로도 형상하고 시와 노래로도 형상하며 영화문학도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90 년대의 영웅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도 힘을 들여야 한다.

격변하는 정세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사실상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모든 장애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일념으로 역세계 투쟁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며 위훈을 떨치고있는 원산-금강산철길공사 참가자들의 자랑스런 모습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문학은 웅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나래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 90 년대의 기적과 위훈을 민감하게 형상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우리 문학은 어떤 주제, 어떤 주인공을 형상한 작품이든 그 모든 작품의 형상요소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력사물주제도 여기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우리 문학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게 하려면 다음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의 본질과 특징을 주인공의 성격에 진실하게,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체현시키는것이다.

우리 주인공들이 체현하여야 할 혁명적군인정신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다.

안변청년발전소, 그것은 말그대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쌓아올린 가장 순결하고 값높은 충효성의 결정체이며 우리 조국이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할 충효비이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은 《100 리물길굴을 완성하기전에는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오직 이 하나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억수로 쏟아지는 석수도 한몸으로 막았고 사태처럼 무너져내릴수 있는 봉락구간도 육탄이 되어 열어제끼면서 한치한치를 열어 무려 수만수천 메터의 작업경을 뚫고 100 리물길굴을 관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던것이다.

그들의 충실성에서 특징적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7련대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그대로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인민군건설자들은 쏟아지는 석수와 봉락구간들을 앞에 두고 1211 고지 전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을 다짐하여 충성의 맹세문을 썼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수송전사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방대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다주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높고 험한 령과 령으로 이어진 험준한 수송길, 너무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자동차도 눈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고산지대의 겨

울철, 것처럼 방대한 량의 물동을 실어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운행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수송전사들의 충성심에는 곡선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그들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라는 글발을 자동차마다에 써붙이고 한치한치의 수송길을 충성의 위훈으로 수놓아갔다.

이것은 진정 평화적건설력사에 기록된적 없는 초인간적인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충성심의 높은 경지가 있으며 영웅성이 있다.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실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것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정화를 이루고있다는데 있다.

안변청년발전소 건설력사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의 혼연일체의 력사이며 그것은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그대로의 가장 빛나는 축도이다.

우리 문학이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모습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원천을 이루고있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 령도의 현명성을 감동적으로 잘 보여주는것이다.

안변청년발전소, 이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며 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효성과 비범한 령도력,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아버지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변청년발전소 시찰과 군인건설자들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사랑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모르는 간고하고도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낼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신 10 뼛이 되는 뜻깊은 날에 몸소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100 리돌길굴에까지 들어가보시고 인민군군인들이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웠다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신 아버지장군님,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의 불멸의 위훈을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기 위하여 안변청년발전소 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1996년 7월 2일에는 전신명령까지 내리시여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감사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신명령은 일시에 세계를 놀래웠다.

원썬들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사령관명령이라면 사람들은 웅당 현정세에 상응한 긴박한 대응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신명령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명령, 믿음의 명령이었으며 위대한 령장과 장병들의 땀해야 땀수 없는 혼연일체의 모습을 파시한 특이한 명령이었다.

1996년 9월 15일 조업을 앞둔 안변청년발전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자랑스런 성과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수령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었다고 하신 그 뜨거운 말씀은 오늘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령장은 전자들에게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전사들은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혼연일체, 바로 이것이 조선의 기적의 원천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주인공들이 체현하여야 할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된 굴지의 동력기지인 안변청년발전소, 이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상징이다.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은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과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한편 대중의 힘과 지혜를 합쳐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건의 선진적인 공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사속도를 10배이상이나 끌어올렸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이신작칙함으로써 군인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킨것이다.

이 투쟁과정에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우리 식의 새로운 구령이 창조되었다.

우리 문학은 응당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인 지휘관들의 이신작작의 산 모범을 생동한 형상으로 훌륭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주인공들이 체현하여야 할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자기 희생정신, 영웅적투쟁정신이다.

인민군건설자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여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아름다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정책의 가장 견결한 옹호자일뿐아니라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그들은 자그마한 돌 하나만 다쳐도 버력이 삽시에 산더미처럼 내려췌이군하는 위험한 봉락구간에도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였고 갱이 삽시에 물에 잠길 때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물속에 뛰어들어 물구멍을 틀어막았다.

참으로 인적드물었던 심산계곡에 90 년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선 안변청년발전소의 구조물들과 설비마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뜨거운 피와 땀이 스며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전신명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투쟁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한한 자기 희생정신과 영웅적투쟁정신,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 군인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고결한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참된 애국을 떠난 충효란 있을수 없으며 자기 희생을 떠난 애국이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문학은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사랑의 정을 담아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희생된 전우들과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고결한 자기 희생정신을 조국과 후대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훌륭히 형상하는데 심혈을 바쳐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90 년대의 조선공산주의자의 참된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문학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

게 하려면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자신이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창작하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혁명적으로 살며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이 피끓는 심장을 다해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관관을 주는 문학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작가가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최대의 대자연개조물을 훌륭히 창조한 것처럼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명작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의도에 민감하며 그에 맞게 살며 창작하는것이며 특히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는 당의 의도를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의 의도에 맞게 창작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이와 함께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강행군을 벌려야 한다.

실력은 곧 창작적재능이며 창작적재능은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는 명작을 창작하려면 또한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으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으로 찾아들어가야 한다.

명작의 종자도 현실속에 있고 소재도 현실속에 있으며 세부도 또한 현실속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안변청년발전소 1 계단공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어렵고 방대한 2계단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체길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이 2계단공사로 들끓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들어가 군인건설자들과 생활과 투쟁을 함께 할때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영웅전사도 만나게 되고 세인을 경탄시킨 위대한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될것이며 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는 명작을 창작하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 시인들은 자신의 심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바쳐 90년대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땀의 호수

-안변청년발전소 호수가에서-

오병률

이것이
그 물이란 말이지
이것이 이것이
백리밖에서
흘러온... 흘러온...

호기심에 싸여
황홀함에 젖어
허리굽혀 살며시 줌안에 떠드니
순간, 찌르르 이 가슴을 녹이는것
아, 이것은 땀이 아닌가?!

그렇구나
이것은 물이 아닌 땀!
우리 병사들이
충효의 심장 합쳐 흘리고 흘린
진하디 진한 신념의 구슬땀!

뜨거웁다
해빛에 반짝이는 이 방울방울엔
착암기정날이 꺾일지언정
신념의 정대만은 꺾지 않은채
한치한치 땀으로 물길굴을 뚫고뚫던
군인들의 그 모습이 어려있고

조용히 흐느적이는 저 수면우엔
있어야 할 자재가 부족할 때에도
신념의 화약만은 부족할줄 몰라
불타는 의지로 언제를 높여가던
병사들의 그 기상이 비껴있나니

더 말해 무엇하랴
때없이 석수가 밀려올 때이면
어깨성을 쌓은 그 군상들이
물속에서도 땀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
이 언제가 다 말해주는데야

때없이 봉락이 생길 때이면
너나없이
한몸 서슴없이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하고
진격로를 열었다는 그 이야기
이 물길굴이 다 전해주는데야

아, 한목숨 언제로 굳어질지언정
청춘을 아낌없이 물길굴에 바칠지언정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불굴의 그 군인정신,

태일을 위한 오늘의 삶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이어갈
불타는 그 신념, 그 의지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켜
이렇듯 위대한 창조물을 낳았나니

그 길에 뿌린 충성의 땀
그 길에 스배인 효성의 그 구슬땀
합치면 호수를 이루고도 남으려니
병사들이 흘리고 흘린 그 땀을 어찌
이 언제의 물량보다 적다고 하랴

그렇다
대양에도 비길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충효의 그 구슬땀
그것이 언제로 물길굴로 되어
대인공호수가 산중에 펼쳐졌거늘

정녕
말없이 설레이는 이 호수는
장군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해갈
우리 군인들의 의지가 어린 땀의 호수
내 나라, 내 조국에 삼가 바치는
총천 병사들의 신념의 산아여라

금강산으로 가자

허창근

저녁이다.

기다려지는 저녁시간이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싱그러운 버들향기 목메게 풍겨들고 지척에서 어머니강 대동강이 불야성을 이룬 거리의 밤풍경을 담아실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가의 나의 집!

환한 형광등 불빛아래 구수한 냄새 풍기는 저녁상이 기다려주고 텔레비죤음악이 은은히 울리고...

일터로 학교로 하루동안 헤어져갔던 네식구가 모여앉아 제나름의 자랑거리를 펼쳐놓는 이 시간!

...중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금강산 답사권을 쥐고온것이다.

《학과경연에서 우수한 애들에게만 차례진 특전이에요! 래일 떠나요...》

딸애는 너무 좋아 저녁먹을 생각도 못한다.

아들애는 누나의 답사권을 뺏아쥐고 덩달아 기뻐하더니 그만 시무룩해진다.

그 심정이 리해된다. 그러나 서운해하는 그애의 기분조차 방안의 분위기를 더 밝게 채색하는 듯하다.

《아이구...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래 준비품은 무엇무엇 갖춰야 하니?》

준비품!

주부다운 안해의 물음이다.

내 무릎앞에 앉아 호들갑을 떨던 딸애가 문득 굳어진다.

《어마나, 어찌나...그건 그만...뭐라뭐라 대주긴 하던데...너무 좋은김에...》

《예구 애두...덜통하기란.》

심각해지는 제 어머니앞으로 다가앉으며 딸애가 무릎을 꿇어흔든다.

《일없어요. 어머니, 준비는 무슨 준비?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애애, 옛말에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네가 지금은 좋아하지만 정작 배가 고파봐라. 이제...》

어머니의 말에 딸애는 까르르 웃음을 터친다.

아들녀석도 히죽히죽한다.

안해도 다소 안도감이 담긴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나는 웃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다. 담배를 붙여물었다. 먼 창밖을 내다보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아버진 기쁘지 않나요?》

령리한 딸애가 나의 기분을 눈치챈듯하다.

《아니다. 나라고 왜... 그래 넌 무엇이 제일 기쁘냐?》

《무엇이 제일 기쁜가요?...》

내가 얼결에 한 그 질문에 딸애가 곱게 생긴 두 눈이 울롱해진다.

《아버지두 참... 내 시 한구절 읊겠어요.》

《??...》

딸애는 앓음새를 고쳐하며 턱을 쳐든다.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으리 ... 다른 나라 시인이 남긴 시예요. 알만해요?》

방안가득 웃음통이 터졌다.

《세상에 산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름을 네개씩이나 가지고있는 산은 금강산밖에 없다는걸 알고 있어요? 가을이면 산전체가 온통 단풍천지로 된 다해서 <풍악산>, 겨울이면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흰눈에 덮인 기묘한 바위들이 천태만상으로 드러나는지라 <개골산> ...여름이면 <봉래산>, 산이 금처럼 빛나고 굳다고 하여 <금강산>!...》

《허허허... 금강산에 대한 지식이 많구나..》

《이젠 만족해요?》

《아니다...》

나는 딸애를 조용히 불렀다. 무엇인가 꼭 말해 주지 않고서는 못견딜것이 있었던것이다.

《네 심정은 알만하다. 그런데 ... 너에게 부족 한것이 한가지 있다.》

의문담긴 세쌍의 눈이 줄곧 내 얼굴을 본다.

《다른건 몰라도 놓치지 말고 꼭 준비해가지고 가야 할것이 하나 있다.》

나는 금강산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깊이 미쳐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은 펍 오래전 대학시절 내가 첫 금강산답사에 갔을 때 일이다.

...구룡연폭포로 가는 날이다.

아홉마리 룡이 하늘로 솟구쳐오를 때 떨어져내린 비늘이 폭포수 되어 영원히 장쾌한 흐름을 이루었다는 구룡연폭포! 그 다음엔 하늘의 팔선녀가 내려와 미역을 감고 빨래를 하며 놀군했다는 상팔담에 오르게 된다.

구룡연으로 오르는 산골의 경치는 보는것마다 절경이어서 발을 떼기 바쁘게 한다.

계곡을 흐르는 수정같은 물, 조각가들이 깎아 세운듯한 기묘묘한 바위들...푸르싱싱한 숲, 숲

의 장엄한 설레임소리와 계곡의 물흐르는 소리가 어울려 정신을 떨떨하게 만든다.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히고 여기저기 올려다보면 바위는 바위마다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코끼리바위》, 《자라바위》… 못집승들도 대륙과 대양을 넘어 금강산구경을 왔다가 일만정치가 하도 황홀하여 떠날림을 못하고 영원히 바위에 굳어졌다는 전설!

조금후 골짜기의 물 한가운데 《5 선암》이라는 글이 새겨진 집체같은 바위가 나지였다.

금강산의 산, 나무, 물, 바람이 하도 아름답고 깨끗하여 다섯선녀가 내려와 놀군했다는 《5 선암》이다.

이 바위에는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1947년 가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후 처음으로 금강산에 오시였을 때였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도 함께 구룡연폭포로 가시게 되었다.

어머님의 기쁨은 흰구름처럼 피어올랐다.

항일전의 피어린 나날, 설한풍 세찬 백두밀림속에서 락엽을 이불삼아 쪽잠든 밤에도, 달빛 은은한 숙영의 한때 우등불가에서 《사향가》 조용히 부르실 때에도 언제나 그림던 조국의 명산 금강산이었다.

조국을 찾고 개선하면 아름다운 금강산에 꼭 선참으로 가보자고 녀대원들과 함께 희망넘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꿈을 키워오신 어머님이시였다.

그날이 왔다!

참으로 멀고도 험한 싸움길을 헤쳐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룩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여기 《5 선암》에까지 올라오시였다가 그만 되돌아서시였다. 구룡연폭포를 보시고싶은 마음은 하늘갈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점심진지를 준비하실 생각이 발목을 붙들었기때문이었다.

구룡연폭포 구경이 아무리 마음을 끌어당긴다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한 일에서는 티끌만한 빈구석도 허용할수 없는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아! 그런데… 어머님의 이 걸음이 옥류동굴안에 남기신 마지막 발자욱으로 될줄이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어머님께서서는 구룡연폭포에 다시 와보시지 못하고 다음다음해에 그만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스무해도 더 지난 1973년 어느날 금강산에 오시여 여기 옥류동굴안으로 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5 선암》을 조금 지나 《회상대》에 이르시여 옛일을 추억하시였다.

그렇게도 빨리 세상을 떠나실줄 알았더라면 그날에 구룡연폭포를 꼭 구경시킬걸 그랬다고, 그처럼 그리던 구룡연폭포를 끝내 한번도 보지 못하고 가시였다고…

정녕 어머님의 한생은 혁명을 위해 고스란히 바친 성스러운 한생이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진정다해 받들어모신 충성의 한생이었다.

하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직후 청진에 가계실 때에도 고향에도 그리운 고향 회령땅이 지척에 있었지만 오산덕의 정든 고향집으로 달리는 마음을 가슴속깊이 묻어두시고 수령님의 건국토선 실현을 위하여 부령과 고무산의 로동자들속에 먼저 들어가시였다.

그러시다나니 끝내 해방된 조국땅에서 고향땅으로 다시 가보지 못하시였다.

이 세상 좋은곳에 얼마든지 가보실수 있었건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 가신곳 너무도 많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 이어 해방된 이후에도 오직 하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혁명의 어머니!

…

나는 딸애에게 뜨거운 진정을 담아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애야, 금강산이 그토록 아름다운건 결코 산천경계가 기묘해서만이 아니라란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산천구경이나 하자고 금강산으로 가는게 아니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모시는 자기의 마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깨끗한 량심을 존경하는 어머님의 거룩한 뜻에 비추어보고 보석처럼 닦기 위해 가야 하는거다. 그러니 떠나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겠냐?》

《아버지!…》

딸애는 눈물이 글썽해서 갈린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은 그냥 진정되지 않고 울렁거린다.

대동강은 풍만한 물결우에 수도의 행복을 담아 싣고 끝없이 흐른다.

하늘에도 수억만 별들이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듯 쉬임없이 반짝인다.

나는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을 터쳐 현란하게 빛나는 무수한 창문들을 향해 웨치고싶다.

《사람들이여, 우리가 누리는 세상만복이 어떤 마음에 받들리어 꽃피났는가를 순간도 잊지 마시라!》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는 땅

-안변청년발전소를 찾아서-

최정남

우리는 얼마전 우리 인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과 유훈이 현실로 꽃피난 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깃들어있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안변청년발전소를 찾아 떠났다.

걸음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고난의 행군》길에 오른 우리 조국에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가져온 안변청년발전소의 완공, 온 나라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이 위대한 승리를 전승의 축하처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았으며 오늘도 그 감격과 영광으로 가슴들먹이고있다.

지난 7월 2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전신명령을 하달하시여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이 세계적인 대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완공하였다는것을 선포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가슴속에 가득차있는것은 또한 무엇인가...

속보판앞에서

《아!!-》

안변청년발전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터져 나온 우리의 첫 탄성이였다.

지금껏 말로만 해오던 우리 조국의 막강한 힘을 우리는 여기서 보았고 글로만 써오던 우리 시대의 벽찬 숨결과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느꼈던 것이다. 안변청년발전소는 그야말로 오늘의 조선의 위용과 기상이 내려치는 시대의 축도였다.

희양과 고산 그리고 안변의 높고 험한 산악들, 이 일대의 흐르는 강물의 깊이로 전혀 표상을

가질수 없는 대형물길굴이 100리나 뻗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으랴.

정말 상상만 해도 경탄할 일이었다.

이 엄청난 공사를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해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우리는 어서 빨리 그들을 만나보고싶었다.

공사지휘부로 들어서던 우리는 줄지어 늘어선 대형속보판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발걸음을 뗄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알고싶어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묻고싶어하던 여기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심장으로 웨치던 그날의 목소리가 그대로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조업의 그날 영광의 대오에 몇몇이 서자!》

《죽어서도 갱밖에 나갈수 없다!》

《오늘의 하루를 월미도의 3일처럼!》

《조국이며, 우리를 믿고 마음껏 설계하라!》

...

이 글발들에서 우리는 100리물길굴속에 찍혀진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의 자욱자욱을 더듬을수 있었고 온몸에 새겨넣을수 있었다.

...드세차던 착암기의 동음을 누르며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던 지휘관의 열띤 얼굴, 격렬한 돌격전을 앞두고 굴벽에 써놓으면 인차 세멘트혼합물에 씻기고 자욱한 물안개에 가리워 희미해지는 《당앞에 결의한 전투과제를 수행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라는 글발을 다시금 심장으로 새기던 애어린 군인건설자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그 눈빛, 사정없이 밀려드는 물이 키를 넘자 배를 굴속으로 끌어들여 배와 떼목우에서 착암기를 돌리고 정대로 《우리가 쓰러져도 붉은기는 앞으로!》라는 구호를 한자한자 쪼아박으며 단 1분 1초도 공사속도를 늦출줄 몰랐던 전투장...

이곳 군인건설자들이 금시 심장의 합창으로 웨치는것만 같아 광광 가슴을 울려주는 이 글발속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으며 명령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군인정신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던것이다.

그것은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파업도 해내고야마는 강의한 혁명정신이었고 최고사령관의 명령, 당의 결심이라면 억천만번 죽더라도 무

조건 관철해야 하며 또 한다는 절대성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담력과 배짱이었다.

조정지언제로 가는 길에서

《야!!-》

소소리높은 산봉우리의 수백미터높이에서 락차를 얻는 그 장쾌한 광경과 현대적인 발전소를 본 우리의 놀라움이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이 이렇게도 큰가?!

수수천년 서해로만 흐르던 수많은 물줄기들을 휘잡아돌려 대인공 《지하강》을 형성하고 그 물길을 동해로 뿔구어 전기를 생산하는 세상에 보기도 못한 우리 식의 안변청년발전소.

우리는 여기서 군인건설자들을 만나보았다.

너무도 평범하고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는 우리의 미더운 군인건설자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자의 희열과 긍지, 자랑이 가득 어려있었다.

영웅적투쟁의 흔적이 아직도 력연한 구리빛얼굴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한 군인건설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배낭을 푼것은 1986년 여름이었습니다. 해발 천여메터의 험준한 산밭들과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수림속...

바로 이런곳에 우리는 첫 착공의 삽을 박았습니다.》

공사는 첫시작부터 난관을 동반했다. 천연바위를 뚫으며 얼마간 전진하면 강줄기같은 물이 터져 삽시에 갯을 메웠고 봉락구간이 너무도 많아 한메터를 전진하는데도 술한 시간과 로력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더욱 신심에 넘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과감한 전투를 벌려 100리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갔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결음을 옮기고 하나의 구조물을 보고도 발전소건설에 스민 군인건설자들의 고귀한 밤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자력갱생의 무쇠주먹으로 온갖 난관을 뚫고 나가며 대자연을 길들인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

그들은 당과 수령의 지시와 명령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어떻게 자기를 바쳐야 하는가를 실천적방법으로 보여준 수령의 참된 전사, 조국의 장한

아들이였다.

그러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그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그리도 대견하시여 지난 9월 15일 조업을 앞둔 안변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였던것이다.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바쁘신 시간을 또다시 내시여 안변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였으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도 군인건설자들의 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하였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람찬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군민호》발전기를 보아주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발전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잘 만들었으며 군인건설자들이 발전소건물도 만년대계로 훌륭히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던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공을 앞둔 이곳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높이 평가해주시고 친히 보아주신 현대적인 《군민호》발전기를 비롯한 여러 발전설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본후 이곳 지휘관의 안내를 받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두차례나 다녀가신 조정지언제로 향하였다.

발전소에서 조정지언제까지는 10여리가 넘는 험한 길이었다. 좁은 도로를 따라 얼마간 지나면 우물구불한 산골짜기로 들어선다. 그 길을 지나야 조정지언제로 올라갈수 있었다.

이런 길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수수한 야전용승용차를 타시고 몸소 오르시였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신 모든것을 현실로 꽃피우실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발전소 건설장의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극한 효성과 불멸불후의 로고가 헤아려져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제가 가까와올수록 여기에 오르시여 하늘높이 솟아오른 언제와 대인공호수로 전변된 저수지를 부감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자랑찬 성과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수령님의 소원을 또하나 풀어드리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우렁치 안겨오는것이였다.

우리는 안내해주던 지휘관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간고한 전투의 그 모든 나날들에 언제나 우리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계시였으며 저희들은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온갖 시련을 뚫고나갔습니다.》

공사가 제일 어려웠던 추운 겨울날에도 군인건설자들에게 친히 비행기까지 띄워 신선한 남방과 일도 보내주시고 또 은정어린 선물까지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

언제나 우리 인민군인건설자들을 잊지 않고 시고 그들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시며 영원히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전체 인민군인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최고사령관은 전사들을 굳게 믿고 전사들은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고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이 불패의 혼연일체가 바로 안변청년발전소를 만년대제로 일떠세운 위력한 힘이였다는것을.

못잊을 그 이야기는 우리의 눈굽을 적시었다. 달아오른 우리의 마음인가 발걸음은 빨라졌다.

조정지언제에서

《정말 대단하구나!!》

두 산허리를 편결한 조정지언제.

푸른 물줄기가 쉬임없이 뿜어져나오는 100리물길의 방출구.

천지조화의 힘으로 산밑이 통채로 뚫린것 같은 거창한 취수구.

수려한 풍치를 자아내며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

그야말로 대자연의 다스려 장엄하게 일떠세운 90년대의 기적이었다. 이것은 붉은기를 펴벌 날리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쳐물리치면서 굴함없이 나가는 사회주의조선, 싸우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과시한 위대한 창조물이었다.

보면 볼수록 온몸에 산악같은 힘이 용솟고 온갖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이 더욱 커지게 하는 안변청년발전소였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은 세찬 폭우가 쏟아지던 1996년 6월 10일이였다.

오전 8시 30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수한 야전용승용차를 타시고 소문없이 안변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찬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높고 험한 조정지언제에 오르시여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거연히 솟아오른 언제와 우람한 취수구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자신께서는 비를 맞으시면서도 군인건설자들이

비를 맞을가봐 마음을 쓰시며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큰일을 했다고 이것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창조물이라고 것처럼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몸소 옷자락을 적시시며 100리물길굴의 아득한 깊이에까지 들어가시여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찾아 보아주시고 당의 요구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군인건설자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개울물소리만 들리던 한적한 심심산골에 대기념비적언제가 하늘높이 솟아올랐다고, 그들의 자랑찬 위훈은 조국청사에게 길이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한없이 인자하시고 뜨거운 정 넘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안을 목가까이 뵈오며 우리 군인건설자들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과 기쁨속에 휩싸였던가.

그 한순간을 위해 살며 싸워온 군인건설자들이였다.

우리는 여기서 보았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원천은 곧 우리 장군님의 사상이며 이 정신의 높이는 곧 우리 장군님의 신념의 높이라는것을.

이제 세월이 흘러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은 여기 와서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야기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시대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었고 자기 조국과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기약하며 높이 솟은 안변청년발전소!

우리는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비상한 영웅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우리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을 안고 조정지언제를 내렸다.

지금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전투장을 향해 떠나간다. 조국에 커다란 창조물을 안겨주고 기쁨에 웃는 인민의 모습을 뒤에 남겨두고 색바랜 배낭과 군복을 입은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이...

이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또다시 조국의 기념비적창조물이 솟아오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질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확신하며 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안변청년발전소를 떠났다.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안았던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들이었음을.

나는 어째서 명작으로 될만한 소설을 창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제목을 달아놓고보니 비관글의 서두처럼 공식적인 느낌이 들어 몇번씩이나 그어버렸다가 그대로 두었다.

명작으로 불리울만한 소설을 창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부족점을 돌이켜보는것이 이 연단의 주되는 내용인것만큼 제목에서부터 나의 의도를 명백하게 밝히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첫 소설을 내놓은 때로부터 거의 스무해가 되어온다.

그동안 중편소설이요 단편소설이요 하면서 여러편의 소설을 창작해보느라고 했고 요즈음엔 제만의 야심을 가지고 장편소설초고를 써놓았다.

하지만 내놓고 자랑할만한 작품이 없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명작을 내놓는데 나는 어째서 명작을 창작하지 못하고있는가?

이 죄의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받아안던 때 더욱 더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현시기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어떤것이며 우리 작가들이 명작창작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서는 창작실천성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명작을 창작하지 못하는 리유의 하나가 실력이 모자라는데 있음을 직감하였다.

소설가의 실력이라고 하면 대체로 구성이나 묘사력을 두고 론하여왔다.

구성력이 소설작품의 이야기꾸밈과 그 흐름을 흥미있고 용이하게 만드는 실력이라면 묘사력은 형상을 얼마나 생동하고 진실하게 창조하는가 하는 실력, 주로는 문장력을 위주로 론의하는 실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소설가들과 평론가들이 소설작품을 놓고 평가도 하고 론쟁도 하였기때문에 반복하고싶은 생각이 없다.

나에게는 구성력도 모자라고 묘사력도 부족하지만 그것말고도 약점이 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으며 품을 적게 들고고도 쉽게 발표할수 있는 소설을 창작하려고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지 않고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없습니다. 사색하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것, 이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습성으로 되여야 합니다.》

소설가의 사색은 작품을 이루고있는 매 글줄과 표현마다에 그대로 반영된다.

사색을 게을리하면서 쉽게 발표하여 편수나 채우기 위해 붓을 든 작가의 작품은 읽기조차 지루하며 옮겨두고싶어지는 문장 하나 고르기 힘들다.

작가는 철학적이며 예술적인것이 하나로 융합된 사색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과 생활을 해부하여 시대의 한복판을 꿰지르는 사상을 발견해야 하며 그러한 사상을 지닌 시대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의 요구, 인민의 지향을 상식으로 전달하는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시대와 혁명이 바라는바를 자기 생활의 사활적이며 본능적인 요구로 받아들인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중세소설들의 주인공들인 온달, 홍길동, 춘향 등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데 하물며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작가들이 쓴 작품의 주인공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기억속에 희미해져서야 되겠는가.

이미 문학사에 기록되여 전해지고있는 천리마 시대의 현실주체 단편소설들인 《길동무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백일홍》, 《령북땅》과 같은 주인공들과 그 생활들은 30 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힘이 생기고 참된 삶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옹호심이 솟구친다.

그런데 내가 창작한 작품의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들에는 그런 견인력이 없다.

그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당의 요구, 시대생활의 본질을 형상에 구현하려는 창작적사색과 노력이 없이 발표만을 목적으로 쉽게 써버렸기때문이다.

둘러보면 이런 결합이 나에게만 있는것 같지도 않다.

한때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노동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노동계급의 힘찬 형상을 창조하여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지만 지금은 열정이 식어 력사책을 뒤지면서 작품의 소재를 《사냥》하려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시대의 변두리를 감돌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인물들의 세태적인 생활을 《흥미있게》 엮어 쉽사리 명예를 낚아보려는 작가도 있는것 같다.

한편 새 세대 젊은 소설가들속에서는 애당초 현실주제탐구를 외면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전쟁터를 상상하면서 손끝재간을 부려 소설을 꾸며내려는 경향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편소설, 벽소설이 시대정신을 기동성있게 전투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좋은 형태인것만큼 그것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설가들은 장중편형식의 소설을 써야 얻는것도 많다고 하면서 단편소설창작을 외면하고있는 현상도 있다.

무엇인가 차례지는 뭉에 목표를 주고있다면 굳이 힘들고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소설창작을 생의 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창작이 아니라 다른 일에 몸잡고그 거기에 창작에서 소비해야 할 정력을 기울이면 《일확천금》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며 인민들의 사상정신적양양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작품을 순수 직업적의무감에 못이겨 대충 써낼바

에는 소설창작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것이 훨씬 유익할것이다.

사회와 인민 앞에 새롭고 쓸모 있는 창조물을 내놓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는것은 명백히 아까운 생의 낭비이며 자기자신과 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그러고보면 나는 정말 아까운 시간을 너무도 많이 낭비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창작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혁명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작가로서 나의 삶은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없을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당의 요구, 인민의 지향을 나의 생명,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과 생활에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대하며 자기 주인공을 두고, 자기가 쓰는 작품의 매 문장과 표현을 두고 깊이 사색하면서 창작하는 작가가 되겠다.

또한 오늘의 정세와 난관에 대처하여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오늘의 시대상을 기동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단편소설을 창작하는데 창작적사색을 집중시켜나가겠다.

당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창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자라난 작가라 할수 있으랴.

사상도, 감정도, 문체와 표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만들기 위해 현실을 연구하고 사색하고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과 그 생활은 앞으로 거대한 가치를 가진 명작의 예술적형상으로 되어 독자들앞에 나타날것이며 길이 전해질것이다.

강선규

눈물젖은 숲

(중국) 림원춘

(전호에서 계속)

남편은 지금 어디 가게실가? 저녁 자셨을가?
이불도 없이 차디찬 밖에서 어떻게 주무실가?
접동-접동-

접동새 우는 소리가 뿔창을 두드렸다. 옥설이는 지난 늦가을 이 집에서 첫밤을 새우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저녁에도 저 접동새소리가 옥설이의 아픈 가슴을 허비지 않았던가! 옥설이는 지금의 스스로가 마치 그날 저녁의 자기처럼 생각되었다. 저 구슬픈 접동새소리처럼 지금의 옥설이도 눈물에 떠있었던것이다.

누렁이는 왜 짓지도 않을까? 개짓는 소리만 들려도 들리운 마음이 가라앉으려만.

옥설의 앞에 이끼덮인 통나무가 이리저리 누워있고 나무가지들이 열기설기 얹혀있는 수림속을 헤가르며 험뻑험뻑 걸어가는 남편이 나타났다. 굵은 비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아름다리나무밑에서 언 켜기밥을 자시는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다. 구레나룻에 서리가 하얗게 낀채 새우등처럼 허리를 까부리고 진대나무옆에서 잠든 남편이 나타나기도 하고...

옥설이는 그날 저녁처럼 잠들수 없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더는 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제결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버리고 버르면서 긴긴 밤을 한입한입 깨물어먹었다.

옥설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것이 그렇듯 바쁘고 힘든줄 이때까지 모르고있었다. 사람이 그토록 그리운것도 몰랐고 고독과 적막이 그토록 괴롭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옥설이는 몰라보리만치 수척해지기 시작했다. 입맛을 잃고 끼니를 건너지우는 때가 많았다. 할머니가 끓여다주는 생선국이요, 꿩국이요 하는 산증진미도 옥설의 입에서는 빛을 잃고 맛을 잃고있었다.

옛새만에 영철이 돌아오자 웃으며 반겨맞아야 할 옥설인 그간 겪은 진곡에 설음부터 앞서면서 남편의 품에 안겨 영영 울기만 했다. 자기를 더는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버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그날저녁부터 원체 말수적던 영철이는 더욱 파묵해지고말았다. 무언가 시름에 겨워 한숨을 쉴 줄 쉬면서 영영 웃음을 거두고말았다.

며칠 지나 영철이는 또 떠날 차비를 하기 시작

했다. 미대에 쌀을 담아넣는다, 총을 검사한다, 담배를 련이어 붙여문다. ...

《또 떠나시겠어요?》

《떠나야지.》

《그럼 저도 따라가겠어요!》

단호한 옥설의 말에 영철이는 피우던 담배꽂초를 책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꼭 가겠어요!》

《빼쳐내지 못할 몸을 가지고-》

《당신만 곁에 있으면 겁날것 없어요!》

《들놀이를 가는줄 아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기다리는 고생보다 낫겠지요.》

《내 언녕 말하지 않았소? 후회할거라구...》

《후회해서 그러는줄 아세요? 당신이 그리워서 그래요! 사람기다리는 고생 막고생이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이제 떠난걸 또 후회하게 될지요.》

《제발 빌어요. 절 꼭 데려가주세요. 빈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기로 당신앞에서 죽기만 못해요!》

옥설이는 그에 떠날 차비를 했다. 로동복이며 모자며 운동화며 집에 홀로 있을 때 이미 준비해뒀던것이다. 그녀는 시집을 때 갖고왔던 등산용 멜가방에다 켜기밥, 닭은 콩, 닭은 쌀, 겨임을 남편의 옷과 자기의 옷가지들을 꾸동쳐넣고 술병과 말리워 구워뒀던 이면수와 산천어도 비닐천에 둘둘 말아 집어넣었다.

《어때요? 거뜬한 행장이지요?》

옥설이는 하얀 세수수건을 목에 두르고 로동수갑을 끼면서 영철이 앞에 차렷자세를 취하면서 웃었다.

《웃다 울지 않나보요.》

영철이는 어이없어 히죽이 웃어보이며 멜가방을 나꿔쳤다. 그는 차지 않아 후줄근한 멜가방에 제가 메였던 미대를 더 걸어넣고 어깨에 걸면서 말했다.

《울긴요?》

《후회할거요.》

《천만에요.》

옥설이는 뿔듯이 기뻐다. 남편과 처음으로 동행한다는 그 기꺼움과 미지의 세계를 구경한다는 그 흥분때문에 기분 좋았다. 영철이는 알맞춤한 지평이를 만들어 옥설에게 쥐어주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부족한데없나 살펴보고서야 시

름놓고 돌아서는것이였다.

《누렁이야!》

남편이 황둥개를 부르며 문을 나서자 누렁이가 꼬리를 지으며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정의 길에 올랐다.

수림속에 들어서자 영철의 기분상태는 이상하리만치 달라졌다. 확확 성수나게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나무작대기로 삭정이를 툭툭 치기도 하면서 마음 거뜬히 앞에서 걷고있었다. 그 거동을 보자 옥설의 머리에는 산귀신이라던 할머니의 말쑤이 떠올랐다. 남편은 확실히 나무와 함께 사는 사람이였다.

옥설이는 마치 신희려행이라도 떠나는 그런 마음이였다. 남편과 함께 밀림을 지켜나선 산지기가 아니라 어텐가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감이 고쾌했다. 등산용멜가방을 메고 휘파람을 불며 씨엥씨엥 앞서가는 남편의 뒤모습도 보기 멋들어졌거니와 비릿한 맛을 주는 진동나무속 습한 대기도 좋았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떠나지 않은것을 몹시 후회했다. 누구도 들을수 없고 남편만 들을수 있는 수림의 바다에서 우아하고 장쾌한 멜로디를 남편에게 들려주고싶었다. 그러면 남편은 너울너울 춤을 출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 꽃! 여보세요 저 꽃을 보세요!》

옥설이는 채 녹지 않은 음달 얼음우에 노랗게 핀 꽃을 보고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녀는 천진한 소년처럼 뚱뚱 뛰어갔다.

《얼음우에 꽃이 피다니요?》

옥설이는 꽃 한줄을 뜯어쥐고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종알거렸다.

《그러다간 하루 십리길도 조이지 못하겠소.》

《닷새를 열흘로 늦추면 안되나요?》

《이제 발버둥치지 않나 보오.》

《미안 천만!》

옥설이는 머리를 가우뚱해보이며 꽃을 낀 손을 흔들었다. 애기로 되고싶고 철부지로 되고싶은 마음이였다. 대자연의 모든것을 독차지하고 시름없이 뛰어다니고싶었다.

《그렇게 산천경개를 구경하다간 한밤중에도 숙영지에 당도 못하겠소.》

영철이 길을 재촉했다.

등성이에 오르니 봇나무가 짝 들어선 활엽수림대가 나타났다. 드문드문 샛솔이 박혀있어 하얀 바탕에 푸른 물감을 푹푹 찍어놓은것 같은 이 천연적인 유화는 개활지처럼 산우에 누워있었다.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맛을 주겠지만 분칠을 한것 같은 하얀 살결에 얼룩을 남길까 저어되어 감히 만질수 없는 봇나무숲, 그 숲이 평평집한 등성이를 깔고 무연히 뻗어있었다.

옥설이는 울바자처럼 막아선 그 숲을 보고 손벽까지 쳐대며 감탄사를 뽑아냈다.

《이것 보오, 곰이 방금 지나갔소.》

영철이가 방금 뒤번쳐진 진대나무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뭘요?》

옥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곰이란놈이 그 둔한 대가리를 가지고도 어물쩍한 궁리를 한다니까. 진대나무밑에는 보통 불개미굴이 많은데 이 힘장수는 몇아름씩되는 진대나무를 번저놓고 게축이 흐르는 허를 개미둥지에 빼대거든. 개미들이 먹을것이 생겼다고 얼싸 좋다 곰의 허에 바라오르면 곰이란놈은 허를 훌쩍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하면서 개미들을 삼킨단말이요.》

《그 육중한놈이 개미를 잡아먹어요?》

《개미잡이능수라오.》

《이 진대나무도 곰이 번진건가요?》

《그렇소. 방금 번졌소. 이것보오, 아직도 불개미들이 바글거리지 않소?》

《그럼 곰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겠군요.》

옥설이는 겁에 질려 남편의 겨드랑이밑에 기여들며 소리질렀다.

《집낼것 없소. 큰 짐승들은 놀래우거나 해치지만 않으면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으니까.》

영철이는 옥설의 허리를 꼭 껴다가 풀어놓으며 병글썩 웃었다.

《산에 오니 당신은 탄 사람으로 변한것 같아요.》

《산에 사는 사람 산에 마음을 두니까.》

그들은 손목을 잡고 숲을 헤치기 시작했다. 참수수께끼같은 숲이였다. 곰이란놈이 개미를 잡아 먹다니? 밥알같은 개미로 언제 배를 채운담? 옥설이에게서는 모든것이 새롭고 모든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샘터에서 그들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바위 밑뿌리에서 모래알을 굴리고 새우를 놀리면서 뽕뽕 솟는 웅달샘은 이뿌리가 쨍쨍 저려나도록 시원하고 차가웠다.

그들이 한창 췌기밥을 먹는데 나무가지를 와작와작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요란한 소리는 그들과 여러발자국 사이를 두고 떡 멎었다. 몇십마리 되는 못사슴떼가 대가리를 피득 쳐들고 그들과 마주 서있었다. 눈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쏟아져나왔다.

《아유-》

옥설이 췌기밥을 먹다 말고 영철의 어깨를 틀어잡으며 소리쳤다.

그 순간, 사슴떼는 후닥닥 샘물터 등성이를 향해 내뛰었다. 기름이 번지르르 도는 울긋불긋한

동작을 자랑하면서 쟁충쟁충 그 무성한 나무속을 용케도 빠져나갔다. 사슴무리는 삽시간에 없어지고말았다.

《우리가 먼저 차지해서 미안하게 됐는걸?》

《아유 간 떨어지겠는데 미안하더니요?》

《사슴들이 물먹으러 왔는데 낮모를 손님이 떡 차지했으니 그래 미안하게 되잖았소?》

《몽땅 사슴인가요?》

《이 장백의 밀림엔 저런 사슴떼가 얼마나 모르오. 몽땅 보배로 들어왔더니까.》

《당신 진짜 산귀신이에요. 호호호.》

《이제 옥설이까지 산귀신으로 만들테요.》

《달갑게 접수!》

옥설이는 영철의 구레나룻에 뺨하고 입을 맞추며 만족스레 웃었다.

샘터에서 대충 쥬기밥으로 요기한 그들은 오후에도 내쳐 걸어야만 했다. 영철이는 약초와 부대를 파먹는 산장이들과 도벌, 란벌하는 골사람들, 자연화제가 일어날수 있는 강대들에 눈을 박으며 앞길을 줄이려고 부지런히 발놀림했다. 하지만 옥설이는 갈수록 뒤가 처지면서 점점 발이 무거워나기 시작했다. 제 발이 그토록 무거워보이는 난생 처음이었다. 립산마을에 첫걸음을 디딜 때는 발이 부르터 걷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발이 무거워 걸을수 없었다. 그래도 영철이는 힘들지 않는가 하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옥설이는 그러는 남편이 섭섭했고 어땠가 패씸스럽기까지 했다.

그녀는 지쳤다. 하지만 영철이는 쉬자는 말 한마디 없이 발이 푹푹 빠지는 부식토를 밟으며 수격수격 걷기만 했다. 처음에 그렇듯 흡인력을 갖고있던 수림속도 그녀에겐 점차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이끼덮인 진대, 껌질이 몽땅 벗겨진 강대, 발목까지 빠지는 부식토, 습개관, 비릿한 공기... 그저 그러루했다. 가도가도 그이상 새롭게 안겨오는것은 없었다.

《우린 어디서 자나요?》

해가 서쪽으로 너물너불하자 급시에 불안해지면서 옥설이 힘겨운 다리를 끌며 물었다.

《가보면 알게 될거요.》

《좀 쉬었다 가자요.》

영철이는 대대대신 지팡이 한끝을 내밀었다. 옥설이 웬 영문인지 몰라 남편의 기색만 살폈다.

《잡소!》

옥설이 지팡이끝을 잡자 영철이는 힘주어 끌면서 옥설이를 달고 계속 앞으로만 걸었다.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첫 숙영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 때였다. 숙영지라야 땅에 거의 누울사한 통나무 량견에 장대건 나무가지건 할것 없이 통나무를 의지해서 비스듬히 세워놓고 풀단을 이영처럼 엮은, 모진

비거나 바람을 대충 막을사한 《보금자리》였다.

옥설이는 막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아유- 나 죽네요.》

《그 소리는 며칠후에 해야 하는데...》

영철이는 멜가방과 보총을 벗어놓고 골짜기로 내려가더니 빈 물통에 샘물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다.

《자, 저녁 먹지요.》

《미안하지만 꺼내주세요. 전 움싸달싸 못하거든요.》

영철이는 멜가방을 풀고 쥬기밥과 술병 그리고 비닐천에 싼 구운 이면수와 산천어 고기를 꺼냈다.

《몹시 바쁘오?》

《바빠요.》

영철이는 옥설이를 안아일으켜 자기 가슴에 끼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이니 바쁠거요.》

《여보세요.》

옥설이는 자기를 던져버릴상을 하면서 위안의 말 한마디 없이 길만 재촉하던 남편에 대한 고가움이 스프르 녹아내리면서 고여오르는 그 뜨끈뜨끈한 눈물을 남편의 털부숭이볼에 대구 매질하며 영철의 목을 짹 끼안았다.

《철부지처럼 눈물은?》

《목석!》

옥설이는 종주먹을 쥐고 남편의 가슴을 다듬이질하기 시작했다.

《이거 살이나겠다. 허허허.》

《죽이겠어요. 죽이고말겠어요. 호호호.》

귀동냥하는이 없고 눈파는이 없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둘은 마음껏 끌어안고 웃어댔다.

《한잔 할가?》

《술로 로독을 푼다면서요?》

영철이는 병채로 술 한모금 꿀꺽하고는 그 병을 옥설이앞에 내밀며 말했다. 옥설이도 술 한모금냈다. 그녀는 남편이 넘겨주는 구운 이면수고기를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며 행복에 겨워 웃었다. 집에서 단들이 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보다 한결 맛나는 음식이었다. 어쩐지 들놀이를 나왔다가 먹는 음식같았다.

첫날 로정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튿날부터는 완전히 짜증나는 길이었다. 싱그럽던 공기도 퀴퀴한 냄새로 들어찬것 같았고 창공을 꿰지른 홍송도 마당앞에 서있는 백양나무처럼 보였다. 어느 하나도 신비롭게 느껴지는것이 없었다. 아니 이젠 보기만 해도 역겨웠다.

옥설이는 찍하면 역증부터 앞세웠다. 《아니 결사관 살피도 봐야지요?, 《남의 다리는 뭐 무쇠로 빚었는줄 아세요?》, 《왜 그리 인정머리 없어

요?》, 《안해를 산에 묻고 갑셈인가요?》, 성이 마디마디에 깔린 이러루한 말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쏟아지곤 했다.

날이 바뀔수록 옥설의 걸음은 떠졌고 신경질만 늘어갔다. 마지막엔 영철에게 업히우다싶이 매달려걸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다나니 대엿새면 마무리지를 로정을 여드레만에야 끝맺었다.

집에 돌아온 옥설이는 끝내 자리에 눕고말았다.

3

간밤에 비의 세례를 받은 림산마을은 수림의 태질에 이리 끈지우고 저리 끈지우다가 겨우 기둥뿌리를 빼우지 않고 형체만을 보존하고있다가 새벽녘에야 단잠에 들어 코를 썹썹 끌고있었다.

나는 강가로 나섰다. 새벽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림해의 입김처럼 산발을 삼키고 수림을 메우면서 몽롱한 안개는 그 거창한 록색세계를 한 품에 안아버렸다.

나는 안개에 묻힌채 강가 돌우에 앉아있었다. 발밑에서 석가울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옥설의 말을 다듬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들려주던 옥설의 말은 헤칠수 없는 이 새벽안개처럼 내 머리에 무독히 차올랐다.

옥설이는 귀틀집 집지킴도 할수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을 따라 산을 둘수도 없었다. 떠나보낸 남편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쥘는 그 무료하고 적막한 나날들을 생각만 해도 삼복철 나무숲속처럼 답답했다. 남편을 따라 나서는 일은 더더욱 소름끼쳤다. 통통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진대를 가로라고 넘던 그 지긋지긋한 로정, 폭폭 빠지는 썩은 검불무데기, 마른 나무잎들을 덮고 이발을 덜덜 쪼으며 자며말며 하던 숙영지의 로천잠자리, 오늘도 나무, 래일도 나무, 나무발속을 누비던 지루하고 짜증나는 림대...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이발에 신물이 돌았다.

《여보세요, 무슨 방법이나 방책을 대야지 않겠어요?》

《뭘 말이요?》

《그래 그냥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나요?》

모르쇠는 대는 남편을 보며 사람이 어찌면 저토록 야속하고 안해 귀한줄 모를가 하는 섭섭한 생각을 깨물며 옥설이 꼬집었다.

《갈라져 살다니?》

《한해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몇날이나 돼요?》

《림업로동자들속에는 몇년씩 갈라져있는 사람이 무수한데 몇달을 가지고 앙탈을 부리다니 원-》

《도대체 당신 마음속엔 안해가 있나요 없나

요?》

《뭘라고?》

《말해 봐요. 나무가 중한가요, 안해가 중한가요?》

옥설이는 참고참아오던 분통을 터치고야말았다. 눈물로 지새운 밤 몇달며칠이었던가!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코밀에 떨어졌는데도 남편은 산에만 정신을 팔고있으니 남편의 가슴속에 차지고있는 옥설의 자리가 몇뼘기가 된단말인가! 옥설이는 더는 참을수 없었다.

《내가 뭘했소? 꼭 후회할거라구...》

《뭘래요?》

《아직 늦지 않았소.》

영철이는 《에잇》하고 구들장이 울리도록 부르친 주먹을 콕 내리박았다.

《그래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인가요?》

《더 할 말이 없소.》

《가라면 못갈줄 아세요.》

《옥설인 산에 묻혀있기엔 너무나 아까와. 너무나 이뻐!》

영철이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뜨덤뜨덤 말했다. 태양열이 불끈불끈 튀고 구레나룻이 실룩거리는 걸 보면 영철의 가슴에 들어앉은 불몽치가 얼마나 큰것인지 옥설이는 대뜸 짐작할수 있었다. 남편은 산사람들만의 그 참을성으로 부글거리는 가슴을 달래고있었다.

《제발, 제발 빌어요. 우리 이 고장을 떠나자요.》

옥설이는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을 왈칵 쏟으며 기대에 찬 눈길을 남편에게 돌렸다.

《내라고 뭘 옥설일 고생시키고싶어서 이러는줄 알아?》

《알고있어요. 흑흑...》

《가라구. 그 고운 얼굴에 주름살을 그어주고싶잖아. 마음에 얼룩점을 넘겨주기도 싫구. 날라구 훨훨 날아가라구.》

《여보세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산에 붙은 내 마음 옥설의 얼굴이거나 마음을 가지구는 뭘것 같잖아.》

《이제 오래잖으면 당신은 애아버지로 될거예요. 그래 자식마저 산귀신으로 만들셈인가요?》

《알고있어, 알고있다구! 자식의 장래도 알리구.》

《당신은 마음이 너무나 비단같아요. 너무나 끈구요.》

《아니야. 울울창창한 장백의 림해를 지켜간다는 자랑만 해두 나는 가슴이 빠곤해! 옥설이, 옥설인 수리개가 아니야. 비둘기야 비둘기!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시내로 날아가!》

《내가 뭘 당신이 미워서 이러는줄 아세요?》

《할수없어. 다 알구있다구. 내가 옥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것이, 아니 들어줄수 없는것이

유감일뿐이야, 나는 신문에 실린것처럼 그런 영웅이거나 모범인물이 아니야. 공산당원두 아니구, 나는 보통 백성이야! 단란한 가정두 꾸리구싶구 자식두 보구싶어. 하지만 단 한가지 장백에 묻은 내 마음만은 나로서는 어쩔수 없어! 용서하라구.»

영철이는 밖에 나가더니 물이 들가말가한 머루가 담긴 다래끼를 들고 들어왔다. 옥설이 좋아한다고 산에 갔다올 때마다 한다래끼씩 따다주는 머루였다. 움에 두었다가 끼마다 시원하고 시큼시큼한 머루를 소리없이 갖다주고는 소리없이 훌쩍 떠나는 남편이었다.

어쩔수 없는 남편이었다. 안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그 안해를 떼치우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남편이었다. 둘 다 갖고싶으면서도 둘 다 가질수 없어 모대기는 남편이었다. 그러니 남편의 마음인들 오죽하랴!

옥설이는 남편과 옥신각신한 뒤끝엔 언제나 후회와 자책으로 제 마음을 사정없이 후려치곤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훌쩍 떠나버린 다음엔 고독과 적막이라는 장막속에 제 몸을 파묻어버리고 뒹굴고 발버둥질치고 통곡하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그에 떠나버리겠다고, 같이 살겠으면 산지기를 내쳐버리라고 최후통첩을 내리리라 다지곤했다. 그러다가 정작 남편이 앞에 나타나고 보면 버리고 버리던 최후통첩은 커녕 극상 말한다는것이 방법을 대라는 그 한마디였다. 이렇게 떠나보내며 기다리며 싸우며 이때까지 달을 넘기고 날을 번진 옥설이었다.

오늘 옥설이는 진짜 떠날 차비를 했다. 이렇게 더는 살수 없었다. 사람사는곳에 사람이 있어야 했고 곁이 있어야 했다. 그녀는 빨아 다리미질한 남편의 옷들을 차곡차곡 개여 농작속에 넣고 남편이 자실 미시가루와 닦은 쌀을 마련해놓은 다음 쪽지 한장을 남겨놓았다.

여보세요. 당신 몰래 떠난다고 나무람 말아주세요. 저는 더는 참을수 없어요. 당신이 미워서 떠나는 제가 아니예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안해로 살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1974. 9. 14
당신의 옥설이로부터

옥설이는 떠났다. 산에서 돌아와 빈 집에서 쪽지를 보며 한숨을 푹푹 싹 남편을 생각하며 떠났다. 그 누구도 모르게 갑작같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뒤편부터 머리를 내민 뿔뿔들이 운해에 뜬 료선처럼 휘우뚱휘우뚱 잠겼다 솟았다 하면서 점차 그 거대한 물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안개는 산허리를 감고 그 물그물 기여가다가 들쭉날쭉한 산봉우리에 토막

토막 몸뚱이를 잘리운채 하얀 꼬리를 끌며 험뻑 험뻑 맥없이 산밭을 타기 시작했다. 하얗고 파란 세계, 이것이 안개 흐르는 림산마을의 아침이었다.

림산마을은 몸에 묻은 먼지를 툭, 털어버리고 정결한 몸매, 깨끗한 옷단장을 하고 새날을 맞았다.

나는 참참하게 이슬맞은 몸을 쪽 펴고 내가에 내려섰다. 지난밤 큰비에 내 고향 구수하갯으면 흙탕물을 텅기며 큰물이 젖으련만 이곳 심산의 석개울은 물색같이 뽀얗스름하게 변했을뿐 물이 불은것이 눈에 띄게 알리지 않았다.

나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옥설이네 집쪽으로 돌려졌다. 어서 빨리 옥설의 말을 마저 듣고싶은 궁금중때문이었으리. 아니 눈물을 짜며 집체호로 내려갈 때의 그 가냘픈 옥설이가 아니라 풀냄새를 확확 풍기는 싱그러운 숲의 녀인으로 변한 옥설의 그 싱싱함에서였을것이다.

생각밖으로 옥설이는 낡은 보충을 꼭 껴안고 눈물을 떨구고있었다. 총신에 얼굴을 꼭 대고 손잡이를 싹싹 어루만지면서 하염없이 울고있었다. 바이올린을 켤 때 눈물꽃을 보이고는 그 어려운 역경속에서 겪은 수난사를 말할 때도 눈물흔적을 남기지 않던 옥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옥설이는 모이고 감추었던 그 눈물을 거침없이 쏟고있었다.

《웬 일이요?》

옥설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물기에 젖은 그의 눈길은 애상에 잠겨있었다. 언제나 웃음만을 알고 화기에 넘치던 눈이었다. 남성적인 담대성, 푸르른 산기운이 넘치던 눈이었다. 비애와 슬픔을 담아본것 같지 않던 그 눈에 눈물을 고이다니?

《래일부터 이 총을 더는 다시 뗄수 없게 되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백두산림업국전람관에 이 총을 진렬한대요.》

《잘 된 일인데 눈물은?》

《전... 전 이 총과 한시도 떨어질수 없어요...》

옥설이는 집을 뛰쳐나간지 한달만에 되돌아오고말았다. 영영 발길을 끊으리라던 진동나무속 림산마을 네호동네로 발걸음을 돌리고말았다. 낯익은 고장이면서도 서먹서먹한 고장- 귀틀집들이 꺼져내리는 산마을로 발을 들여놓고말았다.

내가에 이르자 인츰 그녀를 반겨준것이 누렁이었다. 누렁이는 옥설이를 보자 꼬리를 저으며 침병침병 개울을 건너와 그녀의 치마자락에 뽕뽕 매달렸다. 고장은 정을 떼갔어도 황둥개만은 정을 묻혀주고있었다.

《제시는구나.》

누렁이를 보자 남편을 본듯 반가웠다. 옥설이는 텅텅텅텅 제정신없이 징검다리를 넘어서었다.

어쩐지 남편이 자기가 돌아올걸 손꼽아 기다릴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산에 갔으면 어쩌랴 싶던 그 근심을 더는 참나 그대신 나타나는 조금증이 그녀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주고있었다. 누렁이가 집에 있으니 남편도 있을것이었다.

《왔구만!》

영철이 부엌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좋은지 곳은지 가릴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옥설이만을 지켜볼뿐이었다.

《그간 고생 많았지요.》

《나야 뭐...》

그제야 영철이는 어줍게 벌쭉 웃으며 옥설이 들고있는 가방을 받았다.

《많이 축갔군요.》

달포 쾄한 새에 영철의 얼굴은 꺼칠해졌었다. 옥설이 그렇거니 하고 봐서 그런것이 아니라 영철이는 확실히 눈에 나게 관골이 푹 튀어나와있었다. 물맛을 본지 오랜듯 머리카락이 부연 먼지를 들쓰고있었고 구레나룻도 칼구경을 해본것 같지 않게 랑볼을 텃수룩이 덮고있었다.

《길에서 고생하지 않았소?》

《집떠난 사람이 고생하지 않을리 있나요?》

《꼭 울거라고 믿었소.》

《홀애비로 될 생각은 안하구요?》

《옥설에겐 후회밖에 없으니까 그걸 믿었지.》

《영영 오지 않을가 했었어요.》

《후회하지는 않고?》

《무뚝뚝이!》

옥설이는 영철의 목을 안고 그 꺾꺾하면서도 부들부들한 구레나룻에 제 볼을 대고 비비면서 말했다.

《아무리 그런 쪽지만 남겨놓고 훌쩍 떠나는법 어데 있어?》

영철이도 옥설이를 한껏 껴안으면서 곱게 나무랐다.

《이번에 제가 좋은 소식 갖고왔어요. 싸수가 있으니 돌아왔지 돌아올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생파부로 늙자고 찾아오겠어요?》

《비슷한 말이요. 그런데 그 소식이라는건?》

《굶길셈인가요? 요기나 하고 말할테니 저녁 끓이자요. 아유- 이제 뭐나요? 내가 없으니 집안이 통 말이 아니군요. 이 집에 처음 들어설 때와 신통히도 똑같군요.》

그제야 영철이는 옥설이를 잡았던 팔을 풀면서 부엌에 내려섰다. 옥설이가 들어서니 집안에 대뜸 화기가 돌았다. 영철의 기분상태도 이만저만 아니였다. 영철이는 부엌에 불을 박아질러놓고는 밖에 나가서 부서리를 맞아 까맣게 익은 머루와 이면수썸을 들고들어왔다.

《웁에 넣어두구 이제나저제나 하구 기다렸댔소.》

《저도 좋은 선물 가져왔어요.》

옥설이 가방에서 병술을 꺼냈다.

《비슷한데?》

영철이 병글썈했다.

영철의 말따파나 그날저녁은 정말 비슷했다. 한달만에 먹어보는 저녁이건만 몇년만에 먹어보는 음식처럼 별미였다. 거기에다 주홍까지 도도하다보니 마음도 등실 배도 등실 만포식이였다.

《싸수가 생겼다는건 뭐요?》

영철이 불깃불깃해서 술잔을 들며 물었다.

《당신이 림업국으로 전근하게 됐어요.》

《뭐라오?》

영철이 술잔을 입술에 댄채 마시지도 떼지도 않고 옥설이를 쳐다봤다.

《전근시키겠대요.》

옥설이는 남편의 기색은 살피지 않고 제 좋은 멧에 흥타령이였다.

《림업국을 찾아갔댔소?》

《찾아가지 않고 누가 그저 해준대요? 십년나마 산지기질 했겠다 모범이겠다 신문에까지 났겠다 뭐가 부족해서 림업국으로 못갈가요?》

《그걸 턱대고 떼질썸단 그 말이지?》

남편의 말이 거칠어지고 눈길이 곱지 않았다. 옥설이는 대뜸 시큼시큼한 맛을 느꼈다. 하지만 이걸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기회였다. 이 기회만 놓친다면 옥설인 영영 산귀신으로 되고말것이다. 옥설이는 전처럼 낙낙하게 굵어들거나 지고 싶지 않았다.

《떼질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 못들었어요? 당신을 국에 전근시키지 않으면 리혼하겠다고 당금 리혼소개장을 떼달라고 뻔쳤지요.》

《잘했소, 영웅이구먼?》

영철이의 눈초리가 점점 까칠해나기 시작했다. 옥설이는 남편의 눈초리가 떨리는 그 미묘한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 한뼘 진대처럼 술에 묻혀 살려니 했어요? 안해 살피도 보고 앞으로 자식처지도 생각해오지요.》

《도대체 당신이 전근하오? 내가 전근하오?》

영철이는 안주도 접지 않고 련속 잔을 곱냈다. 그의 눈이 게슴츠레해졌다.

《당신과 나를 떼놓고 말할수 있나요?》

《나와 상론도 없이 국을 찾아가다니? 답도 이만저만 아니구만. 내가 언녕 말하지 않았소? 나는 이 수림을 떠나서는 못산다구.》

《거기 가셔도 나무와 씨름할 판인데 왜 이래요?》

《거기는 시내지 림해가 아니야!》

영철이는 저녁상을 쾄 내리치며 옥설이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빈잔에 술을 따랐다. 술병을 쾄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면 정말 리혼하는수밖에 없어요.》

《후회없도록!》

영철이는 술을 쪽 내고 손등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자리를 일었다. 그는 벽에 걸린 털외투를 벗겼다.

《어데 가세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다면 이 주먹이 내 마음을 어길거야!》

《어쩌문 그리도 야속한가요. 흑흑...》

영철이는 옥설이가 울건말건 울음소리를 등뒤에 남기고 문을 나섰다.

《말라버린 강대! 으흐흑...》

옥설이는 악에 받쳐 소리치면서 서럽게 흐느꼈다. 한심한 남편이었다. 안해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는 남편이었다. 옥설이는 흐느끼다 흐느끼다 머리를 들었을 때에야 집안에 홀로 있다는걸 새삼스레 느꼈다. 이 집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에도 남편은 옥설이를 홀로 남겨놓고 털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가! 옥설이는 울다지쳐서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이튿날 영철이는 레외없이 머리와 옷에 지푸라기를 달고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외투를 벗어 구들에 던지고 부엌에 앉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른 장작개비에 불이 달리자 그는 씹지를 꺼내어 담배를 붙여무는것이였다. 한대두대 담배불이 꺼지기전에 담배를 말아서는 련속 태웠다.

그 담배질에서 옥설이는 남편이 산으로 떠나는 날이라는걸 알았다. 영철이는 머리를 수긋하고 한숨만 풀풀 쉬고있었다. 그 한숨소리에서 옥설이는 남편의 기분상태가 빙점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저러다가도 이제 밀림속에 들어서기만 하면 남편의 입에서는 휘-휘- 휘파람소리가 흘러나올거야, 옥설이는 수림속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정서가 바뀌어지던 남편을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국으로 떠나오. 전근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구, 전근령이 내려도 가지 않겠더라구 말해주오! 그리구...》

영철이는 보충을 메고 노루가죽집 사냥칼을 허리에 차며 말했다.

《그리구는 뭔가요?》

옥설이 술병과 안주감을 보에 싸며 남편을 쳐다봤다.

《그리구...》

영철이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옥설이를 내려다볼뿐 말을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검스레 변하면서 더욱 침울해졌다.

《그리구 갔다가 오면 좋구 오지 않는대도 옥설일 탓하지 않겠소.》

《뭐요? 다시 말해봐요. 방금 뭐랬어요?》

옥설의 손에서 술병이 든 보자기가 탕 하고 구들에 떨어졌다.

《후회없도록!》

영철이는 바당문을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 옥설인 혼나간 사람처럼 구들우에 멍하니 서있었다.

여기까지 말한 옥설이는 비오듯 눈물을 찼찼 흘리며 보충을 짹 잡고 눈물에 젖은 불을 총대에 엮는것이였다. 옥설의 눈물이 총박죽에 똑똑 떨어지면서 꽃살을 그렸다.

《오늘 망원초 구경시켜준다지 않았겠소?》

《오, 그만 잊을뻔했어요.》

《거기에 비석이 서있다면서?》

《주인집 나그네가 말하던가요?》

《아니, 립산작업소 주임에게서 들었소.》

《그럼 다 알겠구만요.》

《아니요. 옥설이가 말한 절반도 안되오.》

《좋아요. 아침식사하고 떠날 차비를 하세요.》

옥설이는 보충을 조심스레 벽에다 걸어놓고 보고 또 보았다.

나는 일어서서 벽에 걸린 보충과 바이올린을 벗겨들었다.

《다 갖고 가세요.》

옥설이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4

안개걸린 립산마을의 아침은 활기에 차넘치고 있었다. 남골에 자리잡은 저목장에서는 트럭에 나무를 싣느라고 기중기들이 나무를 달고 팔을 휘젓고 새로 뺀 신작로엔 홍송백송을 만재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달리고있었다. 어덴가 먼 밀림속에선 겨울에 벌목한 나무들을 끌어 내리느라 프락트르가 툽툽거리고 고함소리와 웃음소리가 산밭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전모를 눌러쓴 립업로동자들을 실은 트럭이 저목장쪽으로 달리고 낮을 멘 아낙네들이 갓총채를 거뜬히 하고 산에 오르고있었다. 사람마다 드바삐 제 일터를 찾아가는 들끓는 립산마을의 빼근한 아침이였다.

나는 보충을 메고 내가 립산마을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 빨간 점이 언뜰언뜰하던 그 숲속길로 옥설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바이올린을 메고 노루가죽집 단도를 허리에 지른 옥설이는 막대기로 풀잎에 앉은 이슬을 툽툽 털며 씨엥씨엥 잘도 걸었다.

아침해살이 숲속을 비집고 들어와 이파리우의 이슬방울을 달달 굴리고 그때마다 이슬방울은 못 견디겠다는듯 마구 뒹굴며 반디불처럼 반짝거렸다. 어둑어둑하고 무시무시하다싶은 수림속에서 그 발광체는 흩어진 구슬처럼 뒹놀고있었다. 송진에 절은 싱그러운 대기, 아름다리 소나무, 그밑에서 키돋움하는 애솔, 아름답찬 몸통을 안고 넘어진 진대... 수림속은 말그대로 동화세계였다.

산길은 꽤나 가파로왔다. 나무숲이 하늘을 가리워 얼마나 높은지 얼마를 걸어야 할지 모를 길로 험뎡험뎡 툇기만 했다.

《쉬어갈까요?》

앞서오르던 옥설이 진대나무를 눈짓하며 물었다.

《숨 좀 돌리지요.》

나는 다짜고짜 진대나무에 몸을 실었다.

《아직 습관되지 않아 그래요. 나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옥설이 목에 둘러던 수건을 나에게 건네며 나무에 걸터앉았다.

어데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내가 처음으로 남편을 따라 숲속을 들어선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있는 이 길이었어요.》

《정말 그때 그 전근수속은 어떻게 됐소?》

《당자가 나눴는데 뭇턱이 있어요?》

《옥설인 가만있구?》

《가만있다니요? …》

더는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옥설

옥설이는 차디찬 쪽지 한장을 남겨놓고 옷가지가 든 들가방과 바이올린을 메고 립산마을을 떠났다.

그후로부터 그녀는 눈치밥을 먹으면서 본가집에서 끼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가집 끼살이가 남의 집 끼살이를 찢쳐먹는다고 올케의 눈치밥은 쌀알마다 가시가 돋쳐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이었으니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옥설이는 영뎡이를 불일 자리가 없었을것이다.

그해 겨울에 옥설이는 달덩이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 한장 하지 않았다. 몇번이나 붓을 들었다가도 눈물로 종이에 얼룩이를 만들고 붓을 던져버린 그녀였다.

옥설이 해산한지 보름만에 생각났던 영철이 가시집 문고리를 쥐었다. 개털모자를 꼭 눌러쓰고 짐바를 해서 큼직한 마대를 걸머지고 옥설의 앞에 나타났다.

《이 사람, 알고 찾아왔나?》

옥설 어머니가 사위를 알아보고 허겁지겁 마당에 내려서면서 반겼다.

《뭘 말입니까?》

《애비라는게 푹푹하기두 아들을 낳았네, 아들을 낳았어!》

《네?》

《얼른 신을 벗고 방에 올라가보게. 자넨 꼭 났었다니까. 호호…》

정지에서 오가는 말을 듣고있는 옥설이는 눈물부터 앞섰다. 반갑기도 하고 알뜰기도 한 남편이었다. 언녕 찾아올게지 이제야 찾는단 말인가?

눈치밥은 얼마나 먹고 눈물은 얼마나 떨구었다고?

보름되도록 애에게 이름 한자 달아주지 못했는데 흑흑…

미담이가 드르륵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공기가 휩 일면서 구레나룻이 나타났다. 옥설이는 눈물을 단채 남편을 피끗 쳐다보고는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간 참아왔던 설음이 북받치면서 목구멍을 막았던것이다. 영철이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옥설이만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얼어지듯 애한테 가 무릎을 꿇더니 두팔을 톱 질고 잠자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때뻬이도 못한 애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푹푹 떨어졌다. 애기가 놀라서 《응아-》 하며 울어댔다. 그래도 각지센 사나이는 애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옥설이는 그때에야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모르는 남자라고, 눈물이 없는 남자라고 여겨온 옥설이었다. 그래서 오는 정 가는 정 모르는 남편이라고 얼마나 탓했던가! 그런 남편이 지금 소리없이 눈물을 떨구고있다. 옥설이는 그 눈물에 뼈까지 녹아나는것 같았다.

《돌아가기우. 리아바이네랑 형님네랑 옥설일 기다리고있소.》

영철이 옥설이를 쳐다보며 간절히 말했다.

《꼭지 못봤어요?》

《봤소. 그래서 감히 찾아오지 못했소. 이번에도 버르구 버르다가 만삭이 된것 같아서…》

《계속 생파부로 만들셈인가요?》

《그건… 헤잇!》

영철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구들을 탕 하고 내리쳤다. 그는 청명경이나 머리를 떨구고있다가 호주머니를 들추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몸두 보신하구 애에게 옷두 지어입히우.》

영철이는 봉투를 애 머리맡에 놓고 어깨가 처져서 일어섰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일어서나?》

옥설 어머니가 사위의 외투자락을 잡으며 소리쳤다.

《가야지우.》

《아니 가시집에 왔다가 술 한잔 마시지 않고 떠나는 법 어데 있나?》

《이 마대에 얼겨뒀던 메돼지고기와 노루고기 그리구 얼음구멍을 뚫고 잡은 이면수가 있습니다.

몸보신시켜주십시우.》

영철이는 채 녹지 않은 찢찢한 솜신에 발을 꿰면서 풀이 죽어 말했다.

《애에게 이름 한자 남기지 않고 떠나는 아버지가 어데 있어요?》

옥설이는 미담이를 열고 정지에 나서며 소리쳤다.

《…》

영철이는 가시어머니가 곁에 있건말건 옥설이

를 거뜰 안아서 애들처럼 빙빙 돌렸다.

《당신은 강대야 강대!》

옥설이 남편의 목을 안고 너럭바위같은 영철의 가슴에 낫을 물었다.

《지금 우리 마을은 굉장해. 겨울부터 목재판이 벌어지면서 사람들로 바글거려. 우리 나무가 은을 내고있어, 은을 내고있다니까. 하하하.》

《산귀신!》

옥설이는 된 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에 아지랑이 피어오를 때 옥동자를 업고 림산마을에 나타났다. 림산마을은 높고있었다. 벽돌집을 얹히느라 벽돌, 기와, 세멘트, 강재를 실은 자동차가 실새없이 들이밀고 목재를 만재한 트럭들이 꼬리물고 쏟아져나왔다. 기계의 동음이 수천년 잠자던 원시림을 깨쳤다. 잠자던 림산마을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앉았다.

《어유, 이녀석 이젠 해죽해죽 웃는구나.》

옥설이 들어서자 영철이 애부터 받아안으며 벌쭉벌쭉했다.

《아버지 소릴 듣기 부끄럽지 않아요?》

《잘나도 내 랑군, 못나도 내 랑군,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 이 녀석 안그래?》

영철이 애의 볼에 털부숭이 제 얼굴을 대고 비비며 노래가락처럼 뽑았다.

《남편구실 애비구실 못하면서 자식 귀한줄 아나보네요.》

《이녀석, 네가 애비를 닮았다면 에미 말 듣지 말구 이다음 커서 산지기를 해 응? 어 이것봐 이녀석 웃네? 옳지 그래그래, 어화둥둥...》

《애비아들 신통하네요. 호호.》

옥설이 남편을 곱게 흘기며 웃었다.

《여보, 당신 좋아할 일 생겼소.》

《뭔데요?》

《래일 내가 마지막으루 산을 돌아보게 될거야.》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앞산에 망원초가 섰어! 이젠 망원초에서 망을 보게 됐다니까.》

《정말이세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던?》

《아잇 좋아라!》

《그래도 난 섭섭한걸? 산사람은 산발을 모르고는 못하는데 온종일 그 다락같은데 올라가 할일 없이 어떻게 있나말이야.》

《전 큰 시름 덜었어요. 사람 그리운것도 그리운거겠지만 당신을 산으로 보낸 마음엔 자꾸 못된 생각만 들면서 한시도 마음놓을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것이 내게는 되려 고충이야!》

《복을 복으로 모르는 강대! 호호호.》

옥설이 남편과 애를 열싸안았다.

《오 또 있소. 국에서 당신을 정식 림업로동자로 받는다는 통지가 왔소.》

《정말인가요?》

옥설이 믿기 어려웠다. 고독과 적막을 찾아 사회를 회피했고 그 고독과 적막이 준 고통때문에 본가로 도망쳤던 자기와 같은 녀인을 림업로동자로 받아주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이번 로동자모집에서 하향지식청년을 우선 돌보라는 정책이 내려왔대유.》

《아유, 저같은 녀인도 사람이라는 소릴 들을 때가 있군요.》

옥설의 눈에 흥건히 눈물이 고여올랐다.

이튿날 아침 영철이는 종전대로 미대, 보충, 노루가죽집단도... 그의 길동무로 댔던 모든 행장을 갖춰가지고 길에 나섰다.

《갓고 가세요.》

옥설이 술병과 안주감이 든 구역을 남편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번 걸음은 팔자늘어지게 됐군.》

《될수록이면 빨리 돌아오세요.》

《이녀석은 자나? 오, 웃는구나. 이녀석, 너도 아버지처럼 삼림지기로 돼야 해! 알겠나.》

영철이는 살이 보득이 올라 볼우물을 짓는 아들의 볼따구니를 쥐고 흔들며 만족스레 웃었다.

《당신을 꼭 물고 게웠어요.》

《이녀석 세대는 행복할거야. 나처럼 산을 게바라다니지두 않을거구. 자, 누렁이야 가자!》

황둥개가 눈치채고 꼬리를 저으며 앞서걸었다.

《기다리게 말고 빨리 오세요!》

남편은 손을 흔들어보이며 길을 떠났다.

옥설이는 애를 안은채 개울가까지 따라나가며 마지막 출장길에 나선 남편을 바랬다. 남편의 그림자가 숲속에 사라지자 그녀의 두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어쩐지 시집온 이튿날 남편을 바래던 그런 허수하고 애바른 심정이었다.

《산에 나선 사람 눈물로 바래지 않는다구 내가 몇번이나 말했나?》

어느샌가 리아바이가 곁에 와 옥설이를 내려다보며 나무랐다.

《저-너무 기뻐서 그래요.》

옥설이 얼른 눈물을 닦으며 얼굴에 고추물을 올렸다.

《저 사람은 수리개야. 수리개는 산을 떠나 못살아.》

《오늘 마지막으로 산을 돌아본대요.》

《알구있네. 마지막이지. 다음부터는 망원초에 갇혀있겠으니 수리개가 조롱속에 든 격이야.》

《저는 이때까지 남편을 잘 모르고있었었어요.》

《마음이 산을 떠나있었으니까.》

《남편의 가슴속에 가마치만 없혀줬어요.》

《영철이 자네와 결혼한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자네 모를거요. 모두 자네를 생각해서였네. 남편 구실 못하면서 자네를 데려다 고생만 시킨다구 마음은 얼마나 썩어구 한숨은 얼마나 쉬었다구? 자네가 본가로 훌쩍 떠난 그 반년새에 영철이는 집에서 하루밤도 자본것 같지 않네. 산에서 살다 싫이 했으니까.》

《알고있어요.》

《자네도 이제 수리개로 되나보네. 허허허. 이 녀석 보게나. 눈이 부리부리한게 신통히도 제 아비를 닮은것이 틀림없는 수리개야. 허허허.》

리아바이가 눈이 또릿또릿해서 쳐다보는 애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떼면서 걸걸하게 웃었다.

이튿날부터 옥설이는 애를 할머니네 집에 맡겨 놓고 지목장나무림방수를 채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날부터 옥설이는 더는 고독을 몰랐다. 그녀는 하냥 기쁘기만 했다. 일터도 즐거웠고 살붙이를 끼고있는 밤도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영원히 그리움을 모르고 살겠으니 앞날을 생각해도 가슴뚫듯했다. 남편이 산을 떠난지 사흘만에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면서 눈풍설이 훑날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장백의 꽃샘이었다.

눈풍설은 하루밤사이에 푸른 림해를 하얀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눈이 무릎을 넘었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은지 밀구멍빠진 하늘은 그 이튿날에도 계속 눈을 쏟고있었다.

《이 사람 소식 없지?》

리아바이가 옥설이네 문을 때고 들어서며 근심스레 물었다.

《없어요.》

남편근심에 장밤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옥설이 풀기없이 대답했다.

《누렁이도 오지 않구?》

옥설이 머리만 흔들었다.

《이 사람 어찌된 일이나? 급하면 누렁이라도 보낼텐데...》

《무사한가요?》

《눈이 오니 숙영지에 박혀있을거네. 근심말게.》

리아바이는 옥설이를 안심시키느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담배불을 바로 붙이지 못하고 떠는 품세를 보면 속이 여간만 얼어있지 않았다.

《혹시 그러다...》

《근심말라니까. 산사람 눈에 막히는 때가 한두번인줄 아나? 예잇 눈두 곰찍스럼기두... 소식있으면 알리게.》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도 산에 간 사람은 종무속이었다. 일주일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림산마을은 발끈 뒤집혔다. 직승비행기가 오고 젊은이들로 긴급구급대가 무어졌다.

하지만 망망한 림해설원에서 어데 가 사람을 찾는단말인가?

옥설이는 지쳤다. 눈물도 말라버리고 목이 막혀 통곡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절반 미쳐있었

다. 조금만 자취소리가 나도 《여보세요.》하면서 맨발바람으로 문을 박치르고 나가 눈에 덮인 먼산을 멍하니 쳐다보곤했다. 쪽잠이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옆을 지켜선 할머니보고 《오셨어요. 그이가 오셨어요!》하고 헛소리를 치곤 했다.

영철이 집을 떠난지 열이틀되는 날 아침 무언가 옥설이네 바당문을 뽐뽐 긁고있었다.

《누렁이!》

옥설이 젓먹는 애를 내동댕이치다싶이 내려놓고 바당문을 열었다. 누렁이가 킁킁거리며 옥설의 치마폭에 매달렸다.

《누렁이야 주인은?》

누렁이는 한창 킁킁거리다가 제 죽그릇에 남긴 죽을 훌쩍거리며 정신없이 파먹는것이였다.

《누렁이가 왔어요!》

옥설이는 할머니보고 남편을 만난듯이 반갑게 소리쳤다.

《누렁이야, 주인은 어데 있니?》

그녀는 죽을등살등 죽을 퍼먹는 개의 털을 쓸었다. 누렁이는 전신이 물자국이 돼있었다. 누렁이는 배가 웬간히 차서 제 발을 만지는 옥설의 손을 핏으며 계속 킁킁거렸다.

옥설이는 짐작이 갔다. 그녀는 급히 구들에 올라 옷을 꾸둥쳐입기 시작했다.

누렁이가 왔다는 희소식은 다시한번 림산마을을 발각 뒤집었다. 국에서 파견한 구급대 작업소지도일군, 로동차들 가족 할것 없이 물밀듯이 옥설이네 집에 몰려들었다.

옥설이는 개를 따라나섰다. 구급대젊은이들도 그뒤를 따랐다. 땅우에선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누렁이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하늘에선 직승비행기가 그들을 따라 빙빙 돌았다.

얼머 녹으며 한 눈은 땀을 놓은것처럼 사람들을 삼시간에 눈구덩이속에 밀어넣기도 하고 미끄러뜨리기도 하면서 좁체로 길을 내주지 않았다. 앞에서 뛰어가던 누렁이는 그때마다 돌아서서 꼬리를 지으며 킁킁 울어댔다.

옥설의 마음 바질바질 타기만 했다. 남편은 지금 어타게 기다리고있겠는데... 옥설이는 적삼속 맨발에 둘러핀 따끈따끈한 켜기밥이 식지 않을가 배에 손을 꼭 얹으며 속을 끓였다. 그녀는 언녕 물자루가 뻘건만 빠지며 미끌며 생사결단 누렁이를 따랐다.

웁- 하고 산바람이 일 때마다 가지에 쌓였던 얼음으로 돼버린 눈이 썉썉 소리내며 눈사태처럼 쏟아져내렸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갑작스레 눈을 뒤집어쓴 사람으로 변하곤했다.

몇시간이나 설원에서 헤매었는지 그들이 누렁이를 따라 산둔덕에 올랐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개도 진하고 사람도 진했다. 머리우에선 직승비행기가 떠돌고있었다.

그들이 철탑으로 망원초를 세운 둔덕에 올라서서 험레벌떡 눈을 헤치는데 앞에서 누렁이가 짙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누렁이는 사람들앞에 와서 몇번 짓다가는 앞으로 뛰어가 짓군하면서 달려갔다 달려왔다 하면서 깡깡거렸다. 앞이 보였다. 옥설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마음의 기탁점, 희망의 기탁점을 향해 뛰어갔다.

눈보라가 휩쓸고간 마당만하게 땅이 드러난 작은 둔덕우에, 망원초에서 몇십미터 떨어진 둔덕우에 사람이 누워있었다. 영철이었다.

《여보세요!》

옥설이는 넘어지며 그 작은 둔덕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다.

《여보세요! 옥설이예요! 옥설!》

옥설이가 영철의 몸을 불안고 흔들었을 때 영철의 몸은 이미 꼬맹꼬맹 얼어있었다. 피칠갑이 된 손, 굵어 불뚝이 된 얼굴, 갈기갈기 찢진 옷지랄... 영철이는 기고 또 기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졌던것이다. 오른손을 앞에 있는 나무뿌리에 걸고 왼손을 흙에 박고 오른발을 가드려뜨리면서 흙속에 묻은걸 보면 틀림없이 기고기다가 그 모양, 그 자세로 굳어진것이 틀림없었다.

《여보세요. 흑흑...》

옥설이는 얼어 찢찢해진 남편을 끌어안고 흠뻑이 된 영철의 얼굴에 땀을 비비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보기좋은 영철의 구레나룻에 매달려 말라버린 피덩이기가 파들파들 떨렸다.

《왜 대답이 없어요. 옥설이 왔어요. 옥설이 흑흑...》

옥설이 영철의 굳어진 몸을 안고 흔들자 영철의 어깨에 메여있던 보충도 함께 흔들렸다. 미대는 쌀 한알 없고 노루가죽집 단도는 허리에 찬 그대로였다.

《이녀석 내가 나먼저 가다니? 영철아, 이녀석! 흑흑...왜 대답이 없니? 응?》

리아바이 영철의 시체를 안고 통곡했다.

위-잉-위-잉-산도 울고 밀림도 울고 사람도 울었다.

리아바이가 영철의 어깨에서 총을 벗겨들었다. 자기가 메였고 영철에게 넘겼던 총이다. 그는 총신을 하늘로 보내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레총이 울렸다. 그 레총소리는 숙연히 머리숙인 장백의 련봉에 메아리치면서 밀림에 울려퍼졌다.

《그 총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남편이 채하지 못한 사업을 이어받겠어요!》

옥설이 리아바이손에서 총을 받아쥐었다. 리아바이는 옥설을 와락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지었다.

《이 사람, 자네...흑흑흑...》

《제가 못다 하면 그이의 아들이 이어받을겁니

다.》

말을 마치자 옥설이 자리를 일었다. 나도 일어섰다. 우리는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옥설의 이야기는 빈틈없이 짜여진 한편의 완전한 소설이었다.

산봉우리에 오르자 철탑으로 된 망원초가 우리앞에 나타났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말 한마디 없었다. 두사람 다 영철이를 그리는 추모의 정에 묻혀있었다.

우리는 망원초에 올랐다. 저 멀리 백발을 흘날리는 백두산이 그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을 드러내며 우렁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그밑으로 잔디밭갈기도 하고 푸른 주단갈기도 한 일망무제한 장백의 원시림이 마파람에 수울렁수울렁 푸른 파문을 그리며 한없이 물결쳐갔다. 하얀 물결을 일구기도 하고 거무튀튀한 물기둥을 세우기도 하면서 장백의 숲은 백두의 배전을 치면서 쉬임없이 출렁거렸다.

망원초에서 멀지 않은 둥그스름한 작은 둔덕에 하얀 비석이 서있었다. 나는 비석을 눈짓하며 옥설이를 쳐다봤다.

《장백의 림해를 굽어보며 림해에서 살라고 그 자리에 묘를 앉혔어요.》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고 망원초에서 내려왔다. 나의 주인공을 보고싶고 나의 주인공에게 술 한잔을 올리고싶어서였다.

《장백의 수리개 리영철동지묘》라고 아로새긴 대리석비석이 고인의 하얀 넋을 모시고 조용히 서있었다. 풀 한대 없이 깨끗한 묘지는 빨갛게 핀 나리꽃을 돌레머리로 하고 봉긋하게 솟아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제물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때 바이올린의 비장한 선율이 숲을 울리며 흘러왔다. 《삼림의 노래》였다. 나는 망원초를 쳐다봤다. 옥설이 바이올린을 켜고있었다. 설한풍을 휘몰아쳐오기도 하고 비바람을 일구기도 하고 눈물을 뿌리기도 하는 그 선율은 림해에 넋을 묻은 마음들을 안고 숲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인에게 술을 부어올렸다. 나의 주인공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리는 술잔이었다.

탕- 총소리 울렸다.

나는 총소리난쪽을 바라봤다. 옥설의 손에 보충이 들려있었다. 레총이었다. 래일이면 전람관의 진렬품으로 될 보충, 리아바이와 영철이 메였고 지금은 옥설이 메고있는 총, 옥설이는 그 보충으로 마지막 작별의 레총소리를 울렸던것이다.

나의 주인공은 더는 비둘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개를 굳힌 굳센 수리개였다.

하늘에 장백의 수리개가 날고있었다.

-끝-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정일

한해의 편집을 끝내고

흐르는 세월 살같이 빠르다더니 어느덧 이해도 다 가고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날이었다.

내가 어느날과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라 궤도전차를 기다리며 오늘 있게 될 부서의 년간편집사업총화모임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데 뒤에서 나직나직 속삭이는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책이야?》

《...》

《오, <조선문학> 6호, 가만... <아바이, 불이라는 것 두 말입니다. 동무가 많아야 잘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아, 단편소설 <모닥불>이로구만. 꽤 좋은 소설이야. 그런데 동문 이거 이제야 봐?》

《인상이 깊었더래서 다시 보는거예요.》

귀를 기울이노라니 우리가 편집하는 잡지의 소설을 놓고 이야기가 벌어지고있었다.

《괜찮은 소설》, 《인상은 깊은 작품》,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릴 되뇌이느라니 잔잔하던 나의 가슴에서 파문이 일었다.

우리가 편집하는 작품들이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치미는 것과 함께 문학울 애호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강렬한 호기심은 끝내 나를 뒤돌아보게 하였다.

남자는 서론쯤 나보이는데 약간 길쭉한 얼굴에 두눈이 어글어글하게 잘 생긴 편이었고 스물서넛 나보이는 처녀는 오동통통한 하얀 얼굴에 뺨이를 살짝 드러내며 웃는데 무척 귀염성스러워보였다.

나는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들을 하는 청년들일까 하고 생각하며 궤도전차에 올라 빈자리에 가앉았다. 그들도 내가 앉은 저쪽 맞은편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의자에 앉아서도 여전히 소설의 세계에 끌려들어 논쟁들을 계속하는지 조용히 속삭이는속에서도 《모닥불》의 주인공 조이천의 이름이 가끔 귀에 들려왔다.

나는 우연히 《독자모임》에 참석이라도 한것 같아 마음이 흥그러워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로 가슴뿌듯해졌다. 전차가 아니라 어디 다른곳에서 마주앉았다면 그들과 우리 잡지의 소설들을 놓고 실컷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가만 생각하니 어쩌면 그들이 오늘 있게 될 년간편집총화모임에서 꼽히울 우수한 작품들을 먼저 시사해주는듯싶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그 바쁘신속에서도 총서작품의 하나인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보시고 혁명적인 소설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잡지에 편집된 소설작품들을 보면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금보다 훨씬 값있는 소설로서의 자기 체모를 갖추기 위해 그 전해보다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제도 다양하게 설정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소설가들이 써낸 작품인 단편소설 《리별과 상봉》(백보흠 1호), 《만민의 하늘》(김명희 4호), 《상봉》(리희남 7호)을 비롯해서 위대한 수령님 형상작품들이 응당한 높이에서 수준있게 창작되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 《은인》(황청일 6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상과 의지, 담력과 고매한 인품을 철학적으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감동에 젖어들게 한다. 단편소설 《인민의 이름으로》(김형지 10호) 역시 몇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준하시였던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정령이 세월이 흐른후에야 인민의 간절한 소망과 다함없는 신뢰속에 발표하게 되는 력사적사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품모속에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워하고 못잊어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인민의 마음을 담아 쓴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그 사상에술성에 있어서 완벽한 기념비적명작으로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만민의 심장을 격동시킨 본보기작품의 하나이다. 그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담력과 도량을 잘 형상

한 담시 《푸른 강에서》(성민백 5호)는 읽을수록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과연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성인이심을 다시금 절감케 할뿐아니라 담시로서의 자기 성격을 옹계 살린 좋은 시이다. 그리고 시 《수호자의 선언》(오영제 6호)와 조국애주제의 시들인 시초 《내 목숨 묻고 사는 정》(홍현양 5호), 장시 《내 사는 집》(최영화 9호), 시초 《사회주의 너와 이야기한다》(신홍국 9호)들은 자기들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축적된 조국애에 대한 감정을 진실하고 생활적으로 잘 노래하여 여운있게 씌여지였다.

소설문학에서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과 의지가 비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어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는 5호에 실린 단편소설 《추억》(리명균), 7호에 실린 《기다리는 계절》(한웅빈), 《개선문》(강철), 6호의 《모닥불》(전창철), 3호의 《그들의 마음》(리태렬), 4호의 《봄노래》(박춘섭) 등은 비교적 독자들속에서 꽤 많은 소설로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특히 신인들이 쓴 단편소설 《너전사의 길》(조근 3호), 《목란꽃향기》(리혜경 1호), 《기다리는 안해》(정성우 6호), 《별》(리정수 9호)들은 참신하고 다 자기들의 개성이 엿보이는 작품으로서 평이 좋다.

평론 《혁명의 성인의 도덕과 인품을 닮은 시대의 명작》(최길상 10호)은 문학을 선도하는 자기의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교양적의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인민적인 요구를 잘 구현하였다.

올해 우리 잡지에는 여러편의 실화문학들이 실리였으나 그중에서 《우리의 집》(손광영 2호), 《내나라의 모습》(변월녀 6호)은 우리 시대 당일군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풍모를 작은 세부들을 리용하여 재치있게 그려냄으로써 읽을 맛이 있는 글, 어떤 면에서는 소설보다 나은 측면이 있게 씌여짐으로써 자기의 특성을 잘 살린 글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성과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고루한 창작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격동하는 시대에 뛰어들지 못할듯한 작품들이 종종 나오고있다.

단편소설 《속도》(리명경 3호), 《생활의 시작점에서》(한형수 8호)에서는 시대성이 엿보이지 않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고유한 미에 오히려 손상을 주고있는듯한 감이 든다. 좀더 생활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작품창작에 립할 때 작가의 심장도 끓고 그속에서 태

어나는 《생명》도 아름다운 시대의 메아리를 남길수 있지 않겠는지...

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시대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찬양의 감정, 또 벽찬 생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그를 한가슴에 뜨겁게 체험하는 시인만이 좋은 시를 써낼수 있다는것은 이미 천만번 론증된 진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시인들속에서 탁상문학에 매달리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는 작품을 써내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어려있는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당의 혁명적 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들이다. 이런 시대성을 안은 작품들만이 인민이 좋아하고 영생하는 생명력을 가진 작품으로 태어나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는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칠것이 아니라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전에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자면 작가들은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자매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하며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열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문학작품에 구현할수 있으며 또 풍부하고 깊이있는 사색을 걸쳐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을것이다. 그러자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우리의 위대한 현실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쥐고 생활을 진실하고 참신하게 형상할수 있을것이다.

어느덧 궤도전차가 벗어섰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의 총화를 앞두고 나의 생각은 끝없이 아지를 치며 뻗어갔다.

궤도전차에서 내려 출근길을 다그치는 나의 머리속에서 아까 그들의 말이 또다시 떠오른다. 《꽤많은 소설》, 《인상깊은 작품》, 다시 뇌이니라니 독자들의 인기를 독점하는 이런 작품은 작가와 편집자와의 공동작업의 성과여부에 많이 달려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갈마든다.

일면적으로 편집자가 작가의 의도를 무시해도 안될것이며 작가가 편집자의 의견을 너무 부정해 버려도 안되지 않겠는가. 제기된 의견이 타당하고 작품이 좋아질것으로 보인다면 그 의견에 따르고 그대로 작업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편집자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제 의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종내는 편집자의 의견을 따르고 나중에 책이 나온후에는 그것이 옳았다는 식으로 자기의 의사표

명을 하는 경우도 흑간 있다.

교훈은 편집자 역시 작가 못지 않게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혹은 작가를 평가해야 작품이 완전무결하게 자기의 빛과 향기를 가진 작품으로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새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예술부문에서 더 많은 명작을 내놓을데 대한 말씀을 높이 받들고 더 힘있게 분발해나선 작가들과 어깨를 견고 훌륭한 작품들을 편집함으로써 더 휘황한 새해를 명작풍년의 해로 만드는데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아마 문학을 애호하는분들은

더 큰 기대를 안고 새해의 우리 잡지를 받아안게 되리라 생각된다.

보통날의 출근길에서 듣게 된 낯모르는 독자들의 독후감은 편집자의 본분을 새롭게 자각케 하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높은 책임감과 긍지를 안고 자기의 초소를 계속 빛내어나가는것이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임을 가슴에 새겨주어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듯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본사기자 리종성

충신 병사의 시를 쓰며

한원희

눈물 글썽히 신문을 읽고
가슴 뜨거이 방송을 듣고
온 나라 인민이 걱정예 목메인 이야기
우리 장군님께서도 아시고
온 남녘땅의 민심을 울린 이야기

한편의 시로 쓰기엔 쉽지 않아
나는 썼다가 지우고 또 고쳐쓰네
아 나 어린 충신 병사의 시
적구에서 홀로 싸워이기고 돌아온
김영길하사에 대한 시

산사태를 일으키는 큰물이 덮쳐들어도
조국이 정해준 위치를 못떠나
명령없인 명령없인 초소를 못떠나
큰물에 휘말려 떠내려간 병사

사나운 파도속에
가물가물 멀어지는 의식속에
내 죽어도
장군님의 전사로 죽으리라
오각별 군모를 눌러쓰고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소중히 안은 병사

그 마음 한편의 시로 남기고싶어라
잊지 못할 노래로 전해가고싶어라
적구에서 의식을 되찾은 병사
그의 말은 또 얼마나 가슴을 치는가

나의 군복을 내놓아라
우리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모셔오라
나는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다
마디마디 적들을 전률시킨 그 목소리
적들의 무리속에 홀로 있어도
변함없는 충신의 일편단심 지켜낸
김영길하사

기어이 기어이
수령님의 초상휘장 가슴에 모시고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바로 쓰고
분계선을 넘어
장군님품에 돌아왔거나

쓰고 다시 고쳐써도
주옥같은 시어를 골라 엮어가도
충신의 심장의 고동소리 다 담을수 없네
그 정신의 높이
그 삶의 높이
내 못따라 내 붓이 못따르네

아 충신을 노래하자면
먼저 그와 같은 충신이 되어야 하는것
내 한생 것처럼 살며 싸우며
내 한생 충신에 대한 시를 쓰리라
태양의 두리에 빛나는 못별처럼
우리 장군님의 두리에 빛나는 충신들을
노래로 전하고 전해가리라

불타는 해여

송의선

흐르는것이 세월이라지만
나는 내 마음에서
흘러보내지 않으리, 떠나보내지 않으리
1996 년이여

어떻게 산 한해던가
걸음걸음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만난을 헤치는 《고난의 행군》으로
나의 삶이 값높았고
나의 조국이 번영한
뜨거운 열두달 그 하루하루

나는 내 마음에서
지울수 없으리 지우지 못하리
이해의 첫 아침 우리 장군님
그리움에 젖은 마음
흰눈우에 깊숙이 새기시며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시던
그 거룩한 자욱

이어가신 그 자욱자욱
동서천리 전선고지들에 터지던 봄우뢰
환호성을 실은 장쾌한 봄시위물
천만의 가슴 뒤흔들며
시대의 한복판으로 굽이쳐 흘렀거니

오늘도 이 마음에 뻗어있어라
장군님 손수 운전대를 잡으셨던
험한 령 굽이굽이 초소길
쏟아지는 석수속에 걸으시던
건설장 지하천리 물길들이

지금도 이 가슴에 불타고있어라
축포터지는 10 월의 하늘아래
파도치던 불의 대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가는
혁명의 불 계승의 그 불
신념의 불이 타오르고있어라

광풍도 불구름도 다 막아주시며
행복을 펼치시고
승리를 펼치신
장군님의 해와 달이
내 조국의 해와달

그 하루하루에
그 걸음걸음에
나는 심장으로 새겼노라
고난을 웃으며 헤친 그 삶의 보람을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그 진가를

보라
장군님의 그 하루하루에 받들려
시련속에서도 부강을 펼치는 사회주의 내 조국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이 강산
더 강하여지고 더 억세게 뭉친 인민

이룬 공적 너무 높아
이 마음에서 가지 않는 해
받아안은 사랑 너무 뜨거워
이 가슴에 식지 않고 불타는 해
나의 밝은 인생길
부강조국의 넓은 길이
창창히 열려 빛나는 해

가면 다시 못오는것이 세월이라지만
나는 함께 가리 오, 함께 가리
앞에 올 년대와 년대들에
이어지고 이어지는 혁명의 행군길에
1996 년이여, 불타오르라